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에 대한 젠더 분석 : 서남권 4개구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강희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이경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남권 지역은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서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주민으로서 어떻게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지역여성들의 일상적 삶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관련 정책 및 사업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다수의 외국계 주민이 서남권으로 모여들고 있고, 이들이 서울에서 함께 살아갈 현실적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 연구는 지역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 특정 공간에서 실행되어야 할 지역정책의 방향과 지역 단위 통합 논의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시신 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서울시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Content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1) 연구 방법	7
2) 연구 내용	9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5
1) 밀집지역 형성과정과 외국계 주민의 생활실태 연구	18
2)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중심의 정책수립 연구	20
3) 선주민과 이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21
4)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연구	22
5) 선행연구의 제언 및 한계	23
2. 중앙 정부의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 검토	24
3.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정책	26
1)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29
2)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 전달체계 현황	31

4. 기존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32
1) 중앙정부의 정책	33
2) 서울시의 정책	36
3) 여성단체 활동의 함의 : 대림3동 S도서관 사례	40

III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현황

1. 서남권 4개구 인구의 규모 및 특징	45
1) 선주 한국인 인구 추이	46
2) 외국계 주민 인구 추이	48
2. 밀집지역 형성의 역사와 현황	50
1)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형성의 과정	51
2) 지역 내 주민 분포 현황	54
3) 지원체계의 분포 현황 및 지역민의 접근성	57
3. 요약 및 시사점	60

IV 외국계 주민과 선주 한국인의 상호 이해도 분석

1. 서남권 4개구 선주 한국인 주민의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이해	66
1)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일반적 인식	67
2) 지역주민으로서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이해와 오해	73
3) 외국계 주민과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	76
4) 정책에 대한 이해	82

2. 외국계 주민의 삶과 한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85
1) 밀집지역 거주 이유	86
2) 한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과 교류	88
3) 정책에 대한 이해	96
3.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민 간 교류의 가능성과 여성	100
1) 주민 간 교류의 가능성	101
2)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105
4. 요약 및 시사점	108

V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주민의 정책 요구

1.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정책 요구 분석을 위한 FGI	115
1) 조사방식 및 참여자 선정	115
2) 조사 참여자 특징	116
2. 한국인 주민이 보는 지역실태와 문제의식	119
1) 주민구성의 변화와 한국인 주민의 문제의식	119
2)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 확산	122
3)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 집단적 불신	125
4) 어쩔 수 없는 동거에 대한 수용과 문제의식	128
3. 외국계 주민이 보는 지역실태와 문제의식	131
1)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부족: 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	132

2) 한국인 주민의 불만에 대한 공감과 문제의식	135
3) 기반시설 부족과 정책의 부재에 따른 일상의 불편	138
4)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	141
4. 지역주민 간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	147
1) 선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공동 활동	147
2) 이주민 간 소통의 필요성	151
3)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의 가능성	155
4) 여성 주민이 보는 정책 과제	158
5. 요약 및 시사점 : 지역의 변화와 여성	164

VI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정책 제언

1. 정책의 방향	169
1) 지역 공간 정책	170
2) 지역민 정책	171
2. 주민 교류 및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과제	172
1)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의 재설계	175
2) 여성 주민의 역량강화	177
3) 주민 공동활동 공간 제공	178
4) 다가구 주택 및 골목 단위 주민 프로그램 지원	179
5) 주민센터를 이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80

Contents

6)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181
3. 지역 안에서 여성 연대의 가능성	182
참고문헌 _	184
Abstract _	187
부 록 _	189
부록 1) 외국계 주민용 설문지	191
부록 2) 한국인 주민용 설문지	200
부록 3) 외국계 주민용 중국어 설문지	209
부록 4) 외국계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218
부록 5) 한국인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223

표 목차

표 I-1	한국 선주민 FGI 주요 대상 및 조사항목 내용	8
표 I-2	외국계 주민 FGI 주요 대상 및 조사항목 내용	8
표 II-1	2012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25
표 II-2	2014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	26
표 II-3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27
표 II-4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사업 및 관련 예산	30
표 II-5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전달체계 현황	31
표 II-6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39
표 III-1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성별 한국인 인구 추이(2010-2014)	46
표 III-2	서울시 서남권 성별 인구 증감 추이(2011-2014)	47
표 III-3	서울시 서남권의 성별 외국계 주민 인구 추이(2010-2014)	48
표 III-4	2014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대비 중국동포의 규모 및 비율	49
표 III-5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 밀집동 현황	56
표 III-6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관련 지원체계 현황	59
표 IV-1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 설문조사 개요	66
표 IV-2	추상적 수준의 다문화 이해도 : 4개구 한국인 주민	68
표 IV-3	지역 내 외국계 주민과의 소통 : 4개구 한국인 주민	69
표 IV-4	지역 내 외국계 주민과의 접촉 및 인식 : 4개구 한국인 주민	70
표 IV-5	응답자의 특성 : 4개구 한국인 주민	71
표 IV-6	외국계 주민과의 삶과 지역의 변화(경제) : 4개구 한국인 주민	75
표 IV-7	외국계 주민의 위상에 대한 인식 : 4개구 한국인 주민	76
표 IV-8	외국계 주민의 거주 및 관계에 대한 수용도 : 4개구 한국인 주민	77
표 IV-9	서울시 각급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2014)	78

Table Contents

표 IV-10	외국계 주민과의 공존과 자녀 세대: 4개구 한국인 주민	79
표 IV-11	외국인 주민과의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활동 현황: 4개구 한국인 주민	80
표 IV-12	외국계 주민 거주에 대한 체감 및 지속거주 의지: 4개구 한국인 주민	81
표 IV-13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지: 4개구 한국인 주민	82
표 IV-14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요구(내용): 4개구 한국인 주민	83
표 IV-15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요구(대상): 4개구 한국인 주민	84
표 IV-16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개구 외국계 주민	85
표 IV-17	지역거주의 이유(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87
표 IV-18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89
표 IV-19	한국인 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4개구 외국계 주민	90
표 IV-20	지역 생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91
표 IV-21	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인식: 4개구 외국인 주민	92
표 IV-22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 응답자의 직업 분포	93
표 IV-23	각종 연금 및 보험 가입 현황: 4개구 외국계 주민	94
표 IV-24	지역주민으로서의 교육 경험 및 삶의 실태: 4개구 외국계 주민	95
표 IV-25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정책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4개구 외국계 주민	96
표 IV-26	외국인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97
표 IV-27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 우선 순위 희망(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98
표 IV-28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추진 역할인식(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98
표 IV-29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99
표 IV-30	서울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사항(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100
표 IV-3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인과 함께 하는 모임 현황(다중응답)	103
표 V-1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FGI 조사 개요	116
표 V-2	FGI 조사 참여자 특성	117

그림 목차

- 그림 III-1 ■ 서울 서남권 4개구 중 외국계 주민밀집 동별 외국인 주민 비율(2014)
..... 55
- 그림 III-2 ■ 서울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밀집 지역 벨트화 현황 57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활발히 제기되어 왔으나,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동일한 수준에서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 이주 현상이 한국사회의 사회-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이현욱 외, 2014), 이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
- 서울시 외국계 주민의 전체 규모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나, 전체 인구대비 비율¹⁾에서는 외국계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25개 자치구 중 외국계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은 곳이 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 관악, 광진구로 서울의 도심권과 서남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서남권의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 지역은 중국 국적 동포를 중심으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면서 언론 등 각종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 연구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이 중국계 동포 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서울시 차원의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도 즉 공간과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밀집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 서울 4.1%, 경기 4.0%, 전국 3.1%. (2014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통계)

2. 연구 목적

-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정책,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주요 구성원인 중국계 동포 정책과 한국 선주민과 외국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수준에서 통합 논의의 단초가 될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을 통해 여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주 서울시민과 외국계 주민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선주민 여성과 이주민 여성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여성 친화적인 다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실태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정책을 분석함.
- 설문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서의 삶, 상호 이해도와 기존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분석함.

<서울시 외국계주민 밀집지역 구성원 설문조사 개요>

- 분석자료 : 2014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조사
 - 조사기간 : 2014. 7. 9.~7. 31.
 - 조사대상 : 서울시 서남권 4개구(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를 생활권으로 하는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이주민
 - 응답인원²⁾ : 선주 한국인 (262명 여성 123명, 남성 139명)
외국계 주민 (219명 여성 107명, 남성 112명)
 - 주 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 선주 한국인 총 286명이 응답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자 24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외국계 이주민 또한 총 229명이 응답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자 10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분석대상 : 서울시 서남권 4개구 거주민

구분	선주 한국인	외국계 이주민
조사 내용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일반 질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과 관계 자녀세대에 대한 인식 경제주체로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	거주지 선택의 이유 한국인과의 교류 관계 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지역주체로서의 현황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 분석방법 : SPSS 18.0

-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 내 장기거주 한국인 주민과 상인, 초등학교 학부모, 다문화마을공동체 참여자 등 선주 한국인과 지역 내 장기 거주 이주민, 중국동포,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 다문화마을 공동체 참여자 인터뷰를 실시함.

4.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인 서남권 4개구 거주민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사회통합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정책 분석을 실시해 기존 정책의 함의와 보완점을 도출함. 실태분석에 기반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참고하여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함.
- II장에서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고,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검토하였음. 이어 서울시의 정책 현황을 검토해 기존 정책에서 여성주민들의 특성이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음.

- III장에서는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형성의 역사와 인구 구성의 특성을 기존의 문헌자료 및 신문기사 자료, 안전행정부의 주민 통계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를 통해 파악하였음.
- IV장에서는 서울시 서남권 거주민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거주민의 실태는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주민으로 나누어 살펴봄. 주민들의 상호 이해도 및 정책 요구 실태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4개구 거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 선주 한국인은 자녀 연령별 특성을 따로 파악함. 외국계 주민의 설문결과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과 함께 단신 거주자와 가족 단위 입국자, 학령기 자녀와 비학령기 자녀를 가진 이들의 차이에 주목하여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특성을 분석함.
- V장에서는 특히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대림, 가리봉, 가산, 독산, 신림동 거주 한국인 주민과 이주민 그룹 FGI를 통해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대상별, 분야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과제를 발굴함. 또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내에서 선주 한국인과 이주민 여성 간 지역 단위 여성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5. 정책 과제

□ 서울시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정책의 방향

- 서울시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밀집지역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 : 서울시의 대표적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인 대림동, 가리봉동을 아우르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구는 외국계 주민 중에서도 중국 동포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다수인 특성과 전국적인 동포 인구의 성별 구성과 달리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

- 다문화 사회와 지역을 구성하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지역민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 구체화 : 이제까지의 외국인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만을 특정하는 정책이었다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정책은 구성원 누구나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전환

□ 분야별 정책 과제

- 주민 공동 활동공간 제공 : 글로벌센터, 글로벌 빌리지센터 등 외국계 주민 중심의 새로운 공간은 다양한 이주민 모임뿐 아니라 선주민들 중심의 지역 모임, 지역 상인회 등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자율적으로 열리고, 그런 활동들이 이주민 조직과 소통될 수 있는 연대와 순환의 장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지역민 운영위원회 등 제안
-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거주 경력이 오래 된 이주민과 새로운 이주민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주민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동포들의 이용이 잦은 구직 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
-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재설계 : 이주민 자녀의 학습지원과 함께 이주민 자녀의 문화적 자산을 선주 한국인 학생에게 전수하는 강사 역할 학습프로그램 포함 및 중국동포교사협의회 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학교를 통한 학생 보호자용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가구 주택 골목단위 주민 프로그램 지원 : 공동주택 단위 주민 프로그램은 먼저 이주해 온 주민이 이주 기간이 짧은 이들을 이끌어 가는 자조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이주민 상호 간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세입자를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임.

- 밀집지역 내 주민센터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 지역 종합 발전 계획 과제에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의 지원 사업에 포함된 적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충분한 사업임.
- 여성주민 역량 강화 : 선주민 여성의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지원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동포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성 증진을 위해 밀집지역 내 동포자녀 보육시설 시범 설치 운영. 글로벌센터나 글로벌 빌리지센터의 일정 공간을 동포자녀를 위한 시범 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동포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집중거주지 기초 인프라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상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초국가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이주자의 주체성을 강조할 것인지 이주자가 처한 정치경제적 불균등한 위치성을 강조할 것인지(McEwan, 2004)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그간 이주 연구의 전반적인 틀은 출신 국적, 이주한 국가 내에서의 체류 자격에 따른 정책 접근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나, 이주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는 국가 간의 문제 이전에 개인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국가가 결정한다고 해도 그 생활의 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웃, 동료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론이 제기된 이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결혼이주 여성의 정착, 적응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에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활발히 제기되어 왔으나,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동일한 수준에서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리학 분과에서는 초국가적 이주 현상이 한국사회의 사회-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이현욱 외, 2014), 이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계 주민의 전체 규모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나, 전체 인구대비 비율³⁾에서는 외국계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외국계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은 곳이 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 관악, 광진구로 서울의 도심권과 서남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남권의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 지역은 중국 국적 동포를 중심으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면서 언론 등 각종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 연구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이 중국계 동포 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서울시 차원의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는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연구(2013, 양한순)가 유일하다. 즉 공간과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밀집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로 대표되는 서울시 서남권 4개구의 거주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주민이 서로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를 넘나들며 외국계 주민 거주지가 서남권 내에서 벨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다문화 가족 중심의 정책에 더하여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과 중국계 동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의 인구 특성을 감안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이 향후 보다 발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 어떤 특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2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김이선, 2012)에서 나타난 위협인식과 수용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 등이 실제 외국계 주민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정교

3) 서울 4.1%, 경기 4.0%, 전국 3.1%. (2014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통계)

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인 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역의 요구에 부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의 현황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분석될 때 정책의 근거가 확고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확대와 다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 서울시 서남권의 주요 구성원인 중국계 동포에 대한 정책과 지역 수준에서 통합 논의의 단초가 될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을 통해 여성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으로는 시설의 설치, 다문화마을 지정,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지역 내 여성의 요구나 성 평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정책에서의 성인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주 서울시민과 외국계 주민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비추어 서울시 서남권 거주 시민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이해도⁴⁾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외국계 주민과의 실질적인 접촉 빈도가 높은 주민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선주민 여성과 이주민 여성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여성 친화적인 다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4) 이 연구에서 '다문화 이해도'는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떻게 서로를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상호간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정 국적이나 체류 자격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 지역에서 여성 구성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여성 이주민이 젠더와 인종(출신국적)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젠더문제를 공유하는 여성으로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등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외국계 주민의 종교, 인종, 식생활과 접촉의 빈도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특별히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 접촉이 보다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 안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에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차원의 현장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기존의 외국계 주민 정책의 중심에는 다문화 가족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달체계로 하고 있어 서울시의 인구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실현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반적인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비추어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프로그램의 파악과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 차원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상호 이해도의 수준 및 향후 상생과 공존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서울시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거주민 정책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의 시대에, 지역에 정착하여 삶을 지속하게 되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이 연구의 밀바탕이 되고 있다. 변화하는 공간과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 정책 마련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출발하였다.

1) 연구 방법

공간의 변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통계와 신문 기사 및 문헌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인구 변화 추이를 읽고 그 과정에서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지역민 설문조사는 한국인 주민 조사와 외국계 주민 조사라는 두 축에서 진행되었다. 외국계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냄으로써 해당 지역이 외국계 주민 거주지로서 각광받게 된 원인과 외국계 주민들이 갖는 지역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선주민 조사에서는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선주 한국인이 갖는 인식과 외국계 주민의 유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역의 변화상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는지 밝혀냄으로써 한국사회, 서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안착해 갈 것인지 모색하였다.

한국 선주민이나 외국계 주민 모두 기존 통계에서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동을 중심으로 설문을 받았다. 따라서 외국계 주민, 한국 선주민 모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할당 배분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가 주로 낮 시간 대에 이루어진 만큼 낮 시간에 주로 지역에 머무는 전업 주부 여성과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이 주요 응답자로 구성되었다. 외국계 주민은 출신 국적이나 체류 자격 등에 따른 고려를 하지 않았으나, 지역 거주민의 특성상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국계 동포이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구체적인 실상과 정책적 요구를 드러내기 위해 외국계 주민과 한국 선주민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한국계 선주민 중 FGI는 설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문에 임해 주는 이들을 따로 인터뷰 집단에 포함시켰고, 이들을 통해 지역의 다른 거주민으로 확장하는 한편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FGI 참여자와 질문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1 】 한국 선주민 FGI 주요 대상 및 조사항목 내용

대상	세부 내용
지역 내 장기 거주 한국인 및 상인	기본정보, 주거상황, 지역사회변화 과정, 외국계 주민과의 사회적 접촉빈도, 지역 내 외국계 주민의 밀집으로 인한 장단점 등
지역 내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의 변화와 밀집지역 교육의 특징, 정책 요구
다문화마을공동체 참여자	각 사업의 특성, 사업 안에서의 성별 차,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 참여자들의 인식

외국계 주민 FGI와 관련해서는 중국계 동포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중국동포 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결혼이주자 중심의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은 별도로 사업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 표 I-2 】 외국계 주민 FGI 주요 대상 및 조사항목 내용

대상	세부 내용
지역 내 장기 거주 이주민	기본정보, 주거상황, 외국계 주민과의 사회적 접촉빈도, 지역 내 외국계 주민의 밀집으로 인한 장단점 등
중국동포	공공서비스 및 지원체계이용,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	각 체류 자격별 주민들의 정책적 요구 및 차이,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
다문화마을공동체 참여자	각 사업의 특성, 사업 안에서의 성별 차,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 참여자들의 인식

한국 선주민 FGI는 설문조사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지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수렴하여, 지역민들이 삶의 맥락에 따른 차별화된 요구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계 주민 FGI에서는 밀집지역 내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 동포들의 특화된 요구와 함께 관악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학생 집단과 결혼이주 여성 등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거주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집단의 요구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인 서남권 4개구 거주민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사회통합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정책 분석을 실시해 기존 정책의 함의와 보완점을 도출한다. 또한 실태분석에 기반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기존의 연구 사례와 정부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어 서울시의 정책 현황을 검토해 기존 정책에서 여성주민들의 특성이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III 장에서는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형성의 역사와 인구 구성의 특성을 기존의 문헌자료 및 신문기사 자료, 안전행정부의 주민 통계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를 통해 파악하였다.

IV 장에서는 서울시 서남권 거주민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거주민의 실태는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주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민들의 상호 이해도 및 정책 요구에 대한 실태 파악은 기본적으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4개구 거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 선주 한국인은 자녀 연령별 특성을 따로 파악하였다. 외국계 주민의 설문결과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과 함께 단신 거주자와 가족 단위 입국자, 학령기 자녀를 둔 이들과 그 외 집단의 차이에 주목하여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V 장에서는 특히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대림, 가리봉, 가산, 독산, 신림동 거주 한국인 주민과 이주민 그룹 FGI를 통해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대상별, 분야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내에서 선주 한국인과 이주민 여성 간 지역 단위 여성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외국계 주민과 한국 선주민이 서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지역의 현황을 비교하여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징이 두드러진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정부 차원의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에 더하여 서울시의 특화된 정책 지원 분야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 및 정책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정책 대상으로서의 포섭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별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성 평등한 다문화 공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해 갈 근거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중심의 연구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 연구와 젠더 관점이 교차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였다. 이에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의 범위를 확장하여 서울시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을 도출해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보다 실질적인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는 한편 특정 대상 중심의 연구에서 공간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간 구성원 누구나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제안해 가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 서남권의 특정 동을 중심으로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단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라는 범주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이 인구의 드나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고, 주변화된 지역의 일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형성되는 과정, FGI 조사에서 이러한 점이 언급은 되었으나,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설문 분석에서 전체 응답자의 성별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골목 단위, 동 단위 직

접 조사 과정에서 연령별, 집단 특성별 응답자의 성별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선주민 응답의 자녀 연령에 따른 성별 분석이나 이주민 응답의 거주 형태별, 자녀 특성별 응답은 성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정책 방안에서 제시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접촉의 면을 넓히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추후 과제로 진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중앙정부의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 검토
3.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정책
4. 기존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다문화 혹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사람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축에서 진척되어 왔다. 결혼이민여성,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 유학생 등 외국계 주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상별 실태조사,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갈등요인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다른 한축으로는 외국인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현황 파악 및 정책분석,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스키아 사센(1998)은 글로벌 도시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은 계층적으로 차별화된 회로를 통해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글로벌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상층회로와 경제 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외국인 여성들로 대표되는 생존 회로(survival circuit)의 흐름을 말하는데 후자는 상층회로 이동자들과 진출국의 고소득자들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노동과 재생산 관련 일들을 수행하는 주변적 존재로 살아간다. 실제로 이들 대다수는 진출국의 노동부족을 영원히 메워 나가는 장기 체류자이다(김현미, 2005).

이주민 중심의 한국 사회 다문화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이들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동포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언론의 초점이 되어 온 결혼이주만이 아닌 노동이주, 동포 자격 등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거주 외국계 주민 인구의 56.4%를 동포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이 점하고 있다. 서울

시에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 중 중국동포는 일찍부터 특정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는 특성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특징이 직장 내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구성원으로서 선주민과 이주민 당사자들이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 연구가 애초 중국동포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설문이나 FGI 참석자는 대다수 중국동포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자의 대다수가 중국 동포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주자들은 단순히 문화·경제적 제한으로 분화된 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종·민족별 선호도에 의한 커뮤니티(ethnic communities)를 형성하는데(Massey, 1985; Logan and Zhang, 2002; 정수열, 2008),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밀집지의 개념은 민족 클러스터(ethnic cluster), 민족 커뮤니티(ethnic community), 소수 민족 밀집지(ethnic enclave) 등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석준, 2014).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게토(Ghetto)를 사용하기도 하며 인접 상권까지를 포괄하는 민족 근린(ethnic neighborhood)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⁵⁾

민(종)족 클러스터(ethnic cluster)를 ‘공간상에서 이민자 그룹의 지리적 집중’을 표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서 소수민족 밀집지(ethnic enclave)와 커뮤니티(ethnic community)의 두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Pamuk, 2004). 여기에서 전자가 일반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여건에 맞는 주거와 기타요인에 의해 정착하게 된 저소득지역을 말한다면 후자는 민(종)족적 인프라, 기관 또는 그들의 초국적 정체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지한 지역에 대해 사용된다.

인종, 종교, 언어, 국적과 문화적 특징으로 정의되는 소수자 그룹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공간적 구분(spatial segregation)을 설명할 때(Knox et. al., 2009)에는 거류지(colony), 밀집지(enclave), 게토(ghetto)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중 거류지는 규모가 작고 일시적이어서 초기 이주자들에게 거점을 제공하는데 반해 밀집지와 게토는 장기 지속성을 띠게 된다. 이때 밀집지(enclave)가 내부 결속이 주도적인 힘이 되어

5) 연구의 주제와 강조점에 따라서는 민족(ethnic) 대신 이민자(immigran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석준, 2014:10).

형성된 경우라면 계토는 차별과 같은 외부적 요소가 주요하게 작용한 경우이다. 서울시의 대표적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남권의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의 특정 지역에 외국인들이 집적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에 네트워크와 조직, 공동체가 형성되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면에서는 밀집지(enclave)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차원의 외국계 주민 정책에 대한 국외 사례 연구(오정은 외, 2010; 신지원 외, 2010) 중 이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비서구인 중심의 외국계 주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네덜란드의 틸부르크시의 외국인 정책은 시민들이 비서구인 이주민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외국계 주민 관련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일반시민과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오정은 외, 2010)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현황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세계의 집(Huis de Werelde) 운영이다. 이곳의 특징은 이민자와 선주민이 모두 즐겨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흔히 외국계 주민 시설이 허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설을 충분히 고급스럽게 들었다는 점이 중산층 이상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웃 중재자(neighborhood mediator) 프로그램이다.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갈등이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이웃 중재자와 연락하여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재자는 자원봉사자 신분이며 시에 중재자로 등록되어 있다. 2008년 틸부르크시 이웃 중재자 중 80%가 이민자 출신이었는데, 현지 생활을 오래한 이민자는 이민자와 선주민의 입장을 모두 잘 이해하기 때문에 중재자로 환영을 받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이민국가가 아님을 표방했던 독일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도 주

목할 만하다. 특히 베를린시의 노이쾰른은 독일에서 외국인 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를린의 외국인 및 이주배경 인구 비율이 25.7%인 데 반해 노이쾰른은 전체 인구의 39.3%를 점하고 있다.⁶⁾ 노이쾰른은 베를린 시의 통합정책을 수용하면서 이민자의 자립능력 향상에 특별한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에서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무료 직업교육과 독일어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민자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이민자 자조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초기 이민자 자조단체들은 친목도모를 위한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이민자가 자립능력을 갖추도록 직업 훈련을 담당하거나 사회관계,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민자의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조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국인끼리의 단체 활동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독일사회에서는 이민자 자조단체가 이민자의 사회참여와 노이쾰른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김인선, 2010). 노이쾰른구는 구내 자조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지원대상 자조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특정 민족만의 모임보다는 이종 문화 간 교류 단체에 더욱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주 공간에 대한 연구는 이주 현상을 보다 가시적이고 대안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정 공간에 밀착하여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하는 연구(조현미, 2006; 이용균, 2007)에서 지역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부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가 하면, 이주여성의 이동성 연구(정현주, 2007)를 통해 이들의 이동성 보장을 지역개발의 정책 방향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1) 밀집지역 형성과정과 외국계 주민의 생활실태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과정과 외국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중국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현장에 기초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박배균·정진화, 2004; 김현선, 2010; 서지수, 2012; 정수열·이정현, 2014; 박세

6) https://www.statistik-berlin-brandenburg.de/Publikationen/Stat_Berichte/2011/SB_A1-5_hj02-10_BE.pdf

훈·이영아, 2009; 박세훈·김은란, 2010; 정기선·강동관 외, 2012; 방성훈·김수현, 2012; 이소영, 2013; 이희영, 2013).

경기도의 대표적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안산시 원곡동은 세계화의 정책방안과 인종차별, 범죄, 빈곤의 사회적 배제 및 인권보호·사회정의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섭의 행위들이 혼재하는 지역공간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시각에서 분석(박배균·정건화, 2004)되었으며, 조선족의 최대 밀집거주지역인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대해서는 정착한 조선족의 생활 및 의식이 연구(김현선, 2010)되었다. 특히 영등포구 대림동을 분석한 연구에서 서지수(2012)는 외국인 밀집지역은 단순히 인종적 구분으로 배제된 공간이 아닌 문화전달기능을 담당하는 통로의 기능을 동반하고 있으며, 냉대와 차별 속에서 조선족들의 사회네트워크로 형성된 지역커뮤니티가 심리적인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림동에서 조선족은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외국인지원프로그램 제공 인프라를 갖추어 조선족에게는 다른 지역보다는 살기 편하지만, 한국원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사회로의 수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이주과정을 유형화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발달과정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이주네트워크는 연쇄이주를 유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세대의 이주를 가속화하고 있음이 목격되었다(정수열·이정현, 2014). 즉 외국인밀집지역은 내국인과의 접촉을 저해하여 사회적 통합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용이하게 하며, 특히 지역별로 달리 수립되는 각종 정책에서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이익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빈곤이 다음세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박배균·정건화, 2004). 외국계주민이 일시적·경제적인 목적으로 입국하였지만, 실제 한국사회에 영주하면서 지역주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국인 정책과 제도가 이들을 수용·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한 김현선(2010)은 이주민들을 일시적인 체류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평등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중심의 정책수립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중심의 정책수립을 강조한 연구들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도시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다문화사회의 진전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박세훈·이영아, 2009)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박세훈·김은란, 2010)를 통해 해외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였고, 외국인의 생활과 지역 내의 갈등의 발생, 해결방안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가능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은 지역 내 현실과 괴리감이 있음을 비판하며, 지역사회에 밀착된 사회통합정책,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도시정책으로는 열악한 주거·지역관리, 외국인 공공정책참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지역에 대한 연구(정기선·강동관 외, 2012)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현황, 정책분석을 통해 외국인들의 초기적응과정에 있어 애로사항과 지역적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주 한국주민의 시선으로 외국인 주민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갈등과 불만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구성원당사자가 직면한 지역 활성화·발전·통합모델의 개발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외국인 밀집 주거지 분화현상에 대한 분석(방성훈·김수현, 2012)에서는 가리봉동이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주로 혼자 단기 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양동은 한국생활에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착지로서 주류사회에 동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계 중국인들의 밀집주거지간에 성격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입이 계속되는 한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경향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거주자 유형별로 구분한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과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사례분석(이소영, 2013)을 통해서도 지역의 현황에 맞는 차별적인 외국인 주민 맞춤형 정책실행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세부전략으로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사회네트워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주민들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반감의 주요 요인인 환경의 개선과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였다. 최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계획은 오히려 지역에서의 주민을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점에서 밀집지역이 거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삶의 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주민의 지역단위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이희영, 2013)는 대구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단체, 시민네트워크와 더불어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민관사이의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는 행정업무활동에 치우쳐 있으며, 각 기관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3) 선주민과 이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서베이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한 질문문항과 교사·간호사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되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인식과 불만사항을 분석한 연구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유입 후 변화한 한국인의 인식과 생활, 근린생활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조망하고(이선화, 2008), 서울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중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가리봉동, 대림2동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근린에 미치는 영향과 선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지역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박신영·김준형·최막중, 2012)들이 눈에 띈다.

외국인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로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 이미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연구, 다문화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해 진행되어왔으며, 최근에서야 외국인 주민 실태와 삶의 만족도, 한국주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연구(장한나·윤기찬, 2010)와 영등포구 대림동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주초기와 현재의 지역사회에 어떠한 인식변화가 있는지 분석(김영로, 2011)한 성과물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라는 지배집단에 대한 이들의 대응기제와 동포집단 내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

적 제언을 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집세가 싸고, 교통이 좋고, 장사가 잘 되고 동일한 생활방식이 형성되어 정착하여 살기 좋은 곳이지만, 동시에 기존주민들의 차별, 멸시, 거리감을 느끼는 사회적·심리적 고립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세밀한 사회복지정책과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사업컨설팅을 심도 있는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하며, 이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후 확장되거나 새롭게 추가 발생하는 집단적 거주자들에게 우리사회가 대응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각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이들 지역에서 내·외국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는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양상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국적별, 교육수준별, 직종별, 소득별로 주거지가 변화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박세훈, 2010; 손승호, 2008; 강경조, 2002). 이러한 연구의 경향에 따라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박세훈, 2010)에서는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을 대도시의 저렴한 주택지로 보거나 하면 서초구 서래마을과 용산구 동부이촌동을 전문 인력 중심의 고급 주거지로 유형화 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발전단계에 대한 논의(박세훈, 2010)에서는 그 단계를 개인이주→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형성→공동체 및 경제 인프라 형성→영구 정착지 형성 및 소수민족의 정치화로 도식화하면서 한국의 밀집지역이 “상호부조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인프라 축적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서울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은 구로구 가리봉동(박세훈, 2009; 박세훈 2010; 박세훈·이영아, 2010), 영등포구(한승미 외, 2010), 영등포구 대림동(박세훈·이영아, 2010), 마포구 연남동(한승미 외, 2010; 송동필, 2011), 용산구 이태원동(박배균, 2009; 고민경, 2009; 한승미 외, 2010), 종로구 혜화동(손동필, 2011), 서초구 서래마을(박세훈, 2009; 한승미 외 2010; 박세훈, 2010)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이 중국계 동포 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서울시 차원의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는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연구(양한순, 2013)가 유일하다시피

한 만큼 공간과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밀집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선행연구의 제언 및 한계

외국인 밀집 주거지가 정체, 격리, 분화, 발전되는 과정에 주류사회와 마찰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거지 특성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며(방성훈·김수현, 2012), 이를 위하여 이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토론에 참여시키고 행동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이희영, 2013)는 점과 외국인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통합수준에서 참여·신뢰관계의 구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박세훈·이영아, 2009)는 점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식변화 대상을 구분해서 한정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고려하여 인식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책에 대하여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젠더와 만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논의에서 결혼과정의 문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적응의 강요, 아내이자 어머니로 규정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등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주 자체의 여성화, 성별화된 이주의 문제는 많은 이주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동시에 기존의 여성운동과 이주여성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이슈가 어떻게 젠더의 렌즈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은 정책에서 성별 변수가 고려되고,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검토에서 지역민의 삶과 인식에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내지 ‘이주민’이라는 통합 대상으로 정책을 실행하여 왔다면(박세훈·김은란, 2010), 이 연구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 및 공간에 대한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는 동시에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정책적 요구에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중앙정부의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 검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을 시행 중에 있다. 이 계획은 개방(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통합(대한민국 공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안전(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과 그 구성원에 대한 고려를 찾을 수 있는 정책 목표는 통합과 인권, 안전을 꼽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통합과 관련된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인권 분야 문화 다양성 제고, 외국인 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안전 분야의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 관리(외국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질서 확보, 외국인 집중 지역 대상 치안 활동 강화)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화된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안정행정부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조사하면서 외국인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정기선 외, 2013). 2008년부터 다국어 홍보 게시판과 공공시설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공원,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연도별로 3억(14개 자치단체), 1.8억(13개 자치단체), 1.8억(7개 자치단체)이 지원되던 집중거주지 생활개선 사업은 2011년 사업비가 31억 7천3백만원(11개 자치단체)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2012년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⁷⁾ 사업비 증가의 이

7) 2011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개선 사업 중 서울시는 영등포구 외국인밀집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1억4천만원), 용산구 이태원로변 상가 간판정비지원(3억5천만원)이 포함(http://www.cctvnews.co.kr/atl/view.asp?a_id=1177 2014.08.06 검색)되었고, 2012년도 사업비 32억(총 19건)에는 서울시의 서남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건립(2억5천), 금천구 외국인 집중거주지 조명개선 및 방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1억), 구로구 다문화 경로당 건립(2억5천), 영등포구 외국인 집거지 방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1억), 용산구 예술마을로 거듭나는 해방촌(1억) 사업이 포함되었다(2012.04.3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한편 2013년에는 금천구 다문화경로당 건립(2억), 서대문구의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다국어 안내판 설치-종합스토리텔링·방향표시안내판

유로는 대도시 저렴 주택지,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 밀집지역이 생활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이들 지역에서 범죄 발생 증가 등 슬럼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정기선외, 2013: 33-34).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내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1년 8월-9월 중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공간적 인프라, 지역 공동체 조직 및 행정 수요 등을 파악하고, 2012년 5월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 표 II-1 】 2012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외국인 집중거주지 기초 인프라 기반 시설 확충	외국인 집중화 지역에 CCTV 설치 생활환경 관련 안내판 설치 및 책자 보급 외국인 전용 쉼터 및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확대 (외국인 쉼터 조성,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립)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소방·안전 지원 서비스 자율방범대 운영
외국인 주거 단지 이색 명소화	외국 문화예술 공간 인프라 조성 차이나타운 조성 지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행정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기초질서 제도 강화 외국인주민 전용 민원창구 개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외국인주민 관련 민원행정 읍면동 주민센터 이관

2014년도 안전행정부의 사업에 서울시는 금천구의 조명개선 사업만이 지원을 받고 있어, 2011년이나 2012년에 비해 예산이나 사업의 다양성이 돋보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선 2011년이나 2012년의 사업에서도 주로 보안등 설치, CCTV 설치의 시설 정비 사업이 위주가 되어 밀집지역 내의 주민들이 상호 이해를

등 설치(7천) 사업에 안전행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었다.(<http://opengov.seoul.go.kr/sanction/699740?filedx=1#pdfview> 2014.12.19 검색)

높일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I-2 】 2014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단위 : 천원)

사도별	보조결정액	보조 사업명
계	700,000	
서울특별시	70,000	금천구 외국인주민 집거지 조명개선
부산광역시	140,000	사상구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인천광역시	200,000	중구 중국 고전벽화거리 조성
경 기 도	150,000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환경개선
	70,000	포천시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충 청 북 도	70,000	음성군 외국인 집거지 쉼터 조성

출처 : <http://opengov.seoul.go.kr/section/1337869>

3.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정책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외국계 주민의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나, 주민의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7개 시군만이 외국계 주민 거주비율 5% 이상이며, 안산시(10.5%)를 제외하고는 거주비율 10%를 넘는 자치단체가 없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15.2%), 금천(11.6%), 구로(10.6%)구는 외국계 주민 거주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외국계 주민의 밀집 현상은 특히 서울시 인구 특성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해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인권조례,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통

해 외국계 주민이 서울 거주자로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열어 두고 있었다.⁸⁾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은 여성가족 정책실의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을 추진 체계로 하고 있다. 그 중 외국계주민 밀집지역 관련 업무는 외국인정책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안별로 외국인 주민 인권팀 등이 연계될 수 있다. 2014년 지자체 첫 외국인 주민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인권가치 확산, 문화 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량강화의 4대 목표 하에 14대 과제 10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외국인 주민 인권팀을 신설해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계 주민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표 II-3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4대 목표	주요 내용	비고
인권 가치 확산	외국인주민인권팀 전국 최초 신설	2명 외국인공무원
	권역별 1개소씩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민간쉼터 재정지원
	서울통신원, 사법 통번역사 신규 양성	의사소통 지원
	공무원, 42개 시설 종사자 '다문화감수성교육'	
문화 다양성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15년 신설	정책의제 자체 발굴 및 상정
	'통합국제문화원' 건립	
	'글로벌 볼런티어(가칭)' 구성	재능기부봉사활동 참여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도입	
	'모범외국인주민' 선발 시장 표창	2015년 세계인의 날부터 시행
	'통합국제문화원' 18년 개소 목표로 건립	다문화도시 랜드마크 육성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행사 및 축제	

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2012.9.28.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 2012.9.28., 제정)는 제2조(정의)에서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보아 국적이거나, 체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계 주민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14.3.20 시행, 조례 제5664호, 2014.3.20. 제정) 제3조(적용대상)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 범으로써 외국계 주민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8.1 시행, 조례 제5516호, 2013.8.1. 일부 개정) 제2조(정의)에서 주민에 대한 특정한 정의 없이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외국계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에 지원받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2011.9.29 시행, 조례 제5163호, 2011.9.29, 전부개정)의 경우 외국계주민 중 일부라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로 외국계 주민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 근거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4대 목표	주요 내용	비고
성장의 공유	‘제2글로벌센터’ 영등포구에 1개소	
	글로벌센터 및 42개 시설 운영시간 주말까지 확대	
	온라인·모바일 한국어교육환경 구축	
	외환 송금 및 환전수수료 할인서비스	민간은행과 연계
	‘시민되기 아카데미’ ’15년부터 운영	법·질서 등 기초소양 교육
역량 강화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신설	올해 9월 중
	생계형 창업점포 찾아가는 ‘글로벌점포클리닉’	
	‘외국인 창업대전’ 열어 각종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운영	변호사 또는 노무사 구성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 지원센터’ 설치	지자체 최초
	‘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대학-기업 연계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민간재원 활용
	시립기술교육원 1곳 외국인주민자녀 취업 중점지원 중국동포 활동가 육성 : 한중 가교역할	

‘다(多)가치 마스터 플랜’은 2014년 5월에 발표된 중장기 계획으로 2014년 현재 사업 중 일부만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인권팀 신설(2014년 1월)⁹⁾,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소(2014년 10월), 외국인 주민 취업박람회(2014년 9월) 등 일부 계획이 시행되었다. 외국인 주민 인권팀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 외국인 커뮤니티문화행사 업무, 이주민인권보호 및 생활지원(쉼터운영 지원), 글로벌문화체험센터운영
- 외국인주민 인권업무 총괄,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관리,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관련,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역량강화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운영,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운영, 외국인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추진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외국인 강사 선발 및 관리, 교육신청 등 홈페이지 운영관리), 외국인유학생 업무 지원

9) 2013년까지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과의 조직과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글로벌정책팀 - 정책 총괄 △글로벌센터 운영팀 - 글로벌센터 1개소, 빌리지 7개소, 비즈니스센터 7개소, 글로벌문화관광센터(명동) 운영 △다문화가족지원팀-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각 구) △교류협력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개소

- 외국인주민 생활 살피미 운영, 외국인주민 참여행사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지원

외국인 인권팀의 설치로 인해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외에 새롭게 부각된 사업은 커뮤니티 문화행사, 유학생 관련 업무,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운영 등이다. 인권팀의 설치로 인해 관련 사업이 늘었다기 보다는 기존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던 사업에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정책 5개년 계획 중 특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과 그 주요 구성원인 중국동포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은 인권 가치 확산의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신설, 성장의 공유 중 제2글로벌센터 개소,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과 역량강화 부분의 중국동포 활동가 육성 사업을 들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운영 예정인 시민되기 아카데미 사업은 그간 서울시에 살고 있는 외국계 주민들에 대한 생활정보 안내 등이 공적인 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것이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일반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계 주민에 대해 실시하기 이전에 밀집지 내의 전달체계 등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그 효과성이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사업의 특징은 지역 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역량 강화 사업,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과 해당 지역 내의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동포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외의 사업은 모두 2014년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외국계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과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계 동포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I-4 】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사업 및 관련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4 예산 (2,731)	2013 예산 (70)	비고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70		중국동포활동가 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교육 세무-법률교육 학부모를 위한 교육 설명회 시정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0		구로, 관악, 금천, 영등포 등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	1,584		계속사업 (2012.3-2014.6)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667		신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200		이주 외국인 일시 쉼터 운영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이주민 인권보호 공모사업
중국동포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50	70	전년대비 사업비 증액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영등포, 금천 지역에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차별화된 글로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계 주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면에서 접근해 들어 갈 문제로 2014년 10월 개소 한 서남권 센터의 운영 실적이 쌓이고, 금천센터의 활동이 본격화된 후에 그에 따른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획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원 사업이 시설 중심으로 주민 간의 소통이나 이해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동포 관련 사업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거주자 대다수가 중국 동포라는 인구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참여자 다수가 밀집지역 거주민이라는 특성을 띠 수밖에 없다.

2)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 전달체계 현황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 정책 전달체계는 총 43개소로 그 현황은 아래 표 <II-5>와 같다. 글로벌센터는 국내 유일의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국에서와 같이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여유로운 문화생활까지 즐기게 해 줄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타갈로그어 등 다국어로 생활 상담, 비즈니스 상담, 통합행정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그리고 국제교류행사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거나 특징적인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원체제로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나머지는 외국계 주민이 어떠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달라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혼인귀화자 등과 그 가족이 주 이용층이라면 다문화가족교육센터는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그 주요 이용자가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문화관광센터는 각각의 근로자, 비즈니스맨, 관광객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표 II-5 】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전달 체계 현황

구분	전달체계	개소 수 (총45)	소재지
외국인 · 다문화 · 시설	글로벌센터	2	종로구, 영등포구
	글로벌 빌리지 센터	8	연남, 이촌, 서래, 이태원, 역삼, 성북, 영등포, 금천
	비즈니스센터	2	여의도, 강남
	문화관광센터	1	명동
	외국인근로자센터	7	은평, 양천, 금천, 서울(영등포), 강동, 성동, 성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다문화가족교육센터	1	강남

개소 수로 볼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가 가장 많다. 이는 서울시 거주 외국계 주민의 실제 구성과 별도로 전국적인 계획에 따라 지원체계가 설치된 결과

이다. 현실적으로 총 43개소의 지원체계 중 50%가 넘는 24개소가 서울시 외국계 주민 415,059명중 17.8%인 73,801명의 결혼이민자, 혼인 및 기타 사유 귀화자를 참여자로 하는 지원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결혼이민·혼인귀화자 등과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으로 다문화 논의를 이끌어 왔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가 다른 이주민 지원체계에 비해 보다 시급히 논의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다문화’에 방점을 찍고 갈 것인지 ‘가족’에 주안점을 두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도 접근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3년 말 이래로 지원체계만을 두고 보았을 때 다문화가족 논의는 ‘가족’에 편입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24개 지원체계에서 ‘다문화 가족’ 이외의 다양한 외국계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개설될 여지는 극히 적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외국인 다문화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수는 많지만 기본적인 운영비가 중앙정부와 5:5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19개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다양한 외국계 주민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될 부분이다.

4. 기존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이주민들은 자신의 젠더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상이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들 또한 한국 사회의 젠더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여성 이주민은 젠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과 결합되어 또 다른 위계적 서열에 편입된다. 인종적 특성에 따라 여성이 경험하는 한국생활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서운석, 2011). 그러나 현실에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이 여성 이주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부분에 편향된 정책 사업으로 인해 밀집지역별 위계화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현실이다.

1) 중앙정부의 정책

앞선 <표 II-1>에서는 안전행정부 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방향이 기초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 외국인 주거 단지 이색 명소화, 행정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세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기초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에 주요 추진 과제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국계 주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관련 안내판 설치 및 책자보급, 의료서비스 확대나 소방·안전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은 외국계 주민과 선주민이 공동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업임에도 2011년 이래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 사업으로 포함된 적이 없다.¹⁰⁾ 물론 전용쉼터 조성 및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 서남권 종합 지원센터, 구로구 다문화경로당 건립에 안전행정부 지원이 있었으나, 인프라 확충 사업 중에서도 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사업이 해마다 채택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의료 서비스 확대나 소방·안전 지원 서비스는 특히 지역의 외국계 여성 주민이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 포함될 여지가 크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 IV장의 설문조사에서는 외국계 주민들의 지역 건강보험 가입률이 특히 낮다는 점이 드러나 있으며, 특히 소방·안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995년 일본 대지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베지진 당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더 한층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NGO단체들이 “외국인 지진정보센터”를 조직하여 13개 언어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전화 상담활동을 하였다(성기환 외, 2008)는 점에서 외국계 주민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보장에 보다 충실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지역에서 외국계 주민들이 실제 처하게 될 위험 상황이나 어려움이 간과된 채 물리적 인프라 확충 사업은 상품화 내지 주변화 방지의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적 타자성, 다양성이 관광분야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에스니시티(ethnicity)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에스니시티가 관광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화적 차이를 차별화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공윤경, 2013). 안전행정부 지원

10) 안전행정부의 사업으로 시행된 적은 없으나 자율방범대의 경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 시행되었던 적이 있다.

서울시 자치구 사업 중 지역상품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용산구가 유일하게 2012년 예술마을로 거듭나는 해방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하였다. ‘리틀 이태원’으로 불리는 해방촌 길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보통 10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캐나다, 미국, 호주는 물론 러시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등 국적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이태원의 비싼 집값과 물가를 피해 다양한 국적과 직업의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방촌 길로 모여들고 있으며 이태원에서 시작된 이국적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영역을 넓혀가면서 작은 골목들도 자연스럽게 이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¹¹⁾

서울시의 서남권에서 시행된 안전행정부 지원사업과 용산구에서 시행된 사업의 차이는 전자의 사업이 주변화방지 차원이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보다 상품화 전략에 가깝다는 점이다. 문화적 차이를 차별화하여 상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진정성(authenticity)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관광장소에서 표출되는 에스니시티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공윤경, 2013). 문제는 에스니시티 간의 차별화 전략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에스니시티가 상품화되고, 상품화되지 못하는가에 따라 에스니시티의 위계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차이를 차별로 귀결시키는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공간을 바라보는 차별적, 이중적 시선의 문제가 정책을 통해 보다 공고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을 명소화 하는 정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주력한 나머지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공간 정책이 범죄예방을 염두에 둔 공간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¹²⁾ 기존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정책에서도 CCTV가 감시하고, 밝은 조명이 비추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다.

11) <http://love.seoul.go.kr/SEOULSARANG.asp?cs=763>

12) 정부는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이거나 주민등록인구의 5% 이상인 거주 지역에 대해 다양한 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뿐 아니라 보안등·방범용 CCTV설치, 경찰-외국인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박경철, 2012)

특별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공간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칫 누가 잠정적인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간주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경찰청 내외국인 범죄 검거인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를 분석한 결과(최영신 외,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국인 범죄 발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 심각한 범죄 발생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¹³⁾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중심의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 차원에서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주안점을 둔다고 해도 거주민 간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가치 지향성을 담아낼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화 방식을 넘어 적극적 조치로서의 정책들이 오히려 해당 지역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인식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즉 기존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 의료 서비스 확대나, 소방·안전 지원 서비스가 지역 차원에서 강화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남권역이 거듭날 여지들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서남권 지역이 식당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종사자 다수가 외국계 여성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의료 및 소방·안전 지원 정책은 여성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서남권을 구성하는 외국계 여성주민이 모두 식당업 종사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¹⁴⁾ 따라서 외국계 주민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한정짓기보다는 그들이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펼쳐지는 정책이 지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남성중심 사회에서

13) 해당 연구에는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지만, 외국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률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2007년 이후 전체 범죄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외국계 주민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에 따른 문제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14) 중국동포 단체 활동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포 여성들이 식당 일이나 서비스업만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숨어있는 여성 인재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선배로서 열심히 지원하고 싶어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0/0512000000AKR20140310092200372.HTML>)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획득의 전략으로 제시되었던 공적 영역 참여를 통한 시민권 획득, 여성들이 수행하는 재생산활동의 공식적 인정에 대한 요구(신인령 외, 2002)로 나타났음에 비추어 볼 때에는 외국계 주민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발언할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 서울시의 정책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대개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의 4대 목표 중 성장의 공유와 역량 강화의 범주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서남권의 글로벌센터 설치 및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은 네덜란드 틸부르크시의 세계의 집의 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 안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인가에 따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다.¹⁵⁾

서울시는 “서울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면 서남권 지역의 외국인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하나 되어 공공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지원받고 여유로운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어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기존의 영등포외국인근로자센터를 리모델링해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공간적·기능적 결합이 이루어진 시설이라는 면에서 이용자 층에 비해 장소의 협소함이 이미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민과 외국계 주민의 소통 공간을 마련한 것은 지역단위 통합 논의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주민센터 등 선주민 중심의 주민공간이 통합의 장으로 이용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서

15) 2014년 10월 문을 연 글로벌센터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http://infra.seoul.go.kr/archives/16996>) : ○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남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가 위치한 영등포구는 물론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남권 지역의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국동포 등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게 된다. ○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종합지원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다문화·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실, 컴퓨터 강의실 및 상담 공간 등 종합 지원시설 공간으로 조성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카페, 커뮤니티 활동 공간도 제공된다. ○ 연면적 934.7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층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꾸며지며, 2층은 사무공간, 3층은 컴퓨터 시청각 강의실, 법률·노무관련 종합상담 공간이 들어서고 4층은 한국어 강의실, 지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다목적실로 꾸며진다. ○ 외국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한 빌딩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던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와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합해 외국인 종합 지원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남권 글로벌센터 등이 외국계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 통합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별 인구 특성을 반영해 지역민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내 7개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의 서울 생활 정착을 돕고, 우리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빌리지센터의 배치가 외국인 밀집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 존재한다. 실제 2008년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설립된 서초구의 경우 2008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은 1.6%, 2014년에도 2.4%에 불과해 서울 평균을 밑돌고 있다.¹⁶⁾ 이는 2008년 이후 서울시의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외국인을 주로 투자자나 관광객으로 설정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외국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서비스 전달에서도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민정 외, 2014)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에 2014년 5월 발표된 외국인 주민 정책을 통해 글로벌센터나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사회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장의 공유라는 정책 목표 하에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설립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서울시 정책의 방향 전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 현재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10.6%를 차지하고 있는 구로구도 유사한 형태의 전달체계 설립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글로벌센터나 글로벌빌리지센터는 보다 다양한 층위의 주민을 포함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이 아닌 공간을 중심으로 구상되었고,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곳인 만큼 외국계 주민을 중심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정책 실행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서남권 거주 외국계 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 외국계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의 비율

16) 안전행정부 외국인 주민 통계 각년도 참조

이 남성 못지않으며, 특히 영등포구와 관악구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전달 체계에 대해 주민들이 어떠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더불어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대표자회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이 또한 전국적인 외국계 주민 현황과 달리 대부분의 체류 자격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울시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회의체로 구성될 때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내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사업도 공간과 지역이 중심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참여자 다수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사업, 동포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관련 사업이 부재하다는 면에서 동포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 내 자조 집단이 활성화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인선, 2010)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다양한 방식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통합이 정책적으로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나아가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검토될 사안이다.

지역민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때, 정책이나 사업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점이 고려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14년 서울시의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II-6 】 2014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총 60백만원)

연번	자치구	제안자	사업명	지원액 (백만원)
1	구로구	○○○○여성연합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소통하는 만남의 광장	12
2	관악구	○○○ 외	다같이 행복해지는 마을	5
3	관악구	(사)○○공동○○○○	변화와 도전 ‘관악무지개네트워크 ver 2.0’	10
4	금천구	○○○외	모두가 함께하는 다사랑 마을(다사랑)	15
5	서울	(사)○○○시민연대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사업 전문 컨설팅	3
※	영등포구	○○○ 외	주민사랑방 커다란 숲 운영사업	15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의 공통점은 언론에서 문제시 되고, 부정적인 면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 당사자가 밀집 지역 안에서 선주민과 외국계 주민이 상호 이해도를 높일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적인 활동가나 NGO뿐 아니라 주민 모임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 또한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관악구의 사업은 외국계 여성이 정책의 시혜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기여 주체로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국계 여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회계 등의 역할을 선주민 여성이 맡음으로써 사업 내에서 참여자들의 역량을 상호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편 구로구의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민간단체가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구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와서 서로 차이가 나는 체류 자격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거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다는 면에서 외국계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이 이방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전체적인 참여자 중 한국인도 있다는 면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외국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에서 이주민 스스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참여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타자로 살아온 이주여성이 지역의 문제에서 주체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사업은 외국계 주민 여성과 선주 한국인 여성 참여자를 주부로 한정하고,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로 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발성과 지역 사회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모색되었던 관악구, 구로구 사업과 대비된다.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이 외국계 주민과 선주 한국주민의 자발성에 기대어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에 의해 역할이 나뉘고, 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자체에 차이를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의도가 사업 참여 ‘남성’과 ‘여성’ 간에도 살아나야 한다는 점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떻게 주체적 역량을 이해하고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향후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어떻게 확장되거나 변화되어 지속성을 확보해 갈 것인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시범사업처럼 일시적 예산 지원만 하고 이후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관심보다 큰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3) 여성단체 활동의 함의 : 대림 3동 S도서관 사례

서울의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한 여성단체는 서남권 지역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 공간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애초 문화 시설의 호응도가 높은 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 기반이 보다 취약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동일시의 차원이 낮은 지역을 선정하여 떠나고 싶은 동네를 돌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기획 하에 영등포구 대림 3동 지역에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작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선주 한국인의 문화 인프라가 약하다는 면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여성 주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과정에서 애초 이주민을 배제하지도 않았지만, 이주민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골목단위 조사, 마을 단위 행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도서관 건립 사업이 인지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이주민이나 선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의 증언이다.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고, 오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다문화 관련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데...갈 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기 원주민 엄마들하고부터 얘기가 되어야 해요. 중국동포 단체가 많은데 단체장님들 만나면서 동포 엄마 분들 보면 갈 데가 없다 특히 애들 데리고는... 원주민 엄마들도 갈 데가 없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분들은 요구가 많아서 도서관 회원가입을 길에서 하시기도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시고 중국에 잠깐 다녀오는 기간에는 인사하고 가시고... 여기 오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있죠. (대림동 S도서관 관계자)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안전 모니터링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서로의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로 도서관이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애초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이주민 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곳이 아님에도 새로운 공간을 중심으로 만나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특정 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름 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지역 여성이 있다. 처음의 기획이 이주민·선주민을 모두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다문화’ 혹은 ‘문화다양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히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서 해당 도서관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만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했던 것은 기존의 시설 이용에 제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나는 공간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의도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내부에서 요구가 일지 않는 한 현

상태로 지속적인 접촉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가져 올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현황

1.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인구의 규모 및 특징
2. 밀집지역 형성의 역사와 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현황

1. 서남권 4개구 인구의 규모 및 특징

2014년 7월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492,790명(31.4%), 서울특별시 415,059명(26.4%), 경상남도 97,148명(6.2%) 순으로,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1%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대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은 서울이 4.1%로 최대비율이며 경기(4.0%), 충남(3.7%)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5,13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서울 영등포구(58,927명), 경기도 수원시(47,237명), 서울 구로구(45,23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영등포구(15.2%), 금천(11.6%), 구로(10.6%) 순으로 전국적으로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의 서남권 3개구로 나타나고 있다.¹⁷⁾ 또한 서남권의 관악구는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5.7%로 구로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나 외국계 주민의 규모는 29,311명으로 금천구의 28,018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거대 외국계 주민 거주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서남권 4개구(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의 인구 구성과

17) 외국계 주민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의 전체 주민 대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은 10.5%로 집계되고 있다.

밀집지역 형성의 과정, 지역 내 주민 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선주 한국인 인구 추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의 인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인구 추이와 외국계 주민의 인구 추이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014년 현재 서울시 총 인구 10,143,645명 중 15.5%인 1,570,483명이 살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의 한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성별 한국인 인구 추이(2010-2014)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여성	5,149,033	5,201,286	5,175,780	5,153,982	5,135,776
남성	5,059,269	5,111,259	5,073,899	5,041,336	5,007,869
구로구	421,967	423,736	427,468	427,520	424,964
여성	209,014	209,704	211,994	212,538	211,713
남성	212,953	214,032	215,474	214,982	213,251
금천구	244,835	245,195	243,438	243,288	241,020
여성	119,999	119,667	118,773	118,613	117,558
남성	124,836	125,528	124,665	124,675	123,462
영등포구	405,789	406,833	397,443	391,408	386,471
여성	201,449	201,727	197,456	194,643	192,591
남성	204,349	205,106	199,987	196,765	193,880
관악구	529,869	531,434	526,397	523,029	518,028
여성	260,846	261,651	259,252	257,748	262,248
남성	269,023	269,783	267,145	265,281	255,780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의 전체적인 인구가 2011년 이래 성별을 막론하고 감소세에 있다는 점은 위 표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다. 2013년 서울시 자치구 성 인지 통계에서는 서울에서 남성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금천, 관악, 영등포, 구로구를 꼽고 있어 서울이 전체적으로 남성인구에 비해 여성 인구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경향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¹⁸⁾ 또한 인구의 자연 증가에서 2010년에서 2011년 간 구로구는 7.2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등포구 6.2명, 관악구는 종로, 은평, 강서구와 더불어 2010년 대비 자연증가율이 상승한 자치구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남권 4개구 역시 서울의 전반적인 추세와 같이 인구가 감소세에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와 관악구의 감소율은 서울의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2】 서울시 서남권 성별 인구 증감 추이(2011-2014)

(단위 : 명, %)

구분	2011~2012		2012~2013		2013~2014	
	인구증감	증가율	인구증감	증가율	인구증감	증가율
전체	-62,866	-0.6	-54,361	-0.5	-51,673	-0.5
여성	-25,506	-0.5	-21,798	-0.4	-18,206	-0.4
남성	-37,360	-0.7	-32,563	-0.6	-33,467	-0.7
구로구	3,732	0.9	52	0.0	-2,556	-0.6
여성	2,290	1.1	544	0.3	-825	-0.4
남성	1,442	0.7	-492	-0.2	-1,731	-0.8
금천구	-1,757	-0.7	-150	-0.1	-2,268	-0.9
여성	-894	-0.8	-160	-0.1	-1,055	-0.9
남성	-863	-0.7	10	0.0	-1,213	0.0
영등포구	-9,390	-2.4	-6,035	-1.5	-4,937	-1.3
여성	-4,271	-2.2	-2,813	-1.4	-2,052	-1.1
남성	-5,119	-2.6	-3,222	-1.6	-2,885	-1.5
관악구	-5,037	-1.0	-3,368	-0.6	-5,001	-1.0
여성	-2,399	-0.9	-1,504	-0.6	+4,500	1.7
남성	-2,638	-1.0	-1,864	-0.7	-9,501	-3.7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동계, 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

18) 서울의 여성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인구의 성비는 97.8%로 경기도(101.5%, 2012)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2) 외국계 주민 인구 추이

외국계 주민의 인구 추이는 한국계 주민의 그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서 2013년 간에 잠시 감소세를 보였을 뿐 외국계 주민의 인구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시기 외국계 주민 인구가 감소한 데 대해서는 대체로 2007년 3월에 시행된 방문취업제 기간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2013년에서 2014년간의 증가치가 곧바로 2012~2013년 간의 감소치를 웃돌며 2014년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서남권 4개구의 한국 선주민 인구가 서울시 전체 한국 선주민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은 서울시 전체에 살고 있는 외국계 주민의 38.9%를 점하고 있어 서남권의 4개구가 외국계 주민의 밀집거주 지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 표 III-3 】 서울시 서남권의 성별 외국계 주민 인구 추이(2010-2014)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36,221	366,279	406,293	395,640	415,059
여성	153,946	198,818	219,584	216,379	225,952
남성	182,275	167,461	186,709	179,261	189,107
구로구	33,700	37,359	43,239	41,622	45,232
여성	16,558	18,811	21,822	21,370	23,016
남성	17,142	18,548	21,417	20,252	22,216
금천구	22,392	24,740	27,940	26,287	28,018
여성	11,055	12,426	14,185	13,519	14,213
남성	11,337	12,314	13,755	12,768	13,805
영등포구	44,281	50,531	57,180	53,666	58,927
여성	21,497	25,730	29,039	27,859	30,359
남성	22,784	24,801	28,141	25,807	28,568
관악구	22,635	24,848	28,493	27,673	29,311
여성	10,212	13,626	15,620	15,369	16,269
남성	12,423	11,222	12,873	12,304	13,042

각 년도 별 외국인주민통계, 안전행정부

외국계 주민의 구성을 확인해 보면 소위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불리는 서남권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통계에 나타난 서남권 4개구의 거주 외국계 주민 중 중국동포의 비율은 영등포구 82.79%, 구로구 80.56%, 금천구 78.22% 순이며,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난 관악구조차도 69.17%로 중국 동포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외국계 주민 중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54.09%, 전국적으로는 35.95%라는 수치와 비교할 때에도 상당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4】 2014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대비 중국동포¹⁹⁾의 규모 및 비율

(단위 : 명, %)

구분	외국계 주민 총 수			중국동포의 규모 및 비율		
	계	여	남	계	여	남
전국	1,569,470	759,339	810,131	564,199	289,589	274,610
				35.95	38.14	33.90
서울	415,059	225,952	189,107	224,511	121,166	103,345
				54.09	53.62	54.65
구로	45,232	23,016	22,216	36,441	18,065	18,376
				80.56	78.49	82.72
금천	28,018	14,213	13,805	21,916	10,774	11,142
				78.22	75.80	80.71
영등포	58,927	30,359	28,568	48,788	24,944	23,844
				82.79	82.16	83.46
관악	29,311	16,269	13,042	20,273	11,231	9,042
				69.17	69.03	69.33

2014 외국인주민통계, 안전행정부

결국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서 서울 서남권은 보다 엄밀히 말해 중국계 동포 밀집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 실제 구성원 중 중국계 동포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 대한 중국계 동포 밀집지역으로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19) 2014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에서 국적 취득 한국계 중국인과 국적 미취득 한국계 중국인의 합

2. 밀집지역 형성의 역사와 현황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한국 입국을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국 정부와 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왔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 규모를 철저히 통제해왔다(설동훈 2002: 203). 중국동포에 대해서 정부는 1992년 이전까지는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 사증 발급 등 관련 특혜를 부여하였으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이주하는 중국동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로 잔류하는 경향이 늘어나자 재중동포들에게도 강력한 입국 규제를 적용하였다. 재중동포들의 존재는 ‘동포’에서 ‘외국인’으로 ‘친척 방문자’에서 ‘불법 체류자’로 변화되었던 것이다(설동훈 1999).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동포들의 규모는 8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²⁰⁾

외국계 주민으로서 중국 동포가 갖는 의미는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 내 특정 공간에 집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온 중국인들의 특성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서도 나타나 특정 공간에 모여 살며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90년 대 이후 형성된 서울시 서남권의 중국 동포 밀집지역의 특징은 대개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라는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용직·건설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거주민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밀집 지역(ethnic place, ethnic enclave)’의 형성은 이들의 존재를 공간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며 동시에 해당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회를 확대(박세훈 외, 2010)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보이기도 한다.

20)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반까지 중국동포의 입국실태를 보면 ▲86년 6백77명 ▲87년 7백73명 ▲88년 1천9백96명 ▲89년 6천8백24명 ▲90년 1~10월 1만4천3백8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자도 1989년 1백46명에서 1990년 9개월 동안 3백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990.11.08 서울신문 19면).

1)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형성의 과정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동포에 대해 언급된 신문 기사의 경향을 보면 1990년 기사는 주제별로 한약재 판매 및 밀반입, 아편 밀반입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로 기대와 달리 한약재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공장 등에 취직하고,²¹⁾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거나 생활비나 돌아갈 여비가 없어 막노동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시 중국동포들은 덕수궁 앞, 시청 앞, 탑골 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약 판매 거리를 확장해 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서울 용산역 부근이 중국방문자들의 집거 숙소로 보도되고 있어, 당시 90일 체류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주 활동지를 짐작케 한다.²²⁾

1991년 중국교포들의 한약재 행상이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서울역 앞 지하도 등을 중심으로 다시 번성하고 있다는 보도²³⁾가 눈에 띈다. 1991년 말에는 서울역 지하도가 중국 동포 「인력시장」으로 변모하였다는 점과 함께 이들 교포 대부분은 서울역 근처와 약수동 일대 여인숙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인들의 대부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구로구 독산동 「구로공단」 주변, 안양 등지의 소규모 영세업체에 종사하고 있다²⁴⁾는 보도가 있으나, 해당 지역에 중국 동포들이 거주한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같은 시기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급등한다는 점과 언어소통이 원활한 중국 동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 식당 일, 가사도우미 등에 중국동포²⁵⁾가 선호된다는 보도와 함께 실종신고로 수사 중이던 중국동포가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중이었다는 등²⁶⁾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관심을 보인 서남권의 대표적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은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을 들 수 있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중국동포들이 서남권을

21) 1990.11.19. 서울신문 03면, 1990.12.15. 경향신문 15면 등

22) 1990.12.24. 경향신문 03면

23) 1991.03.31 동아일보 01면

24) 1991.12.01. 경향신문 15면

25) 1991.12.20. 국민일보 07면

26) 1992.01.02. 한겨레 15면, 1992.01.11. 경향신문 18면, 1992.01.11. 한국일보 18면 등

중심으로 밀집해서 거주해 왔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기존의 통계 데이터 등을 통해서 분석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한중 수교 이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조선족’이 처음 자리를 잡은 터전이 가리봉동이고, 한국 속의 ‘조선족 타운’은 가리봉동이 시초라는 점에서는 대개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⁷⁾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일대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 동포 거주 지역으로 소개하면서 2002년 한 드라마의 인기로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로 구로구 가리봉동이 널리 알려진 데 반해 실제 동포들 사이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중국 동포타운이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대림역과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한 중국 동포 밀집지역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과 공단지역의 노동자들이 거주 하던 단칸짜리 월세 방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집거하기가 편리했던 점이 중국 동포 집적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거주지였던 구로구 가리봉동의 쪽방 형태의 소위 ‘별집촌’은 한국계 중국인들로 채워졌고(박세훈, 2010:80), 이것이 한국 내 구직이나 셋집 마련을 주로 고향사람들의 소개에 의존하는 중국 동포들의 경향과 맞물려 특정 지역에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중국 동포 밀집지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가리봉동 거주 동포들의 규모가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첫째, 처음에 임대료가 싼 가리봉동에 왔다가 돈을 벌면 인근 대림동이나 건대 인근 화양리로 이주한다²⁹⁾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즉 가리봉동은 중국 동포들이 ‘싼 맛’에 와서 돈을 벌면 뜨는 일종의 정거장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2003년 서울시가 가리봉동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재개발 예정이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나후는 가속화된 반면, 2014년 6월말 주민 32%가 직접 서울시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곧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27) 1999.07.07. 국민일보 23면, 2001.10.11. 세계일보 31면, 2001.10.18. 한겨레 16면, 2002.10.18. 국민일보 27면 등

28)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1> (재외동포신문, 2014.08.04 검색)

29) 2013.01.29 한국경제

및 의욕저하로 인해 30년이 넘게 방치된 노후주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리봉 종합시장 골목 주변의 다가구 주택 밀집지는 저렴한 월세 방들이 중국 동포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중국 동포들의 밀집 거주는 기존 상권의 영역 및 형태, 업종 등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 문화와의 차이에서 오는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은 가리봉동과 대림동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림동 조선족 동포타운의 모습도 가리봉동과 유사한데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주유소에 이르는 거리를 중심으로 시장 주변에 중국 동포거리를 형성, 대부분의 중국동포 대상 음식점이나 식품가게, 노래방들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3년 이상 체류 기간을 넘겨 거주하던 중국동포들에 대해 2003년 3월말로 출국 시한을 정하고 이루어진 단속이 밀집 거주지역인 가리봉동, 가산동, 독산동, 대림동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봉천동, 신림동 등으로 인구가 분산되면서 4~5명이 함께 쓸 수 있는 저렴한 월셋방이 있고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이 중국동포들의 새로운 거주지로 부상되었다³⁰⁾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새롭게 중국동포들의 거주지로 부상했던 관악구 봉천동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 3번 출구에서 나와 왼쪽 길로 조금만 들어서면 4거리 우측으로 2000년대 초반에 생긴 중국식품점을 시작으로 좌우로 중국식당과 여행사들이 눈에 띈다. 4거리에서 좌측으로는 봉천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업거리가 형성된 가운데 중국식품점도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일부 지역의 재개발로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던 쪽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밀집지역으로서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2010년 5월부터 새 아파트 단지에 외지의 한국인들 입주가 늘어나면서 봉천동 중국동포 타운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동포 식당의 손님에서 선주 한국인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대림동, 가리봉동과 봉천동의 차이로 중국동포들이 흩어져서 생활하고자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으로 하여 동포들이 거주하지만 한곳에 집중되어 모여 살지 않는다는

30) 2003.01.20. 한국일보 26면

것이다. 따라서 중국동포들도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적응되어 한국인들 거주 지역에 방을 얻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³¹⁾

주로 건설 노무직이나 가사 도우미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들은 강남·서초 등 일터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대림, 신대방, 신림, 낙성대, 건대입구 등 지하철 2호선 주변을 따라 흩어지고 있다³²⁾는 기사는 2010년대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저렴한 집세와 편리한 교통 여건이라는 요인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서울시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은 정부의 체류기간 초과 거주자 단속과 경제적 안정을 이룬 중국 동포들의 주변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이유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거주지로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중국동포들의 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외국인주민거주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 대림 2동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대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83.7%, 구로구 가리봉동이 78.7%로 외국계 주민의 거주 비율이 한국 선주민을 압도하고 있는 곳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 동포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은 대개 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과 함께 식당업이 발달한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밀집지역 내 한국인들의 불만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식당으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밀집지역 거주 한국인 FGI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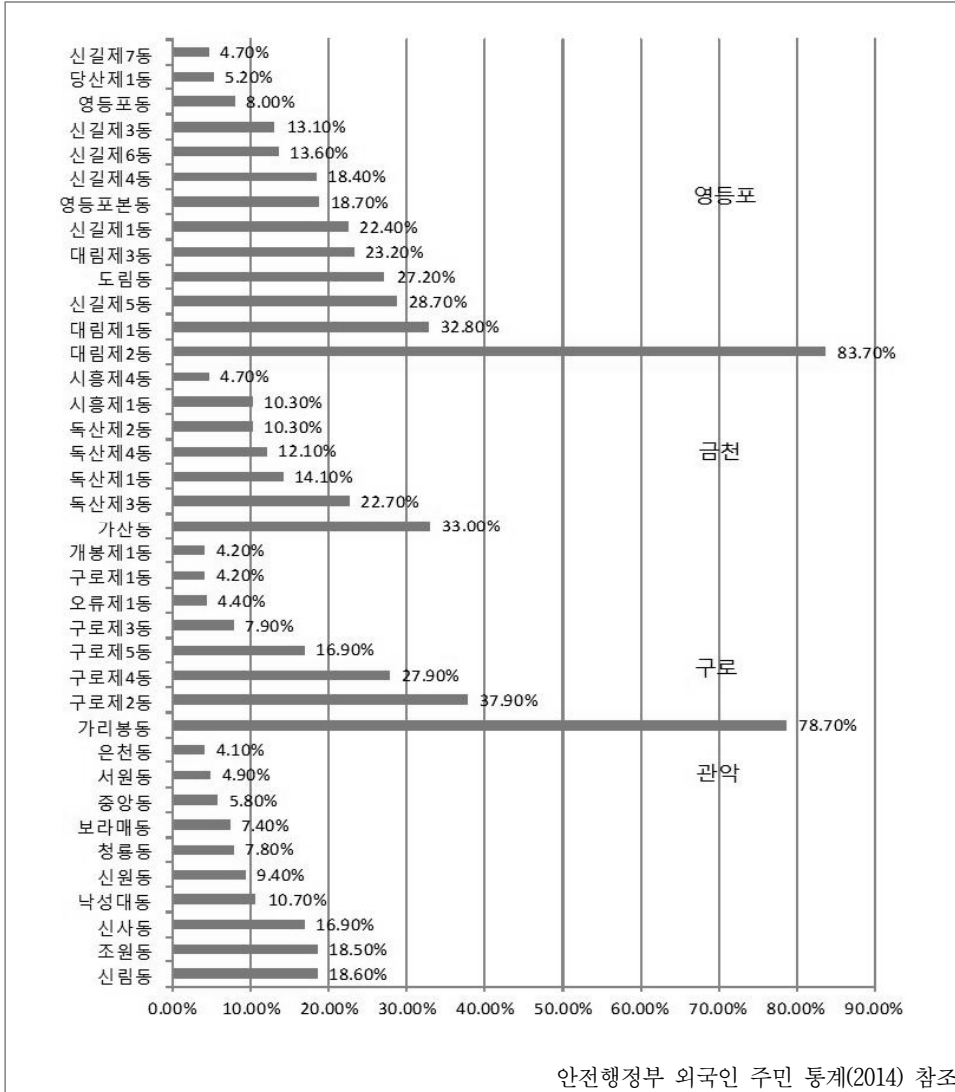
2) 지역 내 주민 분포 현황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라고 해도 4개구 내 동별 현황에서는 외국계 주민의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특정 동에는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밀집지역이라 불릴 만큼 높지만 다른 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밀집된 특정 동들은 인구의 대부분을 외국계 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서남권 4개구에서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 4.1% 이상인 동은 다음과 같다.

31) 2010.09.24일자 중국동포타운신문은 보도를 실으며 봉천동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동포만의 생활권역이 점차 무너져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32) 2010.11.15. 시사중국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79&no=335>)

Ⅲ-1 서울 서남권 4개구 중 외국계 주민밀집 동별 외국인 주민 비율(2014)



총 64개 동 중 38개 동의 외국계 주민 거주 비율이 서울의 평균치인 4.1% 이상이고, 24개 동이 10% 이상의 외국계 주민 거주율을 보이는 데 반해, 4.1% 미만인 동은 26개 동이다. 이들 밀집지역의 배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외국계 주민의 거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등포구 대림2동은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의 구로4동, 가리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등포구 대림2동과 금천구의 독산3동은 다시 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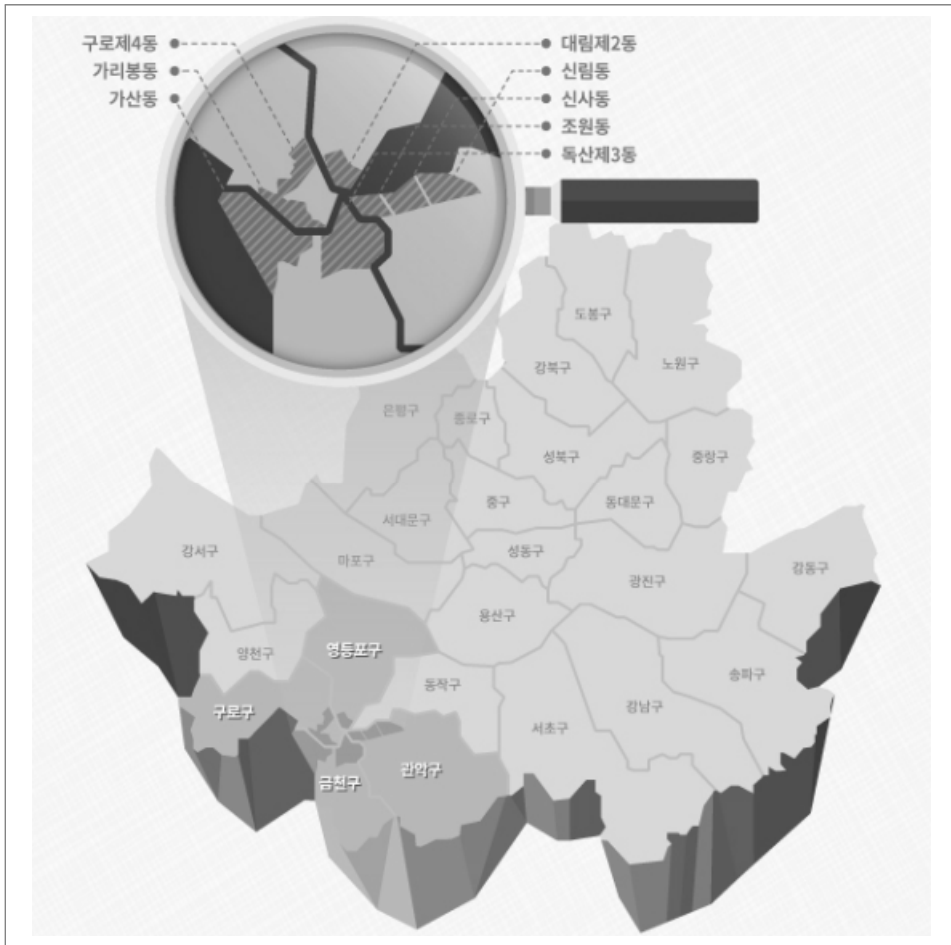
구의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구를 달리 하더라도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 서로 인접해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III-5 】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 밀집동 현황

동명	외국계 주민 비율	자치구	순위
대림제2동	83.7%	영등포	1
가리봉동	78.7%	구로	2
구로제2동	37.9%	구로	3
가산동	33.0%	금천	4
대림제1동	32.8%	영등포	5
신길제5동	28.7%	영등포	6
구로제4동	27.9%	구로	7
도림동	27.2%	영등포	8
대림제3동	23.2%	영등포	9
독산제3동	22.7%	금천	10
신길제1동	22.4%	영등포	11
영등포본동	18.7%	영등포	12
신림동	18.6%	관악	13
조원동	18.5%	관악	14
신길제4동	18.4%	영등포	15
구로제5동	16.9%	구로	16
신사동	16.9%	관악	17
독산제1동	14.1%	금천	18
신길제6동	13.6%	영등포	19
신길제3동	13.1%	영등포	20
독산제4동	12.1%	금천	21
낙성대동	10.7%	관악	22
독산제2동	10.3%	금천	23
시흥제1동	10.3%	금천	24

이와 같은 밀집지역 자체의 인접 현상은 서남권 4개구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정책이 어느 1개 자치구가 아닌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자치구 간의 협력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II-2】서울시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 밀집 지역 벨트화 현황



3) 지원체계 분포 현황 및 지역민의 접근성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에게 특화된 지원체계 중 특별히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로는 서남권 글로벌 센터가 있다. 서남권 외국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를 특정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의 글로벌센터는 이들 중국계 동포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서 서남권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구에 기준

7개소의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영등포의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는 생활상담, 한국어교육과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영등포와 금천의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는 근로자 무료의료검진, 노무상담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체계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외국계 주민 밀집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입지 특성에도 드러나 있다.

현재 4개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는 이어지는 서남권 4개구 중 특히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동과도 차이가 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참여자가 되는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거주 규모 또한 센터의 입지와도 일부 거리를 두고 있다.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수를 볼 때 구로구는 구로2동(1,181명)이 압도적으로 많고 구로4동(665명), 가리봉동(549명)이 그 뒤를 잇고 있고, 금천구의 경우 독산3동(531명)에 이어 시흥1동(440명), 독산1동(333명) 순이다. 영등포구는 외국계 주민의 거주 규모와 맥을 함께 하며 대림2동(908명)에 이어 대림3동(581명), 신길5동(436명) 순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관악구는 신림동(460명), 신사동(421명), 조원동(289명)순으로 결혼이민·혼인 귀화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각 자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각 구로동, 시흥1동, 신길1동, 청룡동에 위치해 일부 센터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거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역 내 외국계 주민인 결혼이주자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외국계 주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면에서 역할에 대한 고민을 큰 틀에서 함께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지원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실에서 외국계 주민 지원체계로서의 역할 확대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서남권글로벌센터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는 애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내의 지원체계로 기획한 만큼 서울시 외국계 주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영등포구 중에서도 보다 밀집된 외국계 주민 거주율을 보이는 대림동과 금천구에서 대림동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가산동에 들어서고 있다. 밀집지역의 인구 분포 특성이 반영된 지원체계의 입지 특성이 외국계 주민의 지원체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리

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주민 특화 사업뿐 아니라 한국 선주민과의 통합 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된다고 볼 때 지원체계가 통합을 지향하는 방안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통합과는 거리가 먼 외국계 주민 특화 지원체계로서의 기능만을 한정적으로 하게 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 표 III-6 】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관련 지원체계 현황

기관명		소재지	시설 및 특화 프로그램	사업
글로벌 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대림동 (도신로 40)	종합상담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주민편의시설(북 카페, 보건진료실)	생활상담, 한국어교육, 커뮤니티 지원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구 가산동	상담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 놀이터, 북 카페 등	
외국인근로자센터		금천구 가산동	교육, 복지, 문화지원, 다문화사업	근로자 무료의료검진, 노무상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등포 신길1동	‘오색빛깔 다문화 기자단’	결혼이민자 취업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	통·번역능력인증시험 대비반	
		금천구 시흥1동 (금하로)	금빛 스피치 스쿨	
		관악구 청룡동 (쑥고개로)	한국어 실력다지기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

위 표에 제시된 지원체계 현황은 2014년에 새롭게 재편이 완성되었다. 즉 기존의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해 서남권 글로벌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원체계의 확충인 것이다. 두 센터는 모두 시에서 예산과 운영을 지원하고, 구에서 직원 파견과 센터 운영을 맡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남권 센터는 9월 개관 예정으로 연면적 934.74㎡에 1층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북카페·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꾸며지고 2층은 사무공간, 3층은 컴퓨터 시청각 강의실과 법률·노무관련 종합상담 공간이 들어선다. 4층은 한국어 강의실, 지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다목적실로 꾸며진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한 빌딩 안에서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산돼 있던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와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합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남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등포구는 물론이고 금천·구로·동작·관악구 등 서남권 지역의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민과 외국인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서울은 경기도에 이어 외국계 주민의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은 경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관련 정책 수행의 대상인 외국인 주민 5% 이상인 자치구는 8개구(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 관악, 광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남권의 영등포, 금천, 구로구는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10%가 넘 으며, 3개구의 밀집동과 이어지는 관악구는 외국계 주민의 거주 비율이 5.7%에 이르러 서울시의 서남권 4개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음을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남권에서 살고 있는 외국계 주민 중 중국 동포의 비율은 영등포 82.79%, 구로 80.56%, 금천 78.22%, 관악 69.17%로 서남권 외국계 주민의 대다수는 중국 동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등포구 대림2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은 1990년대부터 중국 동포 밀집지역으로 각종 관심을 받아 온 지역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재편되어 왔고, 선주 한국인들의 거주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4개 구 중에서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특히 높은 동들이 대림2동에서 구로3동, 가리봉동으로 이어지는 영등포구, 구로, 금천에 걸친 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림2동에서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보라매동으로 이어지는 영등포, 관악 라인을 이루고 있어 구의 경계를 넘어 인접 동을 중심으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에 있는 반면 외국계 주민의 규모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방문취업제 기간 만료에 의해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을 뿐 전반적으

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주민들이 느끼는 인구 구성 변화의 체감도는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서울시에서 중국계 동포가 가장 먼저 밀집지역을 이루며 살아 온 지역은 구로구 가리봉동이라는 사실은 선행연구 및 각종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배후지로 월세가 싸다는 점이 가리봉동의 장점이었다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불법체류자’ 단속과 가리봉동의 재개발 예정지 지정은 2000년대 초반 중국계 동포들이 가리봉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가리봉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대림, 가산, 신림, 봉천 등 2호선 라인으로 중국 동포들의 거주지는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온 것이다.

서울시 차원에서 서남권의 중국 동포에 대해 관심을 보여 온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금천구의 외국인근로자센터는 2007년 5월 개소,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 외국인근로자센터는 2010년에야 해당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 또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설립된 것 또한 2009년 8월에 이르러서였다.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한 200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이슈가 활발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지원체계가 앞다투어 만들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1999년 5월 구로구에 중국동포 교회가 설립되었고, 1999년 신문기사 등에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중국 동포 밀집지역으로서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다룬 데 비하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 입지 특성에서 서남권 글로벌센터로 확대 개편된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에서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중에서도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행정동에 세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천구 또한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신설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기존에 활동해 온 점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 보다 크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해당 기관들이 지역민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즉 외국계 주민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세워진 시설이 어떻게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 운영에 어떻게 지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갈 것인지를 생각할 때 특정 공간에 들어 선 전달체계로서의 의미가 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IV

외국계 주민과 선주 한국인의 상호 이해도 분석

1. 서남권 4개구 한국인 주민의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이해
2. 외국계 주민의 삶과 한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3.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민 간 교류의 가능성과 여성
4. 요약 및 시사점

IV

외국계 주민과 선주 한국인의 상호 이해도 분석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ethnic district)은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이 공간적으로 집적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생활공간 및 관련 인프라(박세훈 외, 2011)로 정의된다. 이때의 소수민족이란 거주 지역 내 다수 그룹과 구별되는 종족적 기질이라고 볼 때 서울에서 외국계 주민의 거주율이 현저히 높은 동시에 특히 중국 동포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서남권 4개구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주 한국인과 혈연을 같이 하나 특정 시기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달리 했던 이들 사이의 갈등과 통합의 가능성 논의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민족’, ‘종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계 주민과 선주 한국인의 상호 이해도 분석은 서남권 4개구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 까지 외국계 주민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2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인근의 시장, 금천구 가산동과 독산동 인근 거리, 관악구 신림동 거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원을 통해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 FGI 참여자가 설문에 응답해 준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와 밀집지역으로서의 4개구를 비교 분석하고, 모든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로 분리하여 집계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한국인 주민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응답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고, 외국계 주민은 단신입국자와 가족단위 거주자, 학령기 자녀와 학령기 이외의 자녀가 있는 그룹의 응답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부록 4, 5를 통해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설문 조사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IV-1 】 서울시 외국계주민 밀집지역 구성원 설문조사 개요

<input type="checkbox"/> 분석자료 : 2014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조사 - 조사기간 : 2014. 7. 9.~7. 31. - 조사대상 : 서울시 서남권 4개구(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를 생활권으로 하는 전주 한국인과 외국계 이주민 - 응답인원 ³³⁾ : 전주 한국인 (262명 여성 123명, 남성 139명) 외국계 주민 (219명 여성 107명, 남성 112명) - 주 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input type="checkbox"/> 분석대상 : 서울시 서남권 4개구 거주민		
구분	선주 한국인	외국계 이주민
조사 내용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일반 질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과 관계 자녀세대에 대한 인식 경제주체로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	거주지 선택의 이유 한국인과의 교류 관계 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지역주체로서의 현황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
<input type="checkbox"/> 분석방법 : SPSS 18.0		

1. 서남권 4개구 한국인 주민의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이해

2012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연구(김이선, 2012)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합법적 이주민이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항목에 서울 거주자의 49.4%가 동의하고 있으며, 8.7%만이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고 있어 합법적 체류자에 한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금을 늘리더라도 이주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35.7%의 서울 거주자가 대체로 찬성의 의견을 표한 반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

33) 전주 한국인 총 286명이 응답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자 24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외국계 이주민 또한 총 229명이 응답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자 10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우는 34.3%이다.

이러한 일반적 조사 결과와 외국계 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 및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더불어 그 안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는 것은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다.

1)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일반적 인식

거시적 차원의 질문과 현재 밀집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질문을 대비해 응답성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일반적인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질문되는 추상성이 높은 수준의 질문에 대한 서남권 4개구 한국인 주민들의 응답을 6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이다. 답 문항에 ‘그저 그렇다(보통이다)’의 응답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으며, 설문과정에서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보통이다)’의 답을 말할 경우에 한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4개구 주민들은 모두 다른 문화나 타인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중에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결과만으로 여성이 세계시민으로서보다는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더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2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김이선, 2012)의 결과를 인용해 보면 여성의 경우 다문화 관련 교육 수혜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이 조사 참여자들이 대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거주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주민을 접하며 살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이들이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아 온 여성들에게 국경을 벗어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상상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남성에 비해 관련 교육을 받았다

는 응답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의 직접 행동으로 발현될 여지가 크고, 개인의 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질문인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의 답변이 더 높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나서게 될 때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이다.

다른 사람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한다,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에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 외 다른 항목에서는 남성 응답자가 보다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자녀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인 기타로 분류된 집단에 비해 미취학 아동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가진 집단에서 추상적 수준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 】 추상적 수준의 다문화 이해도: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 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기타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한다	4.44	4.49	4.39	4.54	4.69	4.42
다른 사람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한다	4.60	4.54	4.66	4.83	4.80	4.60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4.44	4.37	4.50	4.63	4.54	4.41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보다 세계 속의 시민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	3.93	3.77	4.06	3.98	4.11	3.85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4.18	4.40	3.98	4.51	4.52	4.08
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4.18	4.29	4.08	4.33	4.37	4.13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외국계 주민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밀집지역 거주 한국인주민의 생활 장면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에 걸쳐 남녀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문항에서 남성들이 보다 호의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를 하고 지내는 외국인이 있다는 문항으로 가면 여성의 호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외국계 주민과 직접 소통의 면이 넓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모임의 여부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가 보다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측정 척도상 남녀 모두 응답이 ‘그렇지 않다’ 쪽에 기울어 외국계 주민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 안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모임이 활발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소통의 장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응답했던 다른 문화에 대한 흥미가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시민으로 사는 것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던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인사를 하고 지내는 외국계 주민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보다 적는데 반해 외국계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이때 원활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비교적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통, 인사, 모임과 관련해 모두 정규학교 취학 이전의 저연령대 자녀를 둔 응답자들이 외국계 주민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직접적 소통이라 할만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외국인 주민이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 성인 자녀를 둔 경우 항목별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한 접촉이 주민 간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3】 지역 내 외국계 주민과의 소통 :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외국인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다	3.12	3.10	3.13	3.63	3.52	2.96
동네에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외국인이 있다	2.64	2.83	2.47	3.95	3.42	2.41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67	2.50	2.82	2.85	2.80	2.64

※ 측정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쓰레기 무단 투척의 장면이나 술에 취한 외국인, 고성과 다툼의 현장을 목격하는 등 부정적인 접촉 관련 응답은 일반적인 소통에 대한 응답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계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어 서남권 4개구 주민들은 외국계 주민이 많아짐으로 인해 발생한 동네 이미지 변화를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감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외국계 주민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두렵다”는 항목과 “외국인 주민이 거리에서 다투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술 취한 외국인 주민을 자주 목격한다”는 항목의 응답에서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는 쓰레기 무단 투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관련 현장을 목격하는 빈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국인 주민의 질서의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식은 느끼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행동이 주민들 사이에서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드러나 있다. 이는 외국계 주민에 대한 거리감으로 이어져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적 행위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외국계 주민으로 돌리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외국계 주민의 행위를 부정적 인식과 연결되는 접촉이 보다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인 경우와 달리 초등학교 재학 이하 연령대의 자녀를 둔 주민들의 응답은 ‘외국인 주민이 질서를 잘 지킨다’,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서 동네 이미지가 좋아졌다’에서는 4개구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머지 항목에서는 4개구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외국인 주민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는 부분이다.

【표 IV-4】 지역 내 외국계 주민과의 접촉 및 인식: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우리 동네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3.30	3.09	3.47	3.02	3.28	3.35

문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외국인 주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3.18	3.59	2.81	4.02	3.62	3.04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동네가 지저분해졌다	3.05	3.47	2.69	3.98	3.54	2.90
외국인 주민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3.18	3.61	2.80	4.37	3.77	2.96
거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주민과 자주 마주친다	3.05	3.38	2.76	4.27	3.75	2.78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싸울 경우에는 외국인이 잘못했을 경우가 많다	2.76	2.93	2.61	3.10	2.92	2.66
거리나 공원에서 외국인 주민끼리 모여있는 것을 보면 두렵다	3.29	3.69	2.95	3.46	3.28	3.31
외국인 주민의 무질서한 행위를 모르는 척하는 한국사람이 있다	3.76	3.73	3.78	4.28	3.97	3.74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서 동네 이미지가 좋아졌다	2.38	2.22	2.52	2.13	2.13	2.47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같은 장소에서 설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자녀의 연령대 별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은 주로 평일 낮 시간대에 실시되었다. 설문이 이루어진 장소는 각 자치구의 외국계 주민 평균 거주 비율보다 높은 동 단위, 거리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해당 시간대에 지역에 머문다 해도 어떠한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아래 표는 응답자의 성별 직업과 자녀 관련 사항이다.

■ 표 IV-5 ■ 응답자의 특성: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23	139	262
	46.9	53.1	100.0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직업	전문직	12	27	39	
		30.8	69.2	100.0	
직업	사무/관리직	15	25	40	
		37.5	62.5	100.0	
	서비스직	8	10	18	
		44.4	55.6	100.0	
	생산직/단순노무직	3	6	9	
		33.3	66.7	100.0	
	자영업	10	17	27	
		37.0	63.0	100.0	
	가정주부	40	0	40	
		100.0	.0	100.0	
	학생	23	39	62	
		37.1	62.9	100.0	
	무직/구직중	5	7	12	
		41.7	58.3	100.0	
	기타	5	6	11	
		45.5	54.5	100.0	
	자녀	저연령대 자녀 (미취학~초등학교)	30	11	41
			73.2	26.8	100.0
중등교육과정 자녀		44	21	65	
		67.7	32.3	100.0	
그 외 (자녀없음, 대학생 이상)		78	110	188	
	41.5	58.5	100.0		

위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 중 여성의 경우 주부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즉 이들은 대다수의 시간을 해당지역에서 보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여성 전업주부에 비추어 해당 지역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추정되는 직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결국 지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여성들이 보다 자주 실생활에서 외국계 주민의 행동을 목격한 결과 위 표 <IV-4>과 같이 음주, 다툼의 현장도 종종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많이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연령별 응답자 현황에서 외국계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접촉 경험이 보다 많았던 것으로 응답된 저연령대 자녀를 둔 이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해당 응답자의 성별 현황에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인 경우 남성의 비율이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응답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외국계 주민에 대해 더 위협감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 경향이 강한 것은 오히려 저연령대 자녀를 둔 집단이다. 따라서 성별과 함께 자녀의 연령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나, 자녀 연령별 응답자 중 저연령대 자녀를 둔 집단의 남성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별 분석은 성별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불어 해당지역에서 생활하고 거주한 기간 또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성은 해당지역 거주 기간 10년 미만인 응답자가 94명으로 70.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여성은 해당지역 거주 10년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70.3%(부록 5참조)에 이르고 있다.

2) 지역주민으로서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이해와 오해

외국계 주민의 유입이 밀집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네가 지저분해졌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뿐 아니라 하나의 상권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외국계 주민 유입의 효과에 대한 지역 거주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질문은 일반의 통념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 한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민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 본 적이 있다’는 문항을 통해 실제 경험을 물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다문화정책, 외국인 주민 정책에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통념³⁴⁾에 대해 경제 주체로서 외국계 주민의 실제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월세, 공과금,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해 한국인 주민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외국계 주민 유

34) 2014년 8월 12일 ‘2014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에서 정혜실 터(TAW)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2년 동안 나온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면 ‘다문화가정’이란 키워드가 지원의 대상(6천963건)과 소외계층(3천573건)과 관련해 검색됐다”며 “이런 미디어의 보도는 다문화가정을 세금을 감아먹는 존재 또는 복지의 대상으로만 한정해 여기저기 하는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의 효과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물가, 지역민의 수입, 상권’ 현황과 주택 가격 관련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국계 주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는 ‘한국인의 일자리가 외국인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이다. 현실에서 선주민들과 외국계 주민들이 실제 일을 구할 때,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대면하고, 서로 갈등과 화합을 경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주민의 응답 또한 외국인 주민과 일자리 경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많아 선주민과 이주민의 일자리가 경쟁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녀 간 성별에 따른 차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국계 주민과의 일자리 경쟁 경험이 더 적다.

외국인 혐오 여론을 조장하는 일부에서는 외국계 주민이 선주 한국 국민의 일 자리를 잠식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으며, 법무부는 2006년 9월 한 언론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 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F4 발급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업 기능직의 경우 조선족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 취업자가 일 자리를 잃을 확률은 0.003%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보고(한국노동연구원, 2010)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주민이 지역 거주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월세나 공과금 등 지역에서 실제 부딪치며 그 납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높다. 다만 월세나 공과금에 비해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는 결국 실상을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선주민들이 외국계 주민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실에서 정당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계 주민이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연구의 외국계 주민에 대한 조사에서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는 한편 세금 납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쳐 의무를 논하기에 앞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의 FGI에 응해 준 중국동포 단체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들이 위법 행위가 자신의 체류 자격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경우 위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

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공과금으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등의 항간의 이야기가 직접 경험보다는 짐작과 편견에 따른 인식의 문제, 법적으로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 주민 등에 대한 거부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은 특히 ‘지역의 물가와 임대료가 상승하였다’는 응답이 남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월급 관리나 재테크 등 경제활동 주도권을 여성이 갖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조사에 비추어 물가 동향 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³⁵⁾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료일 뿐 주택가격 상승 전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지역 선주민들은 외국계 주민이 지역의 경제 상황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별 응답 경향 또한 4개구의 전반적인 응답 경향과 일치한다. 눈에 띄는 점은 저연령대 자녀를 둔 경우 지역의 물가가 높아졌다거나, 임대비가 올랐다는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그러하다’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 표 IV-6 】 외국계 주민과의 삶과 지역의 변화(경제):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 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외국인 주민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 본적이 있다	1.93	1.87	1.98	1.98	1.88	1.90
외국인 주민은 한국인보다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48	2.60	2.37	2.59	2.55	2.46
외국인 주민이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곤란할 때가 있다	2.50	2.59	2.43	2.81	2.72	2.45
외국인 주민은 정해진 세금을 잘 낸다	3.60	3.66	3.54	3.42	3.70	3.57
우리 지역 물가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2.96	3.14	2.79	3.61	3.31	2.82
외국인 주민이 늘어난 후로 지역민의 수입이 많아졌다	2.65	2.65	2.65	3.05	2.86	2.62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살아 우리 동네 상권이 살고 임대비도 높아졌다	2.88	3.02	2.76	3.60	3.25	2.75

35) 2011년 11월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기혼직장인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2%가 가정 경제 활동권을 아내(여성)이 갖는다고 응답하였다(연합뉴스, 2011.07.19).

문항	4개구 일반			자녀 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우리 동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68	2.63	2.72	2.93	2.70	2.60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3) 외국계 주민과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

선주민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외국계 주민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국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외국계 주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는 질문이다. 4개구 전반적으로 외국계 주민을 생산직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다.

다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한국인 주민과 다를 바 없는 이웃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응답률이 높으며,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설문 결과를 구별로 분리 분석한 결과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영등포구에서도 특히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밀집지역에서 단순히 이웃 주민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³⁶⁾

【표 IV-7】 외국계 주민의 위상에 대한 인식: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명, %)

구분	이웃주민	결혼 이주자	전문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유학생	기타	
전체	53	43	37	99	46	10	
	20.5	16.7	14.3	38.4	17.8	3.9	
성별	여	33	21	14	56	15	5
		27.5	17.5	11.7	46.7	12.5	4.2
	남	20	22	23	43	31	5
		14.5	15.9	16.7	31.2	22.5	3.6

외국계 주민과의 관계별 수용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 동네, 이웃이라고 하는

36)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주민을 유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분석했을 때 관악구 응답자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왔음을 밝힌다.

접촉면과 직장 동료, 가족으로의 관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한다”는 등 추상적인 수준의 높은 수용성이 현실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수용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단위 범주로 볼 수 있는 국가 단위의 거주, 이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계로 보았을 때에도 직장 동료,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거부감 보다는 수용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배우자 내지 자녀의 배우자로 외국계 주민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계 주민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 > 동네에 사는 것 > 옆집에 사는 것 순으로 수용성이 위계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 본인의 배우자가 되는 데 대해서 낮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은 것은 앞선 응답에서 외국계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동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든 수준에서 외국계 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옆집에 사는 데 대한 수용성이 가장 낮아, 4개구 일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IV-8】 외국계 주민의 거주 및 관계에 대한 수용도: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 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	4.43	4.24	4.61	4.15	4.32	4.47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	4.24	3.96	4.49	3.95	4.14	4.25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4.47	4.43	4.50	4.34	4.43	4.46
옆집에 사는 것	4.19	4.08	4.28	3.90	4.17	4.19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4.34	4.16	4.49	4.05	4.18	4.38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3.32	3.14	3.48	3.29	3.37	3.32
내 배우자가 되는 것	3.20	2.90	3.47	3.24	3.22	3.17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 상 서울시 외국계 주민의 거주 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서 서울시 다문화가정 학생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³⁷⁾ 서울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특히 초등학생이 높다. 이는 특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연구의 과정에서 만난 주민의 자녀가 다니는 영등포구의 특정 초등학교는 이미 외국계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자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1학년은 재학생의 50%이상이었다.³⁸⁾

이에 응답자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자녀의 친구 중 외국계 주민의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저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경우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주 가정의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주민들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주민의 집에 자녀가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자녀 세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녀에 따른 응답 차는 나타나고 있다.

자녀 세대가 외국계 주민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 거부감이 적다고 해도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자녀들의 학교 분위기 평가에서 외국계 주민으로 인해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주민의 유입과 자녀 세대의 국제적인 감각의 증대와 전혀 무관하게 평가하고 있다. 즉 국경의

37)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6,013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23.6%, 서울 10,021명 14.7%, 전남 5,023명 7.4%, 경남 4,754명 7.0%, 충남 4,292명 6.3% 순

【표 IV-9】 서울시 각급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2014)

구분	전체 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초등학교	457,517	7,059	1.54
중학교	286,826	1,845	0.64
고등학교	320,398	1,117	0.35

**전체 학생수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연도별 통계변동 현황을 참조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한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http://blog.daum.net/ysj2005>)를 참조함.

38) 영등포구 대림2동 소재의 해당 학교는 전교생 533명 중 185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이며, 1학년 생의 경우 전체 86명 중 46명이 다문화가정 등 외국계 주민 가족 자녀이다(2014.10.21. 해당 학교 관계자 전화 인터뷰).

안쪽, 지역 내부에서 만나는 이주민과의 관계가 안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세계화, 국제화와 무관하다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여성 응답자와 저연령대 자녀를 둔 응답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여기에서 짚어 볼 문제는 실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을 구성하는 외국계 주민이 대부분 중국동포라는 점이다. 중국동포와의 접촉이 국제적 감각 향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국제적’, ‘세계적’이라는 용어가 같은 아시아계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서구인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표 IV-10 】 외국계 주민과의 공존과 자녀 세대: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아이의 친구 중 외국인 이주가정의 자녀가 있다	2.53	2.83	2.24	4.10	3.43	2.24
내 아이가 외국인 이주가정의 아이를 초대한다고 하면 기꺼이 찬성하겠다	4.38	4.32	4.44	4.44	4.58	4.32
내 아이가 외국인 이주가정 아이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하면 기꺼이 찬성하겠다	4.21	4.04	4.37	4.02	4.17	4.24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서 아이들의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	3.03	2.85	3.20	2.79	2.81	3.08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우리 지역 아이들의 국제적 감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3.11	2.91	3.29	2.58	2.81	3.17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그렇다면 지역 한국인 주민들은 실제 외국계 주민과 얼마나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모임 등을 통한 의도적인 접촉과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소의 공유를 통한 접촉, 그리고 이후의 교류 의지를 통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안에서 주민 간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외국계 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지, 향후 공동 활동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외국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문화, 체육시설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문화, 체육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없다’는 쪽의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과 관련해서
는 남성 <여성 <저연령대 자녀의 부모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저연령대 자
녀를 둔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와, 자녀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이용해 본 경험에 기반한 응답임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시설을 이용할 때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서남권에 주로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국적 취득자가
아닌 경우 보육료 부담이 한국민과 다르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는
것이 주민으로서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욕시설 등에서 의도치 않게 마주치는 경우 보다 외국계 주민이 이용하는 식당에
종종 간다는 응답이 적는데, 이는 저연령대 자녀를 둔 그룹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향후 ‘모임 가입 의지’는 현재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식당, 공중 목욕 시설
에서의 만남에 대한 응답보다 높게 나와 접촉 경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공동 이용 보육시설이 있
다’, ‘공중목욕시설에서 자주 마주친다’는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응답률
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주민 모임 등의 가입의지는 남성에 비해 낮게 응답되고 있다
는 점에서 접촉 경험이 보다 밀도 있는 만남으로 이어지기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표 IV-11】 외국인 주민과의 공동이용 시설 및 공동활동 현황: 4가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 항	4가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외국인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 체육시설이 있다	2.97	2.82	3.10	3.05	3.00	2.93
외국인 주민의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	3.51	3.54	3.48	4.63	4.05	3.30
지역 찜질방이나 공중 목욕시설에서 외국인 주민을 자주 마주친다	3.58	3.73	3.45	4.46	4.08	3.42
외국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을 나도 종종 이용한다	3.55	3.40	3.67	3.56	3.56	3.48
기회가 있다면 외국인 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3.61	3.27	3.91	3.51	3.65	3.58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주민은 공통적으로 외국계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지역발전 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항목에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통계에서 외국계 주민이 많다는 점이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항목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만큼 이사의향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하였다.

앞서 <표IV-4>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동네가 지저분해졌다’는 인식(평균 3.05, 여 3.47, 남2.69)에 비해서 이사 의향이 크지는 않으나 지저분해졌다는 인식을 보다 크게 했던 여성 쪽이 이사를 더 많이 원한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같은 표의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서 동네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인식(평균 2.38, 여 2.22, 남 2.62)이 낮았던 만큼 이사 의지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지역발전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답변에 비해 외국계 주민과의 친목모임 등에 가입할 의지 <표IV-11>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 차원의 교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논의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외국계 주민이 경제주체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이해하고 있고, 의도치 않은 지역 내 공간에서 외국계 주민과의 접촉이 더 많은 것이 여성인 동시에 이사의 의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도 여성이다. 모든 응답 집단 중 이사 의지가 가장 높은 집단이 지역발전계획을 보다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특징도 있다. 그리고 그 응답자는 저연령대 자녀를 둔 이들이다.

【 표 IV-12 】 외국계 주민 거주 체감 및 지속거주 의지 :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 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거주하는 동네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	3.18	3.42	2.97	3.98	3.58	3.03
지금 사는 곳과 비슷한 곳이라면, 외국인이 거의 없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2.73	3.06	2.45	3.49	3.09	2.60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	4.28	4.15	4.40	4.44	4.43	4.28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4) 정책에 대한 이해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선주 한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14.1%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정책 인지율이 약간 높으며, 저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그룹보다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 연령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 정책 인지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선 응답자 특성에서 저연령대 자녀를 가진 그룹 응답자의 다수가 여성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전반적으로 낮은 정책 인지율 중에서도 특히 남성의 정책 인지율이 보다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표 IV-13 】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지(4개구 한국인 주민)³⁹⁾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	아니오	
전 체		32 14.1	195 85.9	227 100.0
성별	여	18 18.0	82 82.0	100 100.0
	남	14 11.0	113 89.0	127 100.0
자녀 연령별	저연령	4 11.1	32 88.9	36 100.0
	중등과정	10 17.5	47 82.5	57 100.0
	그 외	25 15.2	139 84.8	164 100.0

결국 선주민들은 외국인·다문화 정책은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대상 집단이 있고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Ingram & Schneider, 1995; Schneider & Ingram, 1997)는 면에서 한국인 주민들은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자신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 스스

39) 설문지 내용은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시 앞선 문항들에서 기존의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어 해당 항목이 질문되었다.

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갖게 된다.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전반의 정책이 아닌 일부 이주민만을 위한 혹은 그들에 관한 정책으로 인식될 때 한국인 주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은 반면 오히려 외국인 다문화 정책 요구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던 여성들은 필요 정책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적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질서교육 관련 호응도가 정책 요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정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저연령대 자녀를 둔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보다 ‘질서교육’, ‘교류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민들은 외국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 교육, 의료, 취창업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 연령대 별로는 중등 교육과정의 자녀를 둔 그룹에서 호응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컴퓨터 등 전용시설개설에 대한 호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교류지원에 대한 강한 요구와 대비된다.

■ 표 IV-14 ■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요구(내용):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	남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주거지 및 주변환경 개선	4.29	4.46	4.13	4.76	4.71	4.19
외국계 주민 자녀 교육 문제	4.59	4.66	4.54	4.73	4.74	4.55
의료 및 건강관련 서비스 확대	4.42	4.49	4.36	4.54	4.57	4.37
취업, 창업 정보 제공	4.41	4.47	4.35	4.37	4.49	4.41
컴퓨터 등 전용시설 개설	4.07	4.26	3.90	4.15	4.29	4.03
한국사회질서에 대한 교육	4.91	5.00	4.82	5.27	5.18	4.85
한국인과의 교류 지원	4.66	4.75	4.58	5.05	5.02	4.54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대상별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호응을 보이는 쪽은 성별로는 여성,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저연령대 자녀를 둔 응답자 집단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대상별로 볼 때 유학생 지원에 대해 가장 낮은 호응도를 보이는데 특히 저연령대 자녀를 둔 집단의 유학생 지원에 대한 호응이 가장 낮다는 점과 동포 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이 가장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연령대 자녀를 둔 경우 한국인 인식 개선 사업이나 다문화가족의 한국에 교육, 폭력 피해여성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층위의 외국계 주민 지원에 다른 응답 집단보다 높은 호응을 보였다는 면에서 유학생 지원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호응을 보인 데 관한 해석을 요한다. 유학생 지원에 대해 저연령대 자녀를 둔 그룹에서 호응이 낮다는 점은 외국계 주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에서 높은 호응도를 보인 결과와도 상반된다. 결국 유학생 지원 필요성에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유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수반된다. 유학생의 경우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달리 한국 사회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자원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 정도가 낮다는 해석이 있는 한편으로 외국인 이민자의 자녀가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항목에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즉 유학생의 경우 정주 가능성이 낮아 배척하지 않지만, 지원의 필요성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자녀와 경쟁관계에 설 수도 있다는 인식이 지원 필요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IV-15 】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요구(대상): 4개구 한국인 주민

(단위: 점)

문 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자	남자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67	4.79	4.53	4.84	4.84	4.69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센터, 보호시설	4.87	4.92	4.81	5.00	4.92	4.8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4.77	4.82	4.69	4.85	4.85	4.78
외국인 근로자 센터	4.59	4.68	4.47	4.70	4.69	4.59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4.39	4.56	4.16	4.45	4.45	4.45
외국인 주민밀집지역 지원	4.31	4.43	4.14	4.50	4.59	4.24
한국국민 인식개선 사업	4.85	4.86	4.84	5.30	5.18	4.74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4.93	4.95	4.91	5.00	4.95	4.95

문항	4개구 일반			자녀연령별		
	전체	여자	남자	저연령	중등과정	그 외
유학생 지원	4.08	4.21	3.91	3.85	4.03	4.10
동포지원	4.30	4.27	4.33	4.35	4.33	4.29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2. 외국계 주민의 삶과 한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서울시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이주민의 다수는 중국동포라는 점은 앞서 살펴 본 외국인 주민 통계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출신국적 특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표 IV-16 】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구분		성별		전체
		여성	남성	
국적 (한국국적 취득이전 국적)	중국	99	101	200
		95.2	97.1	96.2
	기타 ⁴⁰⁾	5	3	8
		4.8	2.9	3.8
자녀형태	보육·교육기 자녀 (미취학~고등학교)	53	45	98
		53.0	43.7	48.3
	그 외 자녀 (자녀없음, 대학생 이상)	47	58	105
		47.0	56.3	51.7
거주형태	단신 입국	19	34	53
		22.1	38.2	30.3
	가족단위 입국	67	55	122
		77.9	61.8	69.7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이주민 중에서도 중국 출신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연구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서울시 서남권의 특정 지역을

40) 기타 국적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본, 몽골, 콩고, 말레이시아 출신인이 각 국별로 1-2명 포함되어 있다.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이주민으로서는 드물게 그 존재감이 두드러진 주민들이 중국 동포이다. 그리고 앞서 한국인 주민 조사에서 선주민들이 그들에 대해 갖는 인식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 절에서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외국계 주민들의 삶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별, 거주 형태별, 보육시설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 유무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육이나 교육이 필요한 자녀는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자녀이고, 그 외는 대학생 이상 혹은 자녀 없음의 경우이다.

1) 밀집지역 거주 이유

선행연구에서는 서울시의 특히 서남권 구로구 가리봉동이나,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의 외국계 주민 특히 중국동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이유로 저렴한 집값과 산업재편의 결과를 들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요한 시기별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사회변동기 인구 유입지로서 기능해 온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다민족다문화국가로의 사회 변동기에 처해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효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미애, 2008).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실제 해당 지역에 특정 인구가 몰려든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특성과 지역민의 현실적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즉 현재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거론되는 서남권의 특정 지역이 집값이 싸기 때문에 외국계 주민의 집거에 유리하다면 그 지역의 집값이 쌀 수밖에 없는 원인은 결국은 그러한 지역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며, 단순히 그러한 원인을 외국계 주민이 만들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계 주민이 많아지면서 지역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애초 이주민들이 선주민들과 물리적인 갈등을 겪으며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규모가 계속 커져 왔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외국계 주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계 주민의 평가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동포를 비롯한 외국계 주민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즉 아는 사람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몰려드는 중국계의 거주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오히려 집

값이 저렴하다는 점은 실제 거주민들이 꼽고 있는 우선 순위 중에 최하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용, 직장과의 거리,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해당 지역 거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의 자녀를 둔 경우가 ‘교육 환경이 좋다’는 항목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고를 통해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정착하는 중국 동포들의 거주 특성이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외국계 주민의 거주지 선택의 이유에서 드러나는 서남권 지역의 특징은 “게토(ghetto)”라기 보다는 “밀집지(enclave)”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 ‘직장과 가깝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서남권의 특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식당 종사자 중 중국동포 여성이 많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표 IV-17】 지역 거주 이유(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가족단위	보육·교육기	그 외
우리 동네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	3.11	3.25	3.03	2.98	3.11	3.12	3.15
우리 동네는 동포 등 외국인이 많다	4.21	4.30	4.12	4.15	4.25	4.02	4.33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	3.81	3.70	3.87	3.91	3.65	3.78	3.79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4.15	4.07	4.22	4.09	4.13	4.15	4.16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다	4.15	4.21	4.05	3.98	4.17	3.91	4.24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기회가 많다	3.31	3.42	3.23	3.28	3.31	3.29	3.25
주거비용이 저렴하다	2.80	2.84	2.79	2.76	2.79	2.89	2.62
직장과 가깝다	3.08	3.33	2.89	3.00	3.00	3.12	3.01
아이들 교육환경이 좋다	3.56	3.52	3.64	3.43	3.55	3.29	3.70
장사가 잘 된다	3.53	3.50	3.54	3.46	3.49	3.48	3.50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계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인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이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지역 인프라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책 차원의 개입 등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기본적인 보육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집단의 부정적인 답변이 두드러진다.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외국계 주민과 한국인 주민의 인식이 다르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정책 요구에서 이주민과 한국인 주민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방법론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2) 한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과 교류

여기에서는 외국계 주민의 한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과 교류는 한국인 주민의 답변에 비추어 외국계 주민의 답변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계 주민의 인식과 교류 현황에서 어떠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러한 차이가 한국인 주민 조사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와 어떻게 연결되고 분절되는지를 파악해 갈 것이다.

단신입국인 경우와 가족 단위 입국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와 함께 자녀 변수가 어떤 차이를 불러 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의 경우, 보육이나 교육 문제가 얽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규 교육 과정 이하의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와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두 경우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인 주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문제가 적은 이들은 보육교육기의 자녀를 둔 이들로 나타났으며, 수치 상 큰 차이는 없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반면 이들이 느끼는 차별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단신입국자의 경우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인사를 하고 지내는 한국인이 있다, 필요한 정보를 한국인으로부터 얻는다는 항목에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모든 응답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항목은 ‘한국인 주민이 외국계 주민을 고용한다’는 부분으로 대체로 그러하다는 답변 경향을 보인다.

【 표 IV-18 】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가족단위	보육·교육기	그 외
우리 동네 한국인들과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다	4.10	4.11	4.10	4.06	4.06	3.85	4.27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 한국인이 있다	4.00	3.85	4.17	3.46	4.15	4.03	3.97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한국인 주민이 있다	3.21	3.21	3.25	2.85	3.28	3.30	3.12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한국인 주민들에게 얻는다	3.22	3.25	3.17	2.76	3.32	3.35	3.06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	3.84	3.84	3.85	3.72	3.93	4.04	3.60
한국인 상인들은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다	4.00	4.00	4.00	4.00	4.04	4.00	4.07
우리 동네 집주인들은 외국인 세입자와 한국인 세입자를 동등하게 대한다	3.79	3.74	3.89	3.64	3.91	3.78	3.88
우리 동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3.72	3.64	3.79	3.49	3.73	3.55	3.76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문제는 선주 한국민이 외국계 주민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거나 외국계 주민을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주민들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약하며, 성인 프로그램에 비해 그나마 학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수치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이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아이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인지의 여부가 명확해져야 하며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을 특정화시키는 문제를 불러오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 볼 부분이다. 외국계 주민들이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응답에서 여성 주민의 응답이 보다 부정적이다.

【 표 IV-19 】 한국인 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가족단위	보육·교육기	그 외
학교에는 외국인 주민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3.33	3.26	3.43	3.25	3.22	3.38	3.24
아이가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3.68	3.59	3.77	3.42	3.77	3.70	3.56
우리 동네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있다	2.73	2.59	2.89	2.70	2.64	2.63	2.73
지역 주민들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2.53	2.41	2.68	2.53	2.49	2.48	2.55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살기 편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의 기반 시설과 안전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관련 질문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의료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특화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동시에 살고 있는 지역의 청결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 외 한국인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지역안내 표지판, 보육시설, 공공기관 안내 서비스 등에서 여성들의 평가가 낮다.

이러한 응답 성향은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를 불러온다. 지역에 만족도가 낮고, 불편을 느끼는 이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의외의 지점 또한 발견된다. 지역에 오래 살고 싶은 희망을 가장 긍정에 가깝게 표명한 가족단위 거주자의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특별히 긍정적인 항목은 없다.

따라서 지역에 오래 살고 싶다는 응답 자체가 지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결과라기 보다는 장기체류나 정주화 방지의 차원에서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현실(통계청, 2012)에 비추어 가족 동반 입국자의 경우 정주 욕구가 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지역에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 표 IV-20 】 지역 생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인식과 평가(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점)

문항	성별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가족단위	보육·교육기	그 외
우리동네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3.57	3.45	3.67	3.19	3.60	3.51	3.65
우리 마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잘 설치 되어있다	3.38	3.34	3.43	3.30	3.34	3.27	3.33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41	3.46	3.41	3.15	3.60	3.60	3.32
외국계 주민의 자녀가 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3.35	3.22	3.50	3.25	3.43	3.17	3.44
치안(CCTV, 순찰 등)이 잘 되어 있다	3.91	3.78	4.02	3.79	3.87	3.58	4.09
외국인주민들의 생활안내를 위한 공공기관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3.51	3.45	3.55	3.25	3.48	3.33	3.56
우리동네는 깨끗한 편이다	3.60	3.40	3.77	3.47	3.58	3.47	3.60
우리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	3.76	3.71	3.79	3.49	3.91	3.70	3.68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지 않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매우 그렇다)

앞서 주로 지역 내 설치된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외국계 주민의 인식과 평가를 알아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지역 내 단체, 모임 등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통합 인프라에 대한 외국계 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위 두 문항에 비해서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과 민간단체 등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볼 때에는 기존 시설과 단체에 대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가장 저조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민단체나 지원 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좀 많으나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모든 집단 중에서 특히 단신 입국자와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인 경우가 시민·종교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주민 공동 모임 참여 경험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1 ■ 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인식: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문 항	응답	4개구 일반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입국	가족단위 입국	보육 교육기	그 외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없음	116 53.5	58 54.2	58 52.7	36 67.9	61 50.4	44 45.4	67 64.4
	있음	101 46.5	49 45.8	52 47.3	17 32.1	60 49.6	53 54.6	37 35.6
외국인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이 있다	없음	138 64.5	65 61.3	73 67.6	40 76.9	69 58.0	47 49.5	82 78.8
	있음	76 35.5	41 38.7	35 32.4	12 23.1	50 42.0	48 50.5	22 21.2
시민, 종교단체에 제공하는 외국계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없음	164 75.9	81 75.7	83 76.1	44 83.0	87 72.5	69 71.1	86 82.7
	있음	52 24.1	26 24.3	26 23.9	9 17.0	33 27.5	28 28.9	18 17.3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삶을 유지해 갈 기반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3.1%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 표 IV-22 】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 응답자의 직업 분포

(단위: 명, %)

직업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전문직	9 8.6%	4 3.7%	13 6.1%
사무/관리직	15 14.3%	8 7.4%	23 10.8%
서비스직	16 15.2%	4 3.7%	20 9.4%
생산직/단순노무직	12 11.4%	52 48.1%	64 30.0%
자영업	16 15.2%	10 9.3%	26 12.2%
가정주부	15 14.3%	1 .9%	16 7.5%
학생	2 1.9%	7 6.5%	9 4.2%
무직/구직중	12 11.4%	16 14.8%	28 13.1%
기타	8 7.6%	6 5.6%	14 6.6%

서울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국계 주민들이니 만큼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였다.

중국동포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남권 4개구 거주 외국계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은 많이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적게 나왔다.

특히 여성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산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단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및 지역 보험을 합쳐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다수가 제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신 입국자들은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산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표 IV-23】 각종 연금 및 보험 가입 현황: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문항	응답	4개구 일반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입국	가족단위 입국	보육 교육기	그 외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없음	118 54.4	52 48.6	66 60.0	28 52.8	65 53.7	52 53.6	57 54.3
	있음	99 45.6	55 51.4	44 40.0	25 47.2	56 46.3	45 46.4	48 45.7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없음	139 65.9	67 65.0	72 66.7	38 73.1	72 61.5	63 67.0	67 65.0
	있음	72 34.1	36 35.0	36 33.3	14 26.9	45 38.5	31 33.0	36 35.0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없음	130 61.0	59 56.2	71 65.7	36 69.2	69 58.0	53 56.4	70 67.3
	있음	83 39.0	46 43.8	37 34.3	16 30.8	50 42.0	41 43.6	34 32.7
산업재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없음	128 59.8	70 66.7	58 53.2	33 63.5	69 58.0	57 59.4	64 61.5
	있음	86 40.2	35 33.3	51 46.8	19 36.5	50 42.0	39 40.6	40 38.5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없음	133 62.4	67 63.8	66 61.1	30 58.8	75 62.5	63 65.6	65 62.5
	있음	80 37.6	38 36.2	42 38.9	21 41.2	45 37.5	33 34.4	39 37.5

다음은 외국계 주민의 무질서와 한국의 제도 불이행에 대한 한국인 주민들의 이야기가 밀집지역에 관한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는 점에 주목한 문항들이다. 실제 질서를 지키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 주민이 불만으로 이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외국인 주민들의 실제 행동은 어떠하지를 파악해, 서로간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일상의 질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남성, 단신입국자, 자녀가 없거나 대학생 이상인 그룹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구 전체적으로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남성의 응답율이 여성에 비해 높다. 여기에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의 질문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응답은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 한국인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이야기하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린다고 하는 문제에서 이주민들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고 하는

응답이 전 지역에서 90%를 상회하고 있어, 정해진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구심을 낳는다. 즉 ‘남들이 쓰레기를 버린 곳’을 정해진 곳이라 인식하고 있다면 이주민의 이러한 답변은 틀린 것도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물론 영등포구의 경우는 주말에 외지에서 모여드는 이주민이 다수라는 점에서 밀집동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세금 납부 관련 교육 또한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성별로 교육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이 높다. 평균 71.4%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70.2%가 응답해 남성보다 응답률이 좀 낮다. 공과금(평균 86.6%), 전월세(평균 83.9%) 또한 기한을 어기지 않고 지불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두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에 비해 좀 낮은 편이다.

【 표 IV-24 】 지역주민으로서의 교육 경험 및 삶의 실태: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문항	응답	4개구 일반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입국	가족단위	보육 교육기	그 외
한국의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없음	143 66.5	73 69.5	70 63.6	39 75.0	78 64.5	62 64.6	73 70.2
	있음	72 33.5	32 30.5	40 36.4	13 25.0	43 35.5	34 35.4	31 29.8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없음	9 4.1	4 3.7	5 4.5	1 1.9	6 4.9	5 5.1	4 3.8
	있음	209 95.9	103 96.3	106 95.5	52 98.1	116 95.1	93 94.9	101 96.2
세금 납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없음	139 64.1	65 61.3	74 66.7	36 67.9	75 61.5	54 55.1	73 70.2
	있음	78 35.9	41 38.7	37 33.3	17 32.1	47 38.5	44 44.9	31 29.8
한국에 사는 동안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였다	없음	60 28.6	31 29.8	29 27.4	18 35.3	32 26.9	29 31.5	28 26.9
	있음	150 71.4	73 70.2	77 72.6	33 64.7	87 73.1	63 68.5	76 73.1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에 납부한다	없음	29 13.4	17 15.9	12 11.0	4 7.5	18 15.0	19 19.6	8 7.7
	있음	187 86.6	90 84.1	97 89.0	49 92.5%	102 85.0%	78 80.4%	96 92.3%
집주인에게 월세를 날짜에 맞추어 지불한다	없음	35 16.1	22 20.8	13 11.7	2 3.8%	25 20.7%	23 23.7%	9 8.6%
	있음	182 83.9	84 79.2	98 88.3	51 96.2%	96 79.3%	74 76.3%	96 91.4%

3) 정책에 대한 이해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책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⁴¹⁾ 그러나 서남권 4개구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응답은 이러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즉 여전히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특히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동에서,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정책 지원 수준에 관한 인식: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구 분	매우 과도하다	과도하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전체	1 0.5	18 8.7	54 26.1	107 51.7	27 13.0	207 100.0	
성별	여	1 1.0	9 8.8	22 21.6	54 52.9	16 15.7	102 100.0
	남	0 0	9 8.6	32 30.5	53 50.5	11 10.5	105 100.0

일반적으로 외국인 다문화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크게 보고 있는 정책은 이주여성보호 및 자활시설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 > 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순으로 그 필요성이 높다고 답하고 있다. 필요성을 낮게 보는 정책은 결혼이민자 기초 생활 안내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 외국문화 체험 및 다문화 공연 행사 < 글로벌센터,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 순이나, 이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라기보다는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성별에 따른 응답 차도 보이는데 행사, 축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커뮤니티 지원 관련된 정책에서는 남성 응답자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의 호응이 높다.

41) 정부가 2014년 1월 15일 발표한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인데, 일부에선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한 ‘역차별’과 ‘폐주기’ 논란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http://vip.mk.co.kr/news/view/21/21/2038966.html>).

【표 IV-26】 외국인 다문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평균):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점)

문항	4개구 일반			거주형태별		자녀특성별	
	전체	여	남	단신	가족단위	보육·교육기	그 외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정보 안내	4.44	4.48	4.51	4.37	4.52	4.33	4.6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66	4.65	4.74	4.76	4.67	4.76	4.58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4.68	4.75	4.68	4.70	4.68	4.65	4.78
결혼이민여성 취업역량 강화	4.76	4.90	4.71	4.68	4.91	4.65	4.94
결혼이민자 인턴제도 운영	4.61	4.72	4.55	4.74	4.65	4.45	4.77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4.85	4.98	4.83	5.02	4.81	4.70	5.06
이주여성보호 및 자활시설 운영	4.87	4.99	4.83	4.86	4.93	4.76	5.01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설 운영	4.80	4.79	4.88	4.69	4.90	4.68	4.90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4.79	4.90	4.72	4.62	4.92	4.89	4.68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지원	4.66	4.65	4.73	4.72	4.68	4.65	4.71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4.71	4.74	4.73	4.72	4.69	4.53	4.92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육	4.75	4.91	4.62	4.53	4.74	4.58	4.96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4.74	4.84	4.71	4.49	4.80	4.69	4.84
외국인 근로자 센터 운영	4.84	4.97	4.76	4.73	4.83	4.74	4.94
글로벌센터, 글로벌 빌리지 운영	4.58	4.69	4.56	4.53	4.70	4.63	4.67
외국문화 체험, 다문화공연, 행사	4.56	4.52	4.67	4.59	4.51	4.59	4.65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4.46	4.46	4.54	4.65	4.43	4.52	4.53
다문화 축제	4.59	4.59	4.64	4.60	4.58	4.56	4.68

※ 측정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은 것임(①전혀 필요없다, ②필요없다, ③약간 필요없다, ④약간 필요하다, ⑤필요하다, ⑥매우 필요하다)

이후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남권의 4개구 외국계 주민 중 중국 동포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상 별 지원에 대해 동포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그 뒤를 한국인의 인식개선에 대한 요구가 잇고 있다. 결국 외국계 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당사자 집단으로서의 자신들과 함께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가야함을 역설한다. 특이한 점은 답변자 중 유학생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율 또한 결혼이주민에 비해 적은 유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구동포로 그간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 정책”으로 비춰진 만큼 해당 정책에 포함될 수 없었던 데 응답자들의 집단적인 항의



의 표현이자, 동포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주자인 유학생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27】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 우선 순위 희망(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구 분	결혼 이민자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이주 노동자 지원	동포 지원	유학생 지원	한국인 인식개선 인식증진	글로벌 다문화센터 다문화 기반 구축	기타	
전체	20 9.2	33 15.2	25 11.5	77 35.5	24 11.1	45 20.7	25 11.5	17 7.8	
성별	여	11 10.5	18 17.1	11 10.5	22 21.0	14 13.3	24 22.9	16 15.2	13 12.4
	남	9 8.0	15 13.4	14 12.5	55 49.1	10 8.9	21 18.8	9 8.0	4 3.6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누구의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앙 정부나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 어느 한 부분의 역할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답이 우세한 가운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3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앙정부, 민간단체 단독 주도에 대한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이 중앙정부 단독 추진에 호응이 가장 낮은 반면, 남성은 민간단체 주도에 대한 호응이 가장 낮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혹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표 IV-28】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 추진 역할 인식(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구 분	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협력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협력	민간단체 주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협력	
전체	24 11.1	46 21.2	31 14.3	23 10.6	99 45.6	
성별	여	10 9.4	20 18.9	11 10.4	14 13.2	54 50.9
	남	14 12.6	26 23.4	20 18.0	9 8.1	45 40.5

이주민들이 지역 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은 인권 및 사회 인식의 변화라는 점에서 전주 한국인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한국인들의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4개구 거주 응답자 다수에게서 나왔으며, 이제까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언어나 문화적응에 집중해 온 데 반해 경제적 기반조성에 대한 요구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응답 성향에서 남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않으나 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해 여성이 보다 큰 필요성을 느끼는 데 반해 남성은 그 외의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여성보다는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표 IV-29】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다중):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구분		언어 및 문화적응	인권 및 사회인식 변화	경제적 기반조성	자녀 양육지원	기타
전체		50 22.9	95 43.6	49 22.5	40 18.3	11 5.0
성별	여	22 20.8	43 40.6	23 21.7	23 21.7	8 7.5
	남	28 25.0	52 46.4	26 23.2	17 15.2	3 2.7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답변은 남녀 간에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임금체불 금지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응답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남녀 간 직업 분포가 다른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30】 서울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사항(다중응답): 4개구 외국계 주민

(단위: 명, %)

구 분		임금체불 금지	고용주의 부당행위 처벌 강화	산재보험, 의료혜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고용 허가제 문제	기타
전체		81 37.3	57 26.3	44 20.3	68 31.3	32 14.7	16 7.4
성 별	여	33 31.1	24 22.6	21 19.8	40 37.7	12 11.3	10 9.4
	남	48 43.2	33 29.7	23 20.7	28 25.2	20 18.0	6 5.4

체불 근로자 921명과 사업주 516명을 대상으로 한 체불임금 실태 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12)⁴²⁾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직종 두 가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 이주민의 직업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중복 응답을 허용한 해당 조사에서 임금체불자의 75.9%가 단순노무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 선포<IV-19> 조사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에서 남성은 생산직·단순 노무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서비스, 자영업, 사무관리직, 생산·단순 노무직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 특성상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임금이 체불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이 그대로 정책 요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정책 요구가 개인의 경험과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은 ‘큰 목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들’에까지 귀 기울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3.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민 간 교류의 가능성과 여성

앞선 전주 한국인들이 외국계 주민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거나 인사를 하고 지내는 주민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외국계 주민이 한국인 주민과 대화를 하는 데 문제가

42) 체불임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체 561명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이 중 76.8%가 근로감독관이었고 22.8%가 민간조정관이었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 한국인이 있다는 응답도 인사를 하고 지내는 외국계 주민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주민의 경우 집을 임대하는 과정 등에서 집주인 등과의 접촉이 필연적이나, 선주민의 경우는 반드시 외국계 주민과 접촉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이나 생활 정보 등을 한국인 주민에게서 얻는다고 하는 답변이 인사를 하고 지내는 주민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낮은 결과에서도 증명된다.

한국인 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와의 차이는 이뿐이 아니다. 한국인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문항에서 남성의 응답이 많았지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외국인 주민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여성의 응답이 많아 두 질문의 응답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였다면, 외국계 주민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즉 외국계 주민은 ‘대화에 문제가 없다’는 항목에서 여성이 미미하게나마 보다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인사를 하고 지내는 한국인이 있다’는 항목에서는 남성의 응답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나 지역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정적인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한국인 주민들로부터 얻는다’는 항목에서는 여성이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의논할 수 있는 한국인 주민이 있다는 응답은 다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생활정보를 한국인으로부터 얻는다는 답보다 낮아 한국인 주민과 외국계 여성주민의 관계가 깊이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한국인 점주에게 고용되거나, 한국인이든 외국계 주민이든 똑같은 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로서의 처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크지 않다.

1) 주민 간 교류의 가능성

앞선 조사 분석에서 드러난 분석 결과는 외국계 주민과 어울려 사는 현실에 대해 이미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당위성의 주장과 현실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주로 이주민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이었다면 앞으로의 다

문화정책에서는 한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동 지역의 한국인 주민 또한 역시 외국계 주민의 언어 및 문화적응 못지않게 인권보장 및 한국인의 의식 변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선 표<Ⅳ-14>를 성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주민과의 교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은 남성주민보다는 여성주민으로부터 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은 외국계 주민의 거주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주민 상호간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한국인 주민의 응답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 중 중국동포가 다수임에도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 동포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동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상별로 가장 적었다. 이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김이선, 2012)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아버지가 한국인일 것(91.8%) >어머니가 한국인일 것(89%) >조상이 한국인일 것(89%) >한국에서 출생했을 것(84.2%) 순의 중요도를 답한 서울시민의 응답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계 주민 내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한국인 주민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보다 크게 주장하는 것은 한국사회 다문화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계 주민이 중국동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인 주민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람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은 금방 나온다. 다만 여전히 국가가 원하는 특정한 이들에게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주민이 있다면 스스로 요구하는 정책인 ‘한국인 주민의 인식 개선 및 증진’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인 주민은 기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만, 전반적으로 외국계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기초질서 교육과 자녀 교육문제 개선 필요성에 가장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정책에서 전반적인 시민 인식교육, 자녀세대를 고려한 정책 그리고 한국인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주

민정책 요구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보다 강한 의견을 피력하는 바 지역정책이 여성 주민의 요구를 보다 섬세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계 주민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국인 주민과 접촉의 면이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밀집지역 내에서 선주민인 한국인과 이주민인 외국계 주민 사이의 교류가 실제 없을지라도 함께 식당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지역 내 공동 활동이 활발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외국계 주민들과의 친목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식당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계기가 마련된다면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적극적인 만남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밀집지역 내 주민 교류 및 협력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외국계 주민은 지역 내에서 한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모임 참여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8%가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그나마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한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모임은 취미관련 동호회, 종교 모임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취미 관련 동호회 이외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한국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저조하다. 여성은 다문화센터 모임, 자녀 학부모 모임, 학교 모임을 통해서도 한국인과의 접촉이 남성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되고 있다.

【표 IV-31】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현황(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결혼 이민자 모임	다문화 센터 모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학교 모임	종교 모임	취미 관련 동호회	학습관련 모임	자녀 학부모 모임	기타	없음
전체	7 3.3	11 5.1	6 2.8	13 6.0	19 8.8	23 10.7	8 3.7	9 4.2	14 6.5	135 62.8
성별	여	3 2.8	8 7.5	2 1.9	6 5.7	12 11.3	4 3.8	7 6.6	8 7.5	61 57.5
	남	4 3.7	3 2.8	4 3.7	7 6.4	7 6.4	11 10.1	4 3.7	2 5.5	74 67.9

지역 내에서 외국계 주민과의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

인 주민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였으며 밀집지역 내의 외국계 주민은 정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한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 <표Ⅳ-2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여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이들이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나고 함께 할 여지가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의 문제도 남는다.

서남권 4개구 외국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외국계 주민 스스로 특정 기능에 집중한 지원보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지원으로서 시민인식개선, 인권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 모임 활성화 지원에 대한 요구가 한국어 교육이나, 통역 서비스 지원, 육아 서비스 지원보다 높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자조적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민들의 요구는 이미 정책의 범주가 지역민 전반으로 넓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정책이 ‘선주 한국인’이 누락된 다문화정책이었다면 지역으로부터 요구되는 정책은 선주민이 포함되는 동시에 이주민들의 자조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이주민으로부터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인 주민에게 원하는 만큼이나 한국인 주민들도 새로운 사회에 맞는 시민으로 적응해 갈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으며, 그 시도가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대상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계 주민의 인식과 한국 주민의 인식에서 다소간 엇갈림이 관찰된다. 조사가 진행된 서남권의 4개구가 특히 외국계 주민 중에서도 중국동포의 거주 비율이 높고, 실제 외국계 주민 중 중국동포의 비중이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계 주민들의 응답 중 동포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비중이 35.5% <표Ⅳ-2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납득할 만하나, 앞서 한국인 주민들은 동포 지원에 방점을 두지는 않았다. 이 문제 또한 접촉의 면이 넓혀지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외국계 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주민과 선주 한국인의 삶과 인식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의 문제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다문화 이해도에 대한 젠더 분석이라고 하는 이 연구의 첫 질문이다.

한국인 주민들의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인식 및 관계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이다. 외국인의 거주와 관계 맺기에 대해 여성의 응답은 남성에 비해 호응도가 낮으며 특히 남녀 공히 자녀의 배우자나 본인의 배우자 등 가족으로 외국계 주민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데 대해 보다 인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한 남녀 모두 외국계 주민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동네에 사는 데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남성의 경우 나라>동네>옆집 순으로 외국계 주민의 거주에 대한 허용성이 낮아지는 데 반해 여성은 나라>옆집>동네의 순의 거주 허용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자 여성과 남성의 지역 내 활동 시간에서의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밖으로 출퇴근을 하는 남성의 경우 옆집 사람과의 접촉면이 다른 이웃에 비해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반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긴 여성에게는 옆집과 동네의 의미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민이 이웃으로 외국계 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남성보다 여성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이 외국계 주민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줄고 있다는 위협은 단순히 옆집 사람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기보다는 지역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인 것이다.

지역의 외국계 주민 거주에 대한 평가는 실제 거주 현황과 차이를 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지역 내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자치구 평균 이상이지만 한국 선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사 의향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의 답을 하고 있어 선주 한국인들이 외국계 주민들의 거주로 인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지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 현장 조사에서는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은 떠날 수 없거나,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로 이사 의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계 주민이 많이 거주한다는 항목에 보다 더 그렇다고 느낀 여성들이 이사 의향 또한 남성에 비해 높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계 주민 거주가 동네의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응답에 비추어 외국계 주민이 많이 거주한다고 인식하는 측에서 보다 강한 이사 의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사 의향을 강하게 느끼는 측에서 지역발전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항목에 호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민으로서의 정주 의사가 그대로 지역 정책에 대한 호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인식의 차이가 빚어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외국계 주민의 유입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식한다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잘 살아가기 위한 발전계획에 대해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주민의 평가는 외국계 주민이 많아져서 동네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 주민들의 평가가 더 낮다. 전반적으로 외국계 주민이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임대비가 높아졌다는 항목에서 여성들은 그렇다고 하는 답변이 남성에 비해 더 많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상권이 살고 임대비가 높아졌다는 항목에서 여성에 비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에도 지역민의 수입이 많아졌다는 항목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지역의 경제적 이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외국인 주민의 답변에서 치안이 잘되어 있다는 항목의 평균 4.08점이었던 데 반해 한국인 주민은 동일 항목에 대해 2.69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⁴³⁾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을 둘러싼 문제의 중심에 안전이 있다고 볼

43) 밀집 동 외국인 주민의 전체 평균은 4.08, 여성, 4.07, 남성 4.10으로 외국계 주민 또한 안전에 대한 평균점은 남성이 높았고, 정규 교육과정 중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평균은 3.89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한국인 주민의 응답은 자녀가 정규교육과정 중에 있는 경우 평균 2.90, 저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경우 2.64점으로 외국계 주민의 답변이 자녀 변수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때 안전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우선시 되는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함을 시사한다.

밀집지역 내에서 이주민이든 한국인이든 모두 여성이 지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 주민에 비해 주민 상호 간 접촉의 면은 오히려 여성 주민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다는 면에서도 다양한 접촉의 면이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으로서의 공동의 이슈 발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한 지역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들은 현재 일고 있는 변화에 대해 지역 전체의 움직임으로 통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순히 ‘옆집’을 문제 삼는 남성과 달리 옆집을 수용함으로써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계 주민의 경우 현재의 거주지의 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 중 특히 여성과 남성 간의 답변 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데 불편이 없다”에 이어 “직장과 가깝다”는 응답이다. 해당 응답 평균값이 남녀 간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중국 동포가 중심이 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 지역에 중국 식당 등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해당 식당 노동자로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이러한 응답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있다. 식당 노동자의 다수가 중국동포 여성임을 감안할 때 외국계 주민 중 여성은 해당 지역이 직장과 가깝다는 응답을 할 당사자인 것이다.

한국 선주민과의 교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특히 높은 지역에 사는 외국계 여성주민은 한국인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만큼, 생활정보, 자녀 교육 관련 정보를 한국인 주민으로부터 얻는다는 답변 평균이 남성에 비해 높다. 이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주민 간 접촉면이 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지점이자, 여성들의 접촉이 지역에서 공동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지점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이용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이용 상의 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 만한 자산을 갖추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여성

은 추상적 수준의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항목보다는 오히려 고용이나 집주인 관계 등 구체적 장면에서의 문제의식이 더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주민 중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문제의식이 보다 구체적이고 한국인 주민들과의 교류가 남성에 비해 활발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역의 변화를 이끌 여지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어려움은 정책에 반영되기 용이하며, 그것이 곧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에도 성별에 따른 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접근들이 있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민 전체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역 정책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을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주민 조사에서 또한 드러나고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제까지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를 중심으로 외국계 주민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485명⁴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주 한국인과 외국계 주민들이 같은 공간을 점유하며 살고 있지만 어떻게 다르게 서로를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이 교류하며 통합해 갈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설문 결과에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여성주민의 다른 이해와 요구를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서남권 4개구 주민들은 추상적 수준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으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 온 외국계 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풍습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 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지만, 외국계 주민이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시민은 ‘먼 곳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세계인이지만, ‘안으로 들어 온 외국계 주민’에게는 야박한 이웃인 것이다.

44) 한국인 주민 262명(여성 123명, 남성 139명), 외국계 주민 219명(여성 107명, 남성 112명)

둘째,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과 직접 접촉이 더 잦은 주민은 여성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외국인 주민이 있다거나 하는 교류 차원에서도,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불편한 장면인 음주, 폭력 등의 장면도 여성이 더 자주 목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따라서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인 주민은 외국계 주민이 많아져서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보는 한편으로 외국계 주민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외국인 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고, 외국인 주민이 한국인 주민 못지않게 세금을 납부하고, 공과금 등을 기한에 맞추어 낸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의 모임 등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기회가 되면 모임에 참여할 의지는 높다. 4개구 거주 한국인 주민은 주변의 외국계 주민을 생산직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여성, 남성 모두에게서 많이 나왔으며, 여성은 이웃주민으로 본다는 응답이 뒤를 이은 반면 남성은 생산직노동자>유학생>전문직노동자>결혼이주자에 이어 이웃이라는 응답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외국계 주민을 다른 무엇도 아닌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 이웃으로 지역 활동에 나설 가능성 또한 여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섯째, 서남권 4개구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은 기존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인지도(여성 18%, 남성 11%)는 남성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았던 여성들은 필요 정책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적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한편, 이주 목적별 체류자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주 한국인들은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포지원 필요성에 대한 호응이 낮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과 달리 동포라고 하는 범주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체류지위를 가르는 용어로 쓰이는 현실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던 용어 ‘동포’가 갖는 의미가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외국계 주민의 다수는 중국동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결혼이주자, 유학생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이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외국계 주민이 몰려든다는 통념과 달리 외국계 주민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다. 중국동포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밀집동 지역은 게토라기보다는 밀집지로서 기능한다. 여성주민들의 경우 특별히 일터가 가깝다는 응답도 있어 지역 내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짐작케 하였다.

둘째, 외국인 주민의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특징은 남성의 경우 대화나 인사를 하고 지내는 한국인 주민은 여성에 비해 많은 듯하나, 생활에 실질적인 접촉이라 할 만한 생활정보, 교육보육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인에게 얻는 쪽은 오히려 여성이 더 많다. 즉 여성들의 접촉이 훨씬 실질적이고 밀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민들이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데, 특히 여성 주민에게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지역 내 선·이주민 공동 모임 등에 대해서는 참여도는 낮으며, 생활기반 시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제외한 각종 연금이나, 산재교육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나 집세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는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질서 등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즉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넷째, 한국인 주민들로부터 외국인 다문화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외국계 주민들은 여전히 정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동 지역에서 더 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동포>한국인 인식개선>다문화가족 자녀>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민자 순으로 응답자 대다수가 중국동포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섯째,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주민들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차별’이라는 일반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이 ‘차별 당한다’는 응답을 많이 한 반면 실제 생활 장면에서의 문제 즉 고용, 집주인과의 관계, 주민 프로그램, 이용시설 등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에서 외국계 주민 밀집도가 보다 높은 지역에서 지역 이미지, 안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며 이는 여성 주민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한국인 주민 여성은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어느 한 이웃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전반의 문제로 통찰하고 있으며, 외국계 주민여성은 추상적인 문제의식이 아닌 생활 장면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모두 서로 함께 하는 모임을 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현안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다른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지역 활동에 나설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주민의 경우 저연령대의 자녀를 둔 집단을 중심으로 외국계 주민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자녀’라고 하는 변수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여지를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연결된 자녀세대 논의에 여성이 보다 참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 외국계 주민은 정규교육과정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단위 이주자의 경우에 지역과 보다 더 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삶의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엇갈리고 있는 데에는 결국 자녀 양육이나 교육의 1차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성역할 구분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소통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현실의 문제에서부터 서서히 그 실마리를 찾아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성’의 문제나, 이주민 혹은 선주민 일방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V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주민의 정책 요구

1.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정책 요구 분석을 위한 FGI
2. 한국인 주민이 보는 지역실태와 문제의식
3. 외국계 주민이 보는 지역실태와 문제의식
4. 지역 주민 간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
5. 요약 및 시사점 : 지역의 변화와 여성

V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주민의 정책 요구

1.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정책 요구 분석을 위한 FGI

이 장은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어떠한 정책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FGI 결과로 구성되었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남권 4개구 중 특히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동 거주민과 다문화 마을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계 주민은 해당 지역 거주 중국 동포,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으로 체류자격별 구성을 다양화하여 밀집지역 거주민으로서 어떤 다른 정책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조사방식 및 참여자 선정

FGI는 설문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시 접촉한 거주민 중 구술성이 뛰어난 지역민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첫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문화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이후 조사에 참여했던 이들로부터 지역민을 소개받고, 이들을 통해 조사 참여자를 확장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부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조사 참여자를 추천받기도 하였다. 중국 동포들의 경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동포 유학생을 통해 지역 내 거주 유학생들을 섭외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참여자 특징

FGI조사는 2014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1차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어 2014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중국 동포 및 유학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남권 4개구 중 특히 외국계 주민의 밀집도가 높은 영등포구 대림2동, 구로구 가리봉동, 관악구 신림동 거주자와 금천구, 관악구 다문화마을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 선주 한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지 10년 이상의 주민, 해당 지역 내에서 외국계 주민 자녀의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표 V-1 】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관련 FGI 조사 개요

구분	참여자	참여인원 및 구성	실시일
1차	구로구 가리봉동 거주 한국인 상인	4인(남3, 여1)	2014.06.19.
2차	금천구 다문화마을공동체 참여 한국인	3인(남2, 여1)	2014.07.04
3차	금천구 거주 외국계 주민	3인(여3)	2014.07.04.
4차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외국계 주민	5인(여5)	2014.07.04.
5차	영등포구 대림동 거주 한국인	5인(여5)	2014.07.08.
6차	관악구 거주민	여3인(이주민2, 한국인1)	2014.07.09.
7차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	5인(여5)	2014.07.21.
8차	서남권 중국 동포단체 참여 활동가	5인(여5)	2014.09.19
9차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	5인(여3, 남2)	2014.09.23
10차	서남권 거주 유학생 여성	5인(중국동포1, 중국인4)	2014.10.10

외국계 주민에 대해서는 서남권의 특성을 대표하는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 지역 내 다양한 이주민을 FGI 참여자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계 동포’들이 지역 내 외국계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체류 자격의 거주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다양한 이주민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주자이지만 중국동포인 주민, 유학생 이면서 중국 동포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 동포 밀집지역이 주는 ‘동포 사회’

와 ‘이주민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첫 현장조사 시 접촉한 한국인의 경우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남성 3인과 여성1인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금천구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의 주도적인 참여자가 남성인 관계로 이들이 조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외국계 주민의 경우 밀집지역 방문 조사 시 만난 주민이 포함되는 한편, 다문화마을 공동체 참여자들을 통해 소개 받았으며, 유학생의 경우, 중국동포 단체 활동 유학생을 통해 특정 학교의 유학생회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이 FGI에 참여하였다.

그 외 참여자 중 중국동포 남성 2명을 제외하면 전주 한국인, 외국계 주민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 주민의 경우 2014년 현재, 관악구를 제외한 3개구는 인구 구성 상 남성이 다수이고, 외국계 주민의 경우 4개구 모두 여성 주민의 규모가 남성 주민보다 크다. 단 중국 동포에 한정해서 볼 때에는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우 여성주민의 규모가 남성 주민에 비해 약간 적다는 특성이 있다. 조사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것은 지역 내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과 외국계 주민의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로 조사 참여자 구성을 고려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조사 참여자 중 영문 대문자로 표기된 사례는 한국인, 가, 나, 다, 라 순 표기자는 외국계 주민이다.

표 V-2 | FGI 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거주지	성별	연령	지역 거주기간	비고
A	구로 가리봉	여	50대	30여년	소규모 식당 운영
B	구로 가리봉	남	50대	50여년	소규모 유리가게 운영
C	구로 가리봉	남	60대	60여년	임대업, 이주예정
D	구로 가리봉	남	60대	60여년	중대규모 그릇가게 운영
E	금천 가산동	남	50대	17년	다문화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
F	금천 가산동	남	50대	14년	다문화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
G	금천 가산동	여	50대	30년	다문화마을공동체, 자원봉사단 활동
H	영등포 대림	여	40대	16년	결혼 후 거주, 지역 내 19대째 거주, 초1, 고 1
I	영등포 대림	여	30대	10년	초등자녀 2
J	영등포 대림	여	30대	10년	초등자녀 2명

구분	거주지	성별	연령	지역 거주기간	비고
K	영등포 대림	여	40대	18년	건물 임대업, 초등 자녀2
L	영등포 대림	여	40대	20년	초등자녀 2
M	관악 신림동	여	40대	10년	초등학교 자녀 1, 직장인
N	영등포 대림	여	40대	20년	지역 내 초등학교 학부모, 임대업
O	영등포 대림	여	30대	14년	결혼 이래 거주, 지역 내 초등학교 학부모
P	영등포 대림	여	30대	20년	고교시절부터 거주, 지역 내 초등학교 학부모
Q	영등포 대림	여	40대	40여년	출생 후 계속 거주, 지역 내 초등학교 학부모
R	영등포 대림	여	40대	13년	지역 내 초등학교 학부모, 자동차수리업
가	금천 가산동	여	40대	13년	결혼이주, 일본 출신, 자녀5명
나	금천 독산동	여	30대	9년	결혼이주, 베트남 출신, 자녀 1명
다	금천 가산동	여	40대	7년	남편 취업이주, 콩고 출신, 자녀 2명
라	금천 독산동	여	20대	5년	결혼이주, 베트남 출신
마	구로 고척동	여	30대	11년	결혼이주, 몽골 출신, 자녀1명
바	구로 개봉동	여	40대	17년	결혼이주, 중국동포, 자녀2명
사	관악 신림동	여	40대	11년	결혼이주, 중국동포, 다문화마을공동체, 자녀1명
아	영등포 대림	여	30대	7년	가족이주, 중국 동포, 영주권자, 자녀1명
자	관악 신림	여	30대	5년	유학 중 한국남성과 결혼, 중국 동포, 자녀 2명
차	관악 신림	여	40대	3년	유학 중 한국 남성과 결혼, 일본, 자녀 1명
차	영등포 대림	남	70대	15년	동작구 거주 경력10여년, 2014년 초 대림 이주, 한국국적회복 중국동포, 딸 2 한국인과 결혼
카	영등포 대림	남	50대	8년	1995년 입국 시 광진구 거주, 2006년 재입국이후 대림 거주
타	영등포 대림	여	60대	15년	2014년 초 대림 이주, 사례 '자'와 부부
파	구로 가리봉	여	40대	10년	중고생 자녀 동거, 중국동포부모, 형제 다수 한국 거주, 문화예술 활동
하	구로 구로동	여	40대	8년	결혼이주, 중국동포, 자녀2(18세, 16세)
가-1	구로 구로동	여	40대	12년	가족이주, 동포여성위원회, 여행사 운영
나-1	구로 구로동	여	30대	11년	결혼이주, 동포여성위원회, 여행사 직원
다-1	구로 구로동	여	30대	5년	결혼이주, 동포여성위원회, 중랑거주
라-1	구로 구로동	여	40대	15년	91년 최초입국, 94년 국적 취득, 가족이주
마-1	금천 가산동	여	50대	11년	가족이주, 동포여성위원회, 다문화마을 공동체
바-1	관악 신림동	여	20대	1년	중국 동포, 대학원생, 1년간 어학연수 후 진학
사-1	관악 신림동	여	20대	1달	중국인(한족), 대학원생, 한국어교육전공
아-1	관악 신림동	여	20대	5년	중국인(한족), 대학생, 1년 휴학 경력
자-1	관악 신림동	여	20대	5년	중국인(한족) 대학생, 마지막 학기 재학 중
차-1	관악 신림동	여	20대	9달	중국인(한족) 대학원생, 영국 유학 경험

2. 한국인 주민이 보는 지역실태와 문제의식

밀집지역 거주민 설문조사 결과, 밀집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 거주민보다 더 상호 이해의 폭이 넓거나 서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활동이 많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실제 거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존과 상생으로 가기 위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 보고자 한다.

1) 주민구성의 변화와 한국인 주민의 문제의식

조사 참여자 중에는 결혼과 함께 대림동에 살기 시작했지만, 남편을 포함한 시가는 대림동에서 19대를 이어 살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 자라고, 결혼해서 30년 이상 대림동에 살고 있는 여성도 있다. 또한 가리봉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현재도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국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사회가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스스로 다수자 중의 1명에서 소수민으로 변화된 자신의 위치를 절감하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밖에 보세요. 전부 중국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장사 잘 되요. 우리 집은 물세도 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살아야 되냐고, 그냥 다 보내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장사 이십년 했어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산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져야 하냐고. (사례 A, 가리봉 한국인 영세상인, 여)

인터뷰에 응해 준 사례 A는 동포타운으로 불리는 가리봉동에서 줄곧 음식업을 해 온 분이다. 주변이 온통 중국계 음식점으로 둘러싸인 데 반해 업종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즐겨 먹을 만한 백반과 해물탕 중심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음식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례자의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일반적인 한국인 대상의 음식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해당 지역에 음식을 먹

으러 찾아와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나, 그 지역의 거주 한국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동포 거리로 소문난 지역에 굳이 일반적인 백반 메뉴를 먹기 위해 찾는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지역 내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이들과 지역을 주거지로 하는 이들의 불만 중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지역 상권이 중국계 동포 위주로 형성되어 선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죽어간다는 데 있다.

시장에 가면요. 한국 식재료가 없어서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식당도 없고 다 파는 거, 시장에 가면 거의 다 중국 음식점이랑 중국 식재료랑 이런 거가 많아요. (사례 N, 대림동 주민)

즉, 먼저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선주민이 아닌 이주민 위주로 부여되어 간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대다수가 한국인이었을 때 느낄 수 없던 불편이 중국계 동포 밀집지역으로 변화되면서 생활의 문제가 되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의 변화과정은 외국계 주민의 “유입”과 함께 필연적으로 한국인 주민의 “떠남”을 동반하였고, 떠난 이들의 이야기는 남아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소외감을 심어 주기도 한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면 결국 떠나고 싶어 하는 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난 사람과 바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친한 친구 엄마들 전부 다 이사 갔잖아. 가끔 한 번씩 오면 내가 이런 데서 살았어? 진짜 후졌다. 그리고 친구한테 창피해.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와서 보면 무섭다. 다들 무섭다고 해요. 전에 여기 살았었는데도, 우리 엄마도 이런 얘기해. 왜 그렇게 사냐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어디 갔다가 세월이 흘러서 진짜 많아졌잖아. 한 번씩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 (사례 Q, 대림동 초등학교 학부모)

한때는 이웃으로 살았던 이들이 지역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나뉘게 되고, 떠나지 않고, 떠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떠난 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지역에 대한 낙인으로 인식된다.

지역의 한국인 주민들이 갖는 문제의식은 단순히 살고 있는 곳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데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민 구성의 변화로 인한 정책의 변화 내지 혜택이 선주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에 보다 큰 불만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원 자체가 학교에서 그, 다문화 지정된(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중국 동포) 애들도 이쪽으로 많이 와요.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보조를 받는 거지. 지원금을 받아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을 받아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애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 쪽 애들한테도,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개네들 위주로 쓰기는 하는데 그게 우리 애들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 공생을 하는 지원이 아니라, 그 쪽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쪽 아이들을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만 만든 거죠. (사례 L, 초등학교 학부모)

위 사례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가진 한계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의 구성원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주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에 이주민이라고 하는 다른 집단이 존재하게 되며 다문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급격히 제기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이주민뿐 아니라 선주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특정 이주민 위주로 펼쳐질 때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선주 한국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자에서 소수자로 스스로의 처지가 역전되는 경험을 해 온 만큼 심리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진작할 수 있다.

솔직히 원래부터 이 동네가 좋은 동네였냐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옛날부터 이 동네가 메인은 아니었거든. 이제 메인이 되긴 했네. 그런데 그게 자랑스럽냐. 난 아주 이제 이 동네 산다는 얘기하는 게 쪽 팔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떠나고 싶지. 장사도 안 되고 동네는 갈수록 개판이 되고... (사례 B, 가리봉시장 상인, 남)



서울의 대표적 중국 동포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대림동이나 가리봉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중국동포 밀집지역으로 이름을 얻기 전에도 주거 환경이나 기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름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⁴⁵⁾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을 보다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에는 지역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작아진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지역 거주민의 대다수가 한국인일 때에는 그들이 고객이 되어 사례 B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들은 사례 B의 고객층이 아니며, 오히려 동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집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의 확산

이주민이라고 해도 처한 입장이 다르고 서울 생활에서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외국계 주민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사는 지역, 출신 국적에 따라 다른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남권을 중심으로 밀집 거주 양상을 보이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인들과는 다른 인식과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은 개인의 특정 경험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단속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더러 붙잡아도 경찰이 신분증 내놔라 경찰이 막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게 내가 이거 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안낼 거라고. 그러니까 안 내면 경찰서 가야 된다고, 어찌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이 법에서 일단 걸

45) III장에서 살펴 본 밀집지역 형성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들이 애초 공단 배후지로서 저렴한 주택지로서 기능해 왔음을 논의한 바 있다.

46) 서래마을의 형성 주체인 한국인, 프랑스인 등에 비해 조선족 마을의 형성 주체인 한국인, 중국 동포들은 매우 열악한 자원을 가진 주체들이다. 즉 그들이 가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원은 그들의 아비투스(habitus)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아비투스에 따라 한국 사회의 인식은 매우 계급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지자체의 행위를 통해 매우 뚜렷하게 보여준다. 서래마을의 지자체는 서래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프랑스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마을의 지자체는 재개발을 통해 조선족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그곳에 새로운 공간적 특성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한준섭, 2012: 78).

려서 아 죄송합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잖아 그죠 기본으로. 근데 그 분은 내가 이 벌금을 안내면 어쩔 건데?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사례 K, 대림 주민)

중국 동포가 기초적인 질서를 어기거나 공권력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 즉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확장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실제 접촉해 보지 않고도 공과금, 임대료 등을 잘 내지 않는다는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의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사실은 왜 싫어 하나면 근본적으로는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 술 먹고 다니면서 와서 싹박질 해~ (웃음) 쓰레기 아무데나 투척하지. 이 처음에 온 그 우리 그 동포들은 소위 엘리트층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후에는 거의 교육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 (사례 E, 금천구 다문화마을공동체, 남)

술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음주행위가 싸움과 쓰레기 무단투척이라는 이미지로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한국인 주민들 사이에 최근에 입국한 서남권 거주 중국 동포들에 대한 선입견이 폭넓게 퍼져 있다는 점은 FGI 전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중국동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은 인식을 가졌었어요. 그 후에 이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술 먹고 맨날 그런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게 이제 여기에 그 인식이 고착화 돼 가는 거지. 굳어 버리는 거야 이제 인식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가 바로 여기에 있으면 그 앞에 쉼터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낮부터 술 먹고 그래가지고 다 치워 놓으면 따악~ 그러면은 동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러지 마십쇼. 그래가지고 한번은 이제 싸우면 112에 신고하고 그냥 데려가라고 (사례 F, 금천구 다문화마을공동체, 남)

술을 마시고 기초질서를 어기는 중국 동포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이라는 논리의 전개는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역논리로도 언급된

다. 현재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데에 중국동포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주민들이 갖는 문제의식 안에 거주 지역을 함께하는 이주민, 중국동포에 대해 같은 주민이라는 고려가 있는지 되짚어볼 문제이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인 주민의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 온 침범자와 같은 이미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외국인 때문에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더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구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인제 어머니들의 그런 그런 군집되어 있는 데 같거든요. ○○초등학교는 작년에 76명이 입학해가지고 17명인가 반 구성을 세 개 했는데, 17명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사례 G, 금천구 다문화마을공동체)

서울시민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4년 정도 거주하며 전·월세 등 자기 집이 아닌 경우는 3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⁷⁾ 따라서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드나듦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즉 이사를 온 다른 주민 때문에 먼저 살고 있던 주민의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한국인 주민 간에는 제기되지 않던 문제이자, 제기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창문을 열어 놓고 싶어도 우리는 시장통이니까 열어놓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식당이 없었다가 다시 오픈해가지고 밤에 잘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서, 밑에 1층이 양꼬치 집인데 거기는 유난히 늦게까지 열더라구요. 한 신가? 어쩔 땀 두시, 세 시까지 여는 것도 봤어요, 내가. 그러면은, 밖에서 여름이다 보니까 밖에 피잖아요, 자리를. 밖에서 떠드니까 그게 창문으로 다 들리는 거죠. 엄청 시끄럽고,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지... (사례 I, 대림 주민)

사회적 약자와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은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수자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가 수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47)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http://www.si.re.kr/node/49600>)

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서울의 중국 동포로 대표되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사례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도 소외를 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주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좀 보복한다고 할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미지가 다 엄마들이 좋은데 흑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약간은. (사례 0, 대림 초등생 어머니)

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볼 때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내에서 중국 동포는 수적으로는 다수이나 소수자이다. 또한 전주 한국인은 수적으로 소수이면서 지역 내에서 위축감을 갖고 있지만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해당 공간 내에서 한국인 주민은 이주민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적 열세에 처해 있다는 데 따른 불안과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현재의 불편의 원인을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동포로 돌리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3)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 집단적 불신

물리적으로 자주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고, 그 존재감을 느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이해가 깊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이미 설문조사나 앞선 주민들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주 본다는 것이 이해와 교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층위의 이주민을 만나면서 집단으로서의 그들이 개인 ‘이웃’으로 재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얼마 전에 나 같이 순찰 돌았던 할머니가 연희동에 살았는데 왜 이 쪽으로 왔냐면 거기에서는 중국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까 벌써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가 중국에서 왔어도 완전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은 또 학교 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딸 내미가 일을 하니까 할머니가 뭐 정문 맞이 부터 안전 유지 이거 도는 거 다 봉사를 할머니가 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도 환영을 하죠, 그냥. 근데 진짜 무질서한 분들이 아니면, 저도 다문화가 어차피 세계화 시대고 중국이 또 저희도 중국어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이런 것만 조금 나아진다면. (사례 P, 대림 초등생 어머니)

‘외국계 주민, 중국동포와의 교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활동은 아니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로 인해 중국동포와 함께 활동을 해본 사례자는 중국동포도 얼마든지 함께 활동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흔히 통일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동질성의 회복이 선행과제라고 지적되는데(전미영, 2006), 외국계 주민과의 통합 또한 그리 다른 문제는 아니다.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함께 함으로써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긍정적인 경험 끝에 외국계 주민들과의 공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손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말마따나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도 그 사람들을 손님을 남자 분들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들이 또 뭐 했던 것처럼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 매너가 좋은 사람도 많아요. 일을 해놓고도 한국 사람들은 어 조금 이따 줄게 뭐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야. 자기네 있으면 딱 딱딱딱 주는 사람들도 이게 맺고 끊는 것도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사례 R, 대림 초등생 어머니)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한국인 주민보다 더 나은 외국계 주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한 이미지, 특정인과의 경험으로 인해 굳어진 선입견은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균열을 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한 두 번 중국식당 간 적은 있죠. 향신료만 빼면 다 맞아. 왜냐면 탕수육 있잖아. 그거 꽤바로우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 반애 중국 엄마가 식당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 입맛에

맛게 살라 살라 해갖고 오는데, 뭐 새우튀김 같은 거 그리고 그런 향신료는 맞춰서 안 넣는 것 같애. 두부하고 오이하고 뭐 체나물인가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것도 새콤달콤 맛있어. 몰라서 못 먹어. (사례 O, 대림 초등생 어머니)

식당이 많이 몰려 있고, 그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직접 식당을 이용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받는 등의 경험을 통해 이용해 보지 않았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문제는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목소리로 나오는 데 반해 이해의 목소리는 개인 차원에 묻혀 있다는 점이다.

골목에 뭉쳐서 있으면 이 사람들이 대림역이나 이룬데, 언젠가 한 번 대림역을 갈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나 무슨 전쟁난 줄 알았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던지. 한 2-3년 전만 해도 더 심했었는데 요즘 좀 덜 하긴 해요. 그래도 뭉쳐는 있어. 전에처럼 4-50명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직업소개소에서 그날그날 일이 있어서 일용직이라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것도 무섭더라니까요. (사례 J, 대림 초등생 어머니)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해의 가능성은 일반적인 ‘이주민’, ‘중국동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발현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느낌을 주었던 이들은 단지 특수한 어떤 사람이었을 뿐 전체로서의 이주민 내지 중국동포 등은 여전히 무섭고, 위협적이다.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는 거랑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쓰레기 버리는.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문화가 틀려요. 우리는 바깥에 나오려면 옷은 기본으로 갖춰 입잖아요. 그 분들은 팬티만 입고 다녀요. (사례 H, 대림 초등생 어머니)

그런데 교포들 음식 문화가 그래요. 중국 사람들 문화가 마시면서, 아침부터도 순한 알콜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 같아요. 블루 칼라들은, 개네들 그런 게 아니라, 개네들도 일 끝나고 저녁에 먹은 것 같기도 한데... 낮부터 먹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할일 없



거나, 자기네가 일당이잖아 블루칼라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디 위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술 그냥 가져가서 먹다보니까 습관화 되니까, 아무데서나 그냥 먹어버리는 거야. (사례 F, 금천구 다문화마을공동체, 남)

내가 이름을 알고, 그가 누구의 할머니, 나의 고객 등 관계가 보다 구체화된 경우와 달리 일반명사로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 있다. 모르는 사람으로서 외국계 주민이 아는 사람이 될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주민들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서로 아는 사이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전히 내가 모르는 타자로서의 이주민은 사회에서,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혜택만 보는 이들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통합이 아닌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를 키운다고 너무 많이 혜택을 줘요, 개네들 혜택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세금으로 하다못해 주차 딱지 끊고 그런 거 세금 걸어가지고 난 그 사람들 먹여 살린다는 게 난 너무 짜증이 나는다는 거지. 아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사례 R, 대림 초등생 어머니)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이해가 집단적으로 이야기 되어 온 오해 내지는 하나의 정설로 굳어져 가는 이야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공론의 장이 필요해 진다. 개인적 차원의 긍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시점이며,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선입견에 맞서 이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한 답은 단순히 지역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4) 어쩔 수 없는 동거에 대한 수용과 문제의식

중국 동포들이 몰려들면서 혜택을 보게 된 선주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지역민들도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강조될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즉 지역 내에서 중국 동포나 외국계 주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거나, 이들에게 임대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주 고객층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국동포이다.

주인이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인 분들은 그 (집)세로 인해서 사시는 거잖아. 생계를 이어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안 좋은데, 집주인이 할머니 할아버지인 분들은 여기 분들 때문에 방이 빈틈이 없잖아요. 수시로 계속 나가니까, 어쨌든 가계에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 사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사례 P, 대림 초등생 어머니)

다른 주민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일부의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다른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즉 밀집지역으로 소문이 나고 해당 지역으로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한국인 주민들은 지역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선 집값도 싼 거야.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 밖에 아닌데 다른 데 가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면은 내가 이걸로 살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 사람 심리가 참 이게 이게 싫으면서도 이게 한 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쪽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또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언니 말마따나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개선할, 더 붙어서 같이 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기초적인 단속 같은 것 있으면 정확히 좀 해주고 서로 이렇게 좀. 그니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사례 J, 대림 주민)

이제까지 함께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집단적 유입이 선주민이 절대적으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전에 없던 불편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살아 온 곳에서 생활해가고픈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어울리다가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 또 마음 맞는 사람도 분명히 만나요. 떠날 수도 있는데 또 애들도 그렇고 여기에 지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있으면서 애 때문에 한 번 가려고도 했어. 애 때문에 가려고도 했는데 우리 큰 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학원을 하나 옮기더라도 적응하는데 3,4개월이 걸리는 애야. 그니까 엄마

랑 틀리 게 애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들 환경을 생각하면 떠나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사례 O, 대림 초등생 어머니)

떠나기에는 새롭게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스스로 갖게 되는 적응부담이 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인 외국계 주민의 처지를 이해하는 역지사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지만,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만큼 이웃과 지역으로 까지 확장될 여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계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사례도 발견된다.

솔직히 나는 저 사람들 없으면 장사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난 저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접으려던 일 계속하고 돈은 더 잘 버니까 큰 불만은 없어.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 계속 여기 살 거야. 그냥 쓰레기 좀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거 하나는 있지. (사례 D, 가리봉 시장상인, 남)

앞서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파는 식당 주인이 외국계 주민의 밀집 거주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상반되며, 지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주민의 이야기⁴⁸⁾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역에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살게 되었다는 같은 현상 앞에 어떤 선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떠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인생의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차원에서 상호 불만을 최소화하고, 화합과 통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면 결국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답은 나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순히 주민들을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속가능한 관계를 고민할 때인 것이다.

48) FGI 과정에서 만난 가리봉 지역의 임대업 종사자(사례C)는 외국계 주민의 밀집거주로 인해 임대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쓰레기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집 앞에 개인적으로 CCTV를 6대나 설치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은 자신의 주거지를 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음을 증언하였다는 면에서 사례자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냥 출근하면서 봉투 들고 와서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 있는데, 근데 조금 약간의 양심은 있는 것 같아. 쓰레기가 아예 없는 데는 안 버리니까. 그니까 골목에 쓰레기 버리는 곳을 좀 자주자주 눈에 확 띄게 깨끗한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죠.⁴⁹⁾ (사례 H, 대림동 주민)

극단적으로 외국계 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며 ‘그들과 우리’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지역민이 있는 한편으로 이미 함께 살게 된 외국계 주민과의 삶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주민들 또한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3. 외국계 주민이 보는 지역실태와 문제의식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이라고 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 그 중에서도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서의 거주 경력이 오래된 주민일수록 한국인 주민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스스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한국에 왔다는 이들의 공통 배경이 지역의 현재를 진단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주민으로서의 상호작용 또한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9)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림동을 포함한 영등포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집근처 지정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며, 그 방법으로는 “1. 집 근처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 2.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3. 봉투제 근처 거점수거 용기에 배출한다.”고 제시되어 있고 배출요금은 60원/L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ydp.go.kr/main/page.do?mCode=A030050040>)

1)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부족 : 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민들이 외국계 주민의 행동이나 질서 의식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는 한편으로 외국계 주민 지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외국계 주민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인 주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 등의 장치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안 아플 때 안 힘들어요. 작년에 수술했어요. 남편 아이 두 명 너무 힘들어요. 수술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 혼자 애기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보험 없어요. 수술비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예방 접종 너무 비싸요. 다른 돈 너무 비싸요. (사례 다)

대표적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인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사례의 여성은 동포도 아니고, 결혼이주자도 아니다. 한국으로 취직이 되어 온 남편과 함께 가족 단위로 한국에 살게 된 이주민으로 아프리카 국가인 콩고에서 왔으며, 출신국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공고하지 않다. 남편의 일 또한 고수입을 보장받는 직업이 아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 받은 기억을 피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뿐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정보조차도 공적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우리는 집 구할 때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남편 아플 때 어디 병원 어떻게 갈지 몰랐어요. ○○병원 남편친구가 알려줬어요. 한국사람 아니고 외국사람 친구가 여기 주소 주고 우리 주소 받고 갔어요. 어디 가면 영어 되는 병원인지 친구가 알려 줬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 영어 말해요. 통역도 있어요. (사례 다)

병원 입원과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어려웠던 경험이 사례 여성의 특수한 경험이었다면 일반적인 생활 정보인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병원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낯선 곳에 가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해결책은 사적 관계망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데에서 외국계 주민의 편의

를 살필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례 여성이 한국사회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나 정책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결혼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아마 센터정보는 ○○씨(결혼이주자)가 먼저 나한테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다문화 센터 몰랐었을 때예요. 알려줬고 저는 봉사신청을 하러 갔어요. 봉사하다가 취직이 된 거예요. 켈 첨에 있는 거조차 몰랐었어요. 1997년에는 전혀 없었고, 2007년도 그때 생기고 나서도 몰랐어요. 전혀 이렇게 통로가 없잖아요. (사례 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으로 다문화 이슈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서울에서 살게 된 사례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에 대해 자신보다 늦게 한국에 오게 된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센터 자체에 대한 정보가 결혼이주자나 다문화가족 전반이 아니라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초기 입국자 위주로 제공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센터의 프로그램 자체가 애초 초기 입국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사례 여성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여지가 적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사례 여성이 센터의 존재를 알고 나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이야기에 나타나듯 보다 일찍 센터의 존재가 알려졌다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역할의 가능성이 사장되었다는 데 있다. 공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은 체류자격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저는 그냥 이사할 때 청소하는 아주머니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원래는 한국에 쓰레기 분류해야 된다는 소문 듣고는 왔는데... 그냥 눈치 따라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건 잘못하면 중국 사람들이 예절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했어요. 딱히 이런 건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따라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사례 바-1, 중국동포 유학생)

사례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간에서 한국인 주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인 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불편을 읽을 수 있다. 늘 화제가 되지만, 문제 해결은 일부 사적 경로를 통해 겨우 해결되고 있을 뿐이다.

쓰레기 넣는 통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봉투는 밖에 놓는 거였어요. 다들 분류는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쓰레기봉투 버릴 수 있는 그거 사고 쓰레기 옆에 버렸던 거예요. (사례 아-1, 중국인 유학생)

쓰레기 문제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마치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 문제인 듯이 화제에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그 처리방식에 대한 교육이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례 여성은 관악구 거주민이다. 물론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해당 자치구에서는 높은 행정 동에 살고 있으나, 사례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외국계 주민의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한 적은 없다. 주말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발생된 대림동 일대와 정주민들 위주로 외지인의 출입이 한정된 지역에서는 같은 문제라 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슈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야 하며 그것이 철저히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부분에 어두워요. 부동산 계약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모르고 중국식으로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집 문제에 트러블이 있어요. 집세를 안내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나 월세를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하고 계약을 파기 한 다던가 계약 기한이 찼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소통이 잘 안되기도 하고. (사례 카, 동포남성)

지금도 대림동이나 가리봉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밤중에 경찰서 가서 술 마시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은 금방 입국한 사람들 여기 출입국법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을 오자마자 3일 교육이라든지 하루 교육이라든지 3시간 교육이라든지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도 사람들은 오자마자 외국인인 건 건강검진해서 등록해버리면 몰라요. (사례 마-1, 동포)

외국계 주민 엄밀히 말해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산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생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장소와 한국 서울의 생활양식의 다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른 생활양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눈치 내지는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 답을 찾는다는 점에서 공적인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이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인 주민의 불만에 대한 공감과 문제의식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민들의 문제의식을 외국계 주민이라고 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같이 대안을 모색할 공간이나 기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제가 대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라오닝성 출신이라서 저의 맛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지만, 대림동은 중국 사람이 너무 많고, 조선족이 너무 많아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 사람인 저도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술 마시는데 취한 사람도 있으니깐 낮에도. (사례 한족 유학생)

거주지는 관악구이지만 식당 이용을 위해 대림동을 찾는다는 중국 출신 유학생이 느끼는 지역의 모습은 한국인 주민들의 불만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한국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남성들, 술 취한 사람에 대해 갖는 불안을 외국계 주민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다. 그러한 동시에 중국 한족인 사례자는 특히 조선족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환경이. 손자를 놓고 보면 이사 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되게 잘 갔는데 여기오니깐 학교가 좀 체육도 제대로 안되고 애들이 좀 질서가 문란한가 봐요. 수업시간에 애들 복도 나와서 마음대로 다니고, 애들이 담도 넘어가고, 도로 ○○학교로 가겠다고 떼를 쓰는데 겨우겨우 다니고 있어요. 저도 모든 환경을 보면 먼저 동네가 여기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례 타)

사례 여성은 2014년 초에 영등포구의 외국계주민 밀집지역으로 이사한 중국동포이다. 설문조사에서 외국계 주민의 밀집지역 거주 이유에 ‘집값이 싸다’는 점이 부각되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사례자는 애초 거주하던 동작구 지역에서는 같은 값으로 동일한 조건의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했음을 이야기하였다. 물론 다른 이유로 중국식 음식을 먹기 편한 곳이라는 장점도 꼽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사로 인해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겪지 않던 생활의 곤란함이 야기되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상황이 안 좋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말이 되면 전국에서 중국동포들이 해당 지역에 모여 든다는 기존의 이야기에 비추어 지역 환경에 대한 정책이 자치구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손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동포이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오랜 기간을 살다 이사 온 사례자는 한국인 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만 대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공론의 장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음주 문화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이사하면서 집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싸우는 문제도 있고, 구로동도 조선족이 많이 살다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구로동, 가리봉동, 대림동 이쪽으로 다 그런 비슷비슷한 일들이... (사례 파, 동포)

분리수거 하지 않고 버리는 건 우리가 봐도 흉물스럽고 지난번에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집 골목에도 쓰레기가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같은 동포로서 창피하고 한국인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말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하, 동포)

같은 출신국에서 왔지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으로는 스스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와 무관한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할 때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당사자들로부터 모색될 수 있다. 한국인 주민과의 대화와 함께 이주민 상호간 대화

를 통해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다면 오히려 보다 거부감을 줄이며 이주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집도 근방에 다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빌라인데도 막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한국분이 빌라에 같은 빌라 2층에 사는데 내가 이사 오니까 여기 다 중국교포들이예요, 내가 중국에서 온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교포들이 뭐 어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아이 그러고 말 안 해. 그게 내가 볼 때 뭔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림동에 교포들이 모이면 술을 많이 마시고 소리가 크고 그런 게 많으니까 조금 여기 한국의 문화에서는 상반 되는 게 있어요. (사례 차, 동포 남)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서 쓰레기, 소음, 냄새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의 주거 형태 및 주거지 형성의 양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등의 속칭 ‘별집’으로 불리는 주거 형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대부분이 4-5층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확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되는 형태와는 다른 형식의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의 문제를 불러온다. 또한 상가와 주거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주거 양상은 음식점, 주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가로부터 주거지로 소음, 매연이 유입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실제 동대문의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아시아, 몽골계 식당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소음, 냄새의 문제가 대림이나 가리봉 지역에서는 보다 심각하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집집마다 노래듣기를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창문에서 여기서 노래, 저기서 노래 막 나도 좋아하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노래를 듣는데 우리 집까지 그 소리가 오니까 이집에서도 하지, 저 집에서도 하지, 내가 3층에 사는데 뒷집에는 밤낮으로 틀어, 어느 때는 말도 못하고. (사례 아, 동포)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음악 듣기를 즐기는 중국계 주민의 특성이 소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의 취미활동을 막을 수도 없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공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론 소음의 문제는 단지 밀집지역의 문제

만은 아니다. 아파트 거주 한국인 주민 간에도 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종종 뉴스의 소재로 등장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공적 기준이 마련되었다.⁵⁰⁾ 따라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돈 많고 그런데 교육은 다른 나라보다 교육 수준은 낮으니까 조금 예의가 없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돈은 많은데 그렇게 유럽 사람처럼 존경하지는 않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사례 자-1, 중국인 유학생)

공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별개로 밀집지역에 살면서 노래듣기를 즐기는 중국동포가 '음악감상'을 즐기는 고상한 이웃이 아닌 '소음공해'를 불러일으키는 무례한 타자로만 인식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무시'의 감정이 실려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주민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외국계 주민, 중국동포에 대해 이해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같은 중국 출신인들은 한국인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그에 대해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폭넓은 공감대가 어떻게 상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이 답을 할 차례이다.

3) 기반 시설의 부족과 정책의 부재에 따른 일상의 불편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단지 외국계 주민이 많다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 구성원에 변화가 왔다면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50)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안의 본격적 시행(11월 29일)에 앞서 2014년 8월 12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http://koreablog.korea.kr/433>)

이며, 이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고,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는 뭔가 ○○동은 시장을 새로 개편해서 한국사람 교포 없이 다 같이 분배해서 장 사하면 배합도 잘되었는데, 근데 이거는 딱 분리가 된 거라. 교포는 교포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그러다보면 서로 아무래도 질투가 나게 되고, 시장도 복잡하고, 이 쪽은 시장이 없고, 일반 백화점도 없고 생활상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례 타, 동포)

같은 이야기는 앞선 한국인 주민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다. 한국인 주민의 불편이 중국 동포 중심으로 지역 상권이 구성되면서 한국인 주민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자재 등의 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례여성은 전에 살던 지역에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상업에 종사하는 공간이 조성되어, 소비자로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대림동의 기반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제기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작은 움직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면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쓰레기는 여기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전에 살던 데는 통을 한 집에 하나씩 다 줬어요. 그 통에 음식물쓰레기만 버리고, 나머지는 재활용해서 일주에 화, 목요일만 가져갔어요. 깨끗하게 문 앞에 내 놓고, 여기는 저 학교까지 가야돼요. 전부 골목, 음식물을 학교까지 가져가면 얼마나 먼가, 음식물을 들고 15분씩 가야돼요. 관리를 잘 안하는 거죠, 교포가 분리 안하는 거는 교포문제고 관리 안하는 거는 구청의 문제예요. 이걸 다른 데를 본받아서 배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타)

가장 첨예한 지역이슈인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없다는 점이 주민의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관행대로 새로운 주민들이 따라줄 것을 요구만 하는 것으로는 지역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이야기도 나온다.



거기에도 밖에서 냄새, 제가 싫은데 원래 내국인들은 얼마나 싫겠는가,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단속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 많을 때는 함부로 말 안 해요. 그거 말하면 저놈이 말했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분명 그거 잘못됐어요. 질서도 12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면 길을 다 점령했어요. 그건 분명 잘못된 거죠. 여기 관할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에서부터. 구청, 시청에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한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분위기 때문에 온다, 내국인들도 올 수 있어요. 단지 그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좀 잘 살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례 카, 동포 남)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계 주민은 고향의 음식을 먹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색적인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도 한다. 중국동포 밀집지역에서 제기되는 냄새의 문제는 특성화된 음식인 양꼬치 구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례자는 이것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은 구역의 이러한 영업에 대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고려한 일정정도의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관 주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의 외국계 주민, 중국동포들로부터도 이미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원래는 기숙사 밖에서 집을 하나 구했어요. 원룸. 학교에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학생들 많이 살고.....원래는 그런 데는 밀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비밀번호 없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살다가 어느 날 종교단체 사람들이 와서 문 똑똑 두드리고 ○○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부 못했어요. 그때 밖에서 살 때는 밀에서 아예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례 자-1, 중국인 유학생)

사례 여성이 제기한 문제는 특별히 밀집지역에서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느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안전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문제를 제기한다. 기숙사 밖의 삶을 경험하며 한국, 서울에서 보다 접촉면을 넓혀가고자 했던 사례자의 바람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벽에 부딪

했다. 사례 여성이 살았던 곳은 관악구에서도 ‘고시촌’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고시생들이 감소해 고시원, 원룸 등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에 따른 정책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⁵¹⁾ 고시촌의 재활성화를 위한 인근 대학교의 자원 활용 방안으로 해당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숙소(기숙사)를 제공하는 글로벌 유학생 기숙하우스를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사례 여성의 이야기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시 비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에서도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 안전 정책은 선주민이나 이주민 모두가 원하는 바이며, 지역에서의 삶을 위한 우선 정책일 수 밖에 없다.

4)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

소위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계 주민의 체류 자격이 같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타 지역에 비해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다고 해도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느끼는 이주민에 대한 존재감은 다르다. 존재감이 크다고 해서 정책적 고려를 더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책에서 고려되고 있는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공통점의 이면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개인의 삶이 가려져 있다.

(1) 존재감과 정책의 간극 : 동포와 결혼이주자

드러난 인구 구성을 보면 서울시 거주 외국계 주민의 대다수를 중국 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책은 결혼이주자와 관련된 정책이 압도적이며, 관련 지원 체계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가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결국 중국동포들의 경우, 지역민이 느끼는 존재감의 크

51)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2013년 4월 9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환진 위원장, 유종필 구청장, 국회의원 유기홍, 서울시의회 의장 김명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고시촌을 비롯해 원룸 등 준주택 관리개선 및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기에 비해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편이며, 결혼이주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존재감과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의 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슈퍼에 갔더니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이 동네에 외국인 되게 많이 산다고, 그런데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분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말소리는 들려요, 집에서. 아 많구나 싶었는데 (가게 사장님이)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데, 아내인지 어쨌든 여자분들 밖에서 기다린다는, 안 들어온다네. 들어오기가 멍멍하하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쓰럽게 좀 보기 안 좋다, 좀 위축됐다고 하나? 그분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서 볼 수도 있는데, 항상 남편이 혼자 들어와서 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 분들 말소리가 들리거나 지나가다 보면 다세대 1층에 한 칸 짜리 뭐 그런데서 살고, 많이 사는지는 몰랐어요. (사례 나, 결혼이주여성)

중국 동포들이 드러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며 살게 됨으로써 외부적으로 드러난 존재감이 선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면 결혼 이주자들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지역 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기에 스스로를 가시화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여자, 이주여성 분 본인 스스로 위축되는 감정은 있는 거 같아요. 좀 당당해져야 되는데, 콤플렉스, 본인은 콤플렉스라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약해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그냥 자괴감 갖고 있으니까 프라이드가 되게 약해, 신림동에 사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혼이주 여성은 오픈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사례 사, 중국 동포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바는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것을 싫어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는 한국 사회에서 수적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주민이 존재를 드러낼 때 받게 되는 차별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이유로 밀집지역을 가시적으로 형성해 살아가는 중국 동포에 비해 결혼이주자들은 특정 지역의 거

주 비율이 높다고 해도 지역 내에서 집단 거주 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안에서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존재감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불편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동네는 결혼해서 온 사람은 없어. 다 중국 사람들이야. (사례 아, 결혼이주여성)

누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는가의 문제는 하나의 권력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 내에 살고 있으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이들은 그 존재가 드러남으로 인해 얻을 이득보다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현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동포들의 경우, 그들의 드러난 존재감이 이득을 주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집단적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드러나는 존재감을 억누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러한 드러남이 역으로 또 다른 거부감을 불러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동포 자녀가 H비자, H2비자나 F5비자를 아, F4 비자로 있으면, 있다 보면 5년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5년, 7년을 기다려야 국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외국인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게 문제가 된다고.⁵²⁾ 만일 귀화 신청을 했는데 안 되고 불허가 날수도

52)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따라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나, 아동이 외국국적이면 보육료 지원이 제한적임. 즉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이용 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만0~2세 기본보육료’는 외국아동도 지원이 되나,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비용은 정부단가 보육료^㉞와 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㉟임.

연 령	기본 보육료 ^㉞	정부단가 보육료 ^㉟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부모부담) ^㉟
만0세('12.01.01 이후 출생)	361,000원	394,000원	0
만1세('11.01.01~'10.12.31)	174,000원	347,000원	0
만2세('10.01.01~'09.12.31)	115,000원	286,000원	0
만3세('09.01.01~'08.12.31)	-	220,000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만4세('08.01.01~'07.12.31)	-	220,000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만5세('07.01.01~'06.12.31)	-	220,000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FAQ 중 2013년 10월 7일자 질의 및 응답
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301vw.jsp)

있으니, 다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문제인거 같아. 근데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는 국적 나오는데 까지 2년 걸린 그 안에 애는 혜택을 못 받는 거더라고요. 옛날 구로구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집에다 애를 밖에서 잠그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화재라도 나면 애는 어떻게 되냐고... (사례 바, 중국 동포 결혼이주여성)

처음 왔을 때 아이는 세 살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한국말을 하나도 몰랐죠. 중국말만 하다가, 그 다음에 유치원에 보내면서 한국말을 배우더라구요. 유치원 보내고, 저는 일 나가고, 우리 애들 다닐 때는 하나 혜택 못 받았어. 그런 정책이 없었잖아. 둘이 칠십 몇 만원 했어, 어린이집 비용을. (사례 아, 중국동포)

그러나 존재감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적 고려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중국동포들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주민들은 외국인 다문화 정책 중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호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물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중국동포의 자녀는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중국 동포들의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다. ‘동포’라는 거주 자격만 있을 뿐 한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드러난 중국 동포들의 존재감은 누구 못지않으나, 정책적으로는 소외된 구성원이다.

(2) 지역과 유리된 거주자 : 유학생

유학생 FGI에는 중국 출신의 동포와 한족 학생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FGI 그룹에 한족이 포함되지 못했고, 설문조사 시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감이 유학생이라는 체류 지위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이 50,343명인데 반해 중국동포는 1970명, 특히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에 소재하는 대학 중 1개교에는 중국인 유학생만 27명, 다른 대학의 경우 중국인이 538명, 중국동포 123명이라는 통계 수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면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이다.⁵³⁾

53) 유학생 수는 교육부의 2013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인용한 결과로 안전행정부 외국인 주민 통계의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중 중국인 57,084명, 중국동포 235,645명과 비교할 때 중국 동포와 중국인의 비율에서 유학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중국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제가 학교에서는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차별적으로 대한 게 없어서, 명동이나 중국사람 되게 많이 다니는 곳 가면 조금 불편하지만, 학교에서는 딱히 없어요. (사례 자-1)

사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라는 특정 공간에서 유학생들은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의 불편한 시선이나 대우를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 밖의 공간에서 스스로 단지 다른 나라 사람으로만 인식될 때가 되어서야 불편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 불편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접촉이 필요하나, 학교 밖의 생활이 최소화될 때 그 여지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다.

기숙사 밖에서 살 생각은 없어요. 무료로 세탁실을 쓰고, 에어컨,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근처이고, 식당도 맛있어요. 나가서 살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학교 기숙사는 아주 싸요. (사례 차-1)

실제 많은 경우 유학생들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유학의 목표를 생각할 때 학교 밖 생활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학을 마친 후의 삶의 계획 또한 한국에서 삶을 일정기간 지속한다기보다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학 마친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다른 외국으로 가거나, 고향 돌아가서 취직하고,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중국 돌아가서 일하고, 어차피 여기서 취직하더라도 한국회사는 나중에 중국으로 보내요. (사례 바-1)

처음에는 저도 여기에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미디어 쪽에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외국인한테. 일단은 중국 가서 일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기회 생기면 여기 다시 올 수 있고, 전에 찾아보니까 여기 미디어 쪽의 일자리도 경력직만 찾고 있어요. (사례 아-1, 중국인 유학생)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전반과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또한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한족)들은 공부를 마치면 대개 중국으로 돌

아간다는 점에서 사회 일반과의 접촉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어찌다가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불편이나 불친절에 대해서도 그리 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학교 근처에서 화장품, 작은 가게도 가면 되게 친절하게 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한국직원이라서 외국인은 많이 안 가니까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데 명동에서 되게 불친절해요. 명동, 동대문, 중국 사람 많이 가는 화장품 가게는 되게 불친절해요. 저는 갈 때마다 되게 속상해요. 저희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주는 건가 생각 들고... (사례 사-1)

유학생들은 좀 우리나라의 집단 아니면 외국사람 집단 안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보면 그래도 약간 한국에 왔는데 왜 한국친구 아직도 한명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반에 동기들도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같이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 뭘 좋아하느냐 그냥 커피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례 바-1)

유학생들 중 기숙사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생활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거주지는 4개구 중에서 비교적 밀집도가 낮은 관악구에 위치해 있었다. 그 중에서 이 연구의 FGI 참여자들은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신림동(18.6%)에 거주하거나,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학교 밖 일상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과 달리 중국 출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등이 발달해 있지 않아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국계 주민은 적은 편이다. 또한 대학가 주변의 상인들은 주로 마주치는 외국계 주민들을 유학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라고 해도 이방인으로서의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유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을 다른 이주민이나 관광객의 연장선상에서 빚어지는 문제라 확신하며 다른 체류 지위를 가진 출신국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다만 유학생으로서 중국동포이든 중국인이든 함께 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 활동이 있음은 목격된다.

조선족도 다 같이 하는 중국인 유학생연합회 있어요. 모임은 금요일 마다. ○○대에서 중국인 유학생 학부생에서 박사 유학생 포함해서 400명 정도 돼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될지, 혜택을 줘야 될지 저희가 모여서 상의하고, 그런 것을 함께 할 활동 만들고, 취직회도 만들고 신입 유학생 왔을 때도 정보 제공하고, 유학생회가 생긴 지는 꽤 됐고, 학교마다 다 있는데, 저희가 그냥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사례 바-1, 중국동포 유학생)

같은 중국에서 왔음에도 중국동포 사회와 중국인(한족)들 간의 대화의 조짐이 목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체류 자격을 넘어선 공동의 관심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유학생회 단위의 활동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과의 연계점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한국인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지역사회와 접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동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결국 유학생이 한국인 주민에게 다른 이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이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4. 지역 주민 간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거주민들이 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 같은 지역민으로서 이해를 공유해 보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징조는 몇몇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확장해 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활동 내지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봉사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 선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과 공동 활동

여성주민들이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공동 활동 경험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

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활동이다. 특히 학교를 통한 활동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이 녹아들어 있다는 면에서 활동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폭력 예방 순찰대라고 해서 아이들 귀가 시간에 저희가 순찰 돌면서 위험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저희가 차단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요. 근데 거기 같이 하는 중국 할머니가 이제 딸내미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일을 하니깐 할머니가 대신 학교 일을 하시는데 그 우리의 답답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또 통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얘기하기 힘든 걸 누가 조정해서 알려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사례 R, 대림동 초등학교 학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활동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여성이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에 1차적인 부담을 느껴 온 기존의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역할이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 등 보살핌 영역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해서 전체 엄마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강좌를 해요 그러면 우리 중국어 학원이니까 엄마들이 우리 중국에 대한 변화를 전혀 몰라요 강좌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변화니까 우리 애들이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하고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조직위원회 위원하면서 엄마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엄마들이 많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이유는 저랑 좋아진 이유는 학교나 운영위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 ○○○ 엄마는 정말 지역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좀 좋아진 거죠 그냥 일반 엄마는 좋아지기 힘들어요, 솔직히. 학교서도 선이 딱 있어요. (사례 라-1, 중국동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중국동포 여성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주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주민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지역민에게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

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동포로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 스스로 이러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회장할 때도 클럽에서는 회장이지만 나가면 동기회장들 속에 가면 중국에서 왔다고 사실은 말 안했었는데 작년 봄에 오픈했어요.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정말이냐고, 그때 제가 늦게 알린 이유는 저를 어느 정도 알고 해야지 알기 전에 먼저 알아버리면 또 편견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2012년, 2011년 동기회도 다 여행 부탁해서 막 가고 오고 하니까 아 여행사니까 중국말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작년에 오픈하니까 저는 동기회에서는 아 이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장서 했기 때문에 업적을 인정해 준거지 우리 동포사회를 인정해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례 가-1, 중국동포)

지역단위 친목 및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여성은 초기 참여과정에서 자신이 중국동포라는 사실을 숨겼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스스로 중국 동포임이 먼저 알려지게 될 때 받게 될 선입견을 염두에 두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조건을 떠나 어디에서 왔는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입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미 이주민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지역 주류사회에서 특정 개인을 ‘인정’했다는 것이 외국계 주민이나 동포사회 전반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동에서 제일 빨리 우리 한국인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는 마을 부녀회예요. 새마을 부녀회는 그 동네 내에서 바싹하게 어떤 엄마, 어떤 엄마, 어떤 집에 누가 살고 저 집에 몇 식구 살고 아는 데예요. 처음엔 혼자 그 소속에 들어가야 되요. 단체 대 단체는 처음엔 안 되요. 새마을부녀회가 진짜 봉사도 많이 해요. 김이나 떡국이나 팔아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요 시간을 많이 못 낼 땐 대신에 봉사하는데 보태 쓰라고 좀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저는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장봉사를 우리가 구로구니까 여성위원회하고 어떤 행사를 한 번 같이 하자고 했더니 오케이를 하더라고 알았어 그럼 연구해서 하자 그래도 마을부녀회 많이 해주는데 하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안하고 쫓아 들어가야 돼. (사례 나-1, 중국동포)

사례 여성은 전략적으로 개인 단위로 한국인 주민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함을 이

야기한다. 이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았고, 서서히 집단으로서 동포여성위원회와 부녀회의 공동 사업을 기획 중이다. 교류를 위한 첫 단계는 신뢰를 쌓는 일이고, 그 이후에 공동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뢰를 쌓는 단계에서 외국계 주민들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거나, 일정 기간 동안 커뮤니티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 위원회에서, 이 지역 자치 위원회에서 그 쪽 분(중국동포)들 단체랑 같이 해서 지구대 형성해가지고 순찰 도는 거. 처음에는 좀 보이더니 안 보이더라고 요즘에는. 처음에는 조끼 딱 입고서 그 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같이 하면 경찰끼리만 순찰 도는 것 보다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서 그 효과가 아주 몇 배였어. (사례 L, 대림 주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가 공동으로 지역의 안전을 살피는 활동을 했던 데 대한 한국인 주민들의 호응은 높다. 그러나 활동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지속될 수 없음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활동을 했던 관계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여기 지구대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 ○○냉면이라고 중국 교포 분한테 세를 줬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쪽에서도 좀 파워가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조직을 했어요. 두 위원에서 같이 순찰을 돌고 한동안 하니깐 여기가 대림동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애기 아빠도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만 신경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정작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또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 엉망이죠.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자리가 잡히다가도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저희 애기 아빠는 여기 19대가, 19대 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동 사랑을 엄청 해요. 그런데 생업이 있으니까 그게 부딪히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례 H, 대림 초등생 어머니)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다고 해도 그것이 특정인의 절대적인 노력이나 희생에만 기댈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지역에 영향력이 큰 특정인이 나서게 될 때 활동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생업과

의미 있는 무보수 활동이 충돌하게 될 때 개인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한편으로는 공동의 활동을 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역 모임 등이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서 하는 건 배드민턴 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클럽은 중국 조선족만 모여 있는 클럽인데 구로구에 속하다 보니까 구청장배 클럽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봄에 한번 하고, 이번에 가을에 대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클럽도 나오고 그건 구청장배니까, 구청장님도 오시고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런 대회인데 그거 참가한 것 하고 특별히 다른 활동은 없어요. (사례 다-1, 동포)

지역에서의 이주민과 선주 한국인 주민이 만나는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구의 구성이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단순히 얼굴을 대하는 수준에서의 접촉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접촉이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치구나 서울시 등에서 마련하는 행사라면 선주민, 이주민 간 접촉의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있어야 하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 이주민 간 소통의 필요와 가능성

한국인 주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계 주민·중국동포를 하나의 집단적 성격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선입견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상호 이해의 지점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인 주민과 외국계 주민 간의 대화와 함께 외국계 주민 상호 소통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계 주민의 처지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한다.

잠깐 만났는데 한번 대화가 좀 안 맞다 그럴까, 일하러 온 사람하고 다른 게 애들 때문에 와서 집에서 애들보고 생활하고 여행하고 이런 걸 그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나쁘게 생각하는 건 매번 보고 집에서 보고, 집에서 심심하게 내가 지낸다 생각하고 개가 인식 자체가 다르겠지 맨날 둘이 부부가 일하고 먹고 사니까~ 집에서 애들 보는데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가 어때서요. (사례 마, 결혼이주)

서울에서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의 현실이 다른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같은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만남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대화의 시작은 발생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전에 살던 데는 안 그랬는데, 여기가 유난히 심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저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 또 여기 집을 사서 왔으니까 계속 살아야 하고... 우리도 불만이에요. (사례 타, 중국동포여성_귀화자)

초기 입국자들이 거주할 확률이 높고 실제 그들의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라면 외국계 주민 커뮤니티 안에서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 지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주 기간이 긴 이주민들은 그들대로 초기 입국자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 간 공유점을 찾지 못한 채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한 한편으로 일부 중국 출신인들의 이야기가 중국사람 일반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데 대해 불만도 표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학력수준이 낮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고 중국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사람 많이 있는 동네 이야기하면서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례 차-1, 중국인 유학생)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질 때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곳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전에 없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해서 그 답을 단순히 사람들을 원망하고, 같은 출신국 사람들을 집단화해서 무시하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한국인이 저희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가 교포분이거나 장가들었거나 이러면 찾아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마누라가 조금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 와서도 여행사 사장이 교포야 그럼 딱 보고 자기가 나보다 사장보다 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도 잘 안 하게 되죠. 나 그런 사람 돈까지 벌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 (사례 가-1, 동포)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외국계 주민, 중국동포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이주민 집단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며 문제를 풀어갈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주민 간에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구별 짓기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무시의 눈길을 보내는 한국인 주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며 그들이 무시해 온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동포 단체의 남성 활동가는 단계별 연대를 이야기 한다. 우선은 동포지위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의 물고름 튼 후 다양한 이주 집단과의 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족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같이 일할 단계는 못 되요. 우선은 수적으로 많으니까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동포사회에 집중을 한 다음에 가는 거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동포단체 같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동포들은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도 있다 보면 같이 하게 될 일도 있기는 하겠죠. (사례 카, 동포 남성)

중국동포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 간의 소통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사람이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처음엔 동포위원회 같이 안 했는데, 제가 (남편이나 가족들하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요즘은 그냥 동포로 온 사람하고 결혼해서 온 사람하고도 같이 뭘 하려는 사람들 있어요. 아는(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아는 사이였고... 저도 사는 곳은 ○○동이지만 여기 구로까지 와서 같이 하니까... (사례 다-1,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이러한 형식의 모임 자체에 대해 거는 기대는 외부의 힘이 아닌 이주민 사회, 동포사회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가자는 데 있다. 한편으로 제도적 개선이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동포 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외부의 힘에 기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동포이자 결혼이주자인 경우도 많고,⁵⁴⁾ 그 부모세대까지 한국으로 이주해 와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면에서 대화와 소통의 여지는 열려 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이번에 대림동에 집을 샀어요. 그 때 저희는 살짝 걱정을 했죠. 아 대림동... 아무래도 우리끼리, 우리도 사실 편견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집을 사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그 빌라 새로 지은데 거긴 깨끗해요. 그러니까 모~든 동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동포끼리도 서로 이야기해야 되요. (사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다른 이유로 한국에 왔고,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인적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기반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맞서기 위한 활동은 각기 다른 처지에 놓여있지만, 대화의 여지가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인 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조선족 친구만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거의 한국에 오는 조선족이면 어머님이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가족끼리 같이 오는 학생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뭘 할 수 없는 거라서 가끔씩 같이 뭘 해보자 해도 안 된다고 엄마랑 같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그래도 그 친구가 동포위원회 알려줘서 몇 번 가 보고, 축제 때도 가고, 그런 정도... (사례 바-1, 중국동포 유학생)

가족단위 이주자와 개인 이주자 사이의 시간 쓰임이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공동활동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으나, 이미 중국동포 사회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로 연

54) 선행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에 의하면 서울 거주 결혼이민·혼인귀화자의 30%이상을 한국계 중국 출신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계하는 역할을 가족 단위 이주자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대화가 확장되어 함께 공론을 만들어 갈 움직임들이 소통의 필요성에 조금씩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3)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의 가능성

주민들 내부에서 제기된 외국계 주민과 한국인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에 응답한 서울시 차원의 사업이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특정 전달체계 중심으로 이주민이나 그 가족에 한정되었던 데 반해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에 기반하여 이주민과 한국인 주민이 함께 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각 사업마다 내용은 다를지라도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금천구에서도 향후 5년에서 6년 사이에 저렇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이에 빨리 우리가 움직이면 일어난 안에라도 가능하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례 F, 금천다문화마을공동체, 남)

중국동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실은 그 주민들은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은 영등포는 아주 극히 심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저희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이랑 1세대들은 하자 그러니까 꽤히 승낙해 주셔서, 참 그분들한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연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금천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구보다 이미지 개선 그러니까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앞서 가는데 안 따라와 다들. (웃음) 그래가지고서 답답해 죽겠어요. (사례 E, 금천다문화마을공동체, 남)

이미 좋지 않은 인식이 비등해 있는 주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참여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어차피 외국계 주민의 증가를 막을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FGI 곳곳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부정적 현상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에게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

지가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만족을 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사업에 나선 금천구의 중국동포 참여자는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노인정도 만들어서 구립으로 넘겼어요. 저는 활동하려고 찾아가 봐요. 찾아가면 이 단체들을 같이 안아주고 해주면 좋는데 자기네가 무슨 이 다문화에 뭘 한다 이러면 우리를 찾아. 그리고 내가 뭘 여기서 구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찾고 나는, 나가고 싶은데 같이 화합을 해야 내부터 발길을 들놔야 내 뒤에 사람들도 같이 들놓거든요. 근데 이면이 차요. 보듬어 줘야 해요. 우리 사회는 받았으면 보듬어가 같이 가야해요. (사례 마-1, 금천다문화마을공동체)

이주민을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로 보지 않고 구색맞추기식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사안이 있을 때 공동 활동을 위해 이주민을 찾지만, 그 접촉이 일상적인 친근함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국인 주민을 ‘차다’고 본다. 단위사업을 위한 만남이 어떻게 주민으로서의 접촉을 밀도 있게 할 것인지에까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들하고 좀 친해지자는 의도에서 한 거예요. 저희 이제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이제 격주로 모여서 하는데, 애들을 가르치는 교재들, 자기 나라말, 이주해서 온 사람들의 말도 가르쳐 주고 워 이런 취지로 한 거죠. 한국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한국 분들은 제가 좀 영어나 중국어도 가르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 아이들 없이 그냥 모이거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사례 사, 관악다문화마을공동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다른 한편 관악구의 사업은 외국계 주민 즉 결혼이주민이자 중국동포인 여성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인 주민과 이주 여성들이 서로 모여 이주민의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과 영어, 중국어 등 효용도가 높은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제안자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르다.

문화체험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 애들도 같이 해서 같이 커가는 거니까 같이 해주면 좋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포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요. 길래면 한 명만 꺼줄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류에는 별로 끼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럿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네다섯 명 고 중에 넣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나도. 그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사례 M, 신림 한국인 주민)

공동체사업 자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주민들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임에도 참여 의사 타진 단계에서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것이다. 사업 진행 중 내부에서 불만과 불신이 제기되기도 한다.

좀 힘든 점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공모를 하는 거니까 홍보해야 되고, 회계도 봐야 되고, 총괄, 저는 총괄 부분을 봤는데, 책임 총괄 뭐 회원모집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홍보하고 회계도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몫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떠넘기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 처음에는 막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자기네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사례 사, 관악다문화마을공동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사업 안에서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들어갔음에도 맡기로 했던 일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주민간의 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자 했던 취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주민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여자들이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에 따른 교육이나 도움이 예산지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의지가 있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데에서 벗어난 막을 수도 있었던 갈등이다.

내가 조금 희생해도, 만약 모임이 잘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이 있지만, 조금 더 발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요즘엔 격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또 매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지난번에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사례 사, 관악다문화마을공동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해결책 또한 주민들 내부에서 모색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지역 내 한국인 주민 공동체와의 연대 움직임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공동체마을사업 자체가 지역 공동체와 연계되어 확장되어갈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럼에도 이후 정책 단위에서 사업의 선정뿐 아니라 그 실행 과정에서 주민의 역량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관악구의 사업처럼 전업주부들이 중심이 된 경우, 어느 정도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여성 주민이 보는 정책 과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상호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어느 특정 구성원만이 생각해야할 사안은 아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남의 과정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은, 뭐, 같이 해보고 싶은 일.. 우리 고아원이라고, 보육원, 네, 네, 보육원 같은 데 가서 뭐 봉사활동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도 제가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오면 신경 쓰시잖아요, 또 침해될까봐 못 하는 때도 있고, 내가 외국인이란 걸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음, 외국인 이라면 좀, 뭐 약자다 라는 것도 있고, 뭐 좀 못하다고, 모자라다고 생각이라든지 불편한 것 있잖아요. (사례 차,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의 이주민 구성원이 중국계 주민인 지역에서 일본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그 만남의 시작을 자원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 주민들은 이주민을 약자라고 보지만, 사례 여성은 그러한 시선을 불편해 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을 약자로 보는 시선을 거두고 약자를 보살피는 일에 자신이 함께 할 길을 열어 주길 바라고 있다. 자원 활동도 하나의 시작이 될 수는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을 찾기 힘들었던 사례여성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들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지역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 한국인 주민

다문화를 이야기하고, 일상적으로 외국계 주민을 접하며 생활하고 있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선주 한국인들은 외국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다. 외국계 주민 또한 지역에서 한국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불만이나 불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주민들에 대해 아직 서울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진 바 없고, 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간에 대한 요구는 개방된 공간보다는 규칙의 적용이 용이한 시설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데 가보면 공원이 작게 크게 굉장히 많고 깨끗하잖아. 근데 거기는 공원이 있어도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괜찮은데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만남의 장소나 쓰레기장인 거야. 전체적인 거리가 일단 큰 길로 가면 깨끗하잖아. 공원보단 차라리 도서관이나 애들 운동할 수 있는 뭐 수영 같은 거, 그래서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인해서. 다문화 아이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모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게 좋은 거지. 공원을 해봤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너무 그림이 딱 그려지는 부분이라. 그건 진짜 반대예요. (사례 R, 대림 초등생 어머니)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녹지 비율이 높지 않은 서남권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공원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주민들은 공원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일정 정도 이용 규칙이 정해진 시설이 들어서길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요, 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중국까지 가서 중국어를 배우겠어, 어렵잖아. 그쵸. 같이 있으면서 배우고 하면 진짜 좋기도 하겠어, 역으로.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사례 K, 대림주민)

한국에 온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프로그램 중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

수를 이루었던 데에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 한국어라는 점이 고려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이들에게 한국 사람이 먼저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중국어일 것이며 주민들 안에서는 이미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즘 애가 계속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애들이 무슨 말하
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야. 개네도 자기네끼리, 옥을 해도 자기네끼리 말하는 것처럼 은
어처럼 할 때가 있잖아, 애네들 듣지 못하게. 그니까 ○○이가 엄마 저 요즘 너무 답답
해요. 그래서 왜? 아니 전학 온 애가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떨 때만 자기네끼리 그 말을
한다는 거야. 그면 그걸 자기가 느낄 때는 소외감처럼 뭔가 이상한 말일 것 같은데, 자
꾸 그러니까 그걸 파헤치고 싶대, 자기는. 그걸 내가 알아들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니냐
고.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사례 Q, 대림 초등생 어머니)

이미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장소가 속한 국적성과 더불어 그 장소의 구성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구성원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국적에 매몰되어 실제 거주민의 특성이 고려된 다문화정책이 아닌 한국을 가르치는 다문화 정책과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인 것이다.

근데 그런 걸 좀 배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뜨개방을 같이 가서 모여 앉
아서 뜨개질을 한다던가, 내가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거 가르쳐 줄게. 너희 나라 뭐 글
나한테 가르쳐 줄래. 만약에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 그런데다 좀 지원을 해서
좀 돌리게끔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 같이 살길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저
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사하는 사람이 더 원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자들이 더 많이 느끼니까... (사례 I, 대림주민)

그 활동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주민들 스스로도 외국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공간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외국계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불편이 생긴 한편으로는 지역이 활성화된 점도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 주민들도 알고 있다. 또한 외국계 주민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뚜렷한 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2) 중국동포 등 외국계 주민

한국에서의 거주 연한이 길어지고, 국적을 얻은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 이주민의 범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되어 서울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계 주민들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지역민과의 접촉이 부재하다는 점을 하소연한다.

중국동포들은 동포들끼리 놀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떻게 연구를 해요. 이걸 어떻게 조직을 해가 한국사람, 저기서 온 분들 이래서 무슨 조직이 하나 나와야겠나. 이제 동포들 뭐해야 된다 하면 날 찾는 거야 그러면 같은 단체도 들어가 되잖아. 근데 들어 가기가 힘들더라고. 일부러 동사무소도 찾아간 거예요 여기에 우리 동에는 어떤 활동이 있어요? 저도 참가하려고 왔더니 활동하려고 어차피 사회 활동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도 뭉쳐야겠다 싶어서 근데 왜 찾아 왔는가 하고. 답이 없어... (사례 마-1, 금천다문화마을공동체, 중국동포)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인 주민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어디에서도 누구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주민으로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동 주민센터로부터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듣고, 지역주민 단위에서의 커뮤니티를 찾고 있다.

언론에 티브이 방송에 거의 나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첫째는 동포들에 대한 시선이 좋게 안 봐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나 일반 직장에는 언론에 의지하고 시는데 저희부터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나면 그거 말 들을 필요 없이 티브이 방송에 의존하다 시피 우리 동포에 대한 시선 자체가 언론보도가 다 안 좋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해도 아무리 잘 나갔어. 지금 여성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활동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우리끼리 자꾸 말해서 언론에 퍼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여성회에서 잡지도 출간 준비중이에요. 대한민국 정책에서 우리를 동포라고 인정 안 해주고 안 끌어주니까 우리끼리라도 해놓으면 볼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도 하자. (사례 나-1, 중국동포)

한편으로는 동포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동포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인 행동도 기획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주민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에 비해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답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동포사회의 요구는 ‘보다 바람직하다 할만한’ 사례나 인물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상희 나가면 어쨌든지 이거 중국 사람이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나갔다가 딱 한번 붙들었는데 한국 사람이었다, 잡히는 건. 물론 중국에 분리수거 아니니까 교육시켜 나가야되고 첫째는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한국 분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세를 놓아요, 자기네는 세를 받아 먹어요.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교포들이 가서 해라 교포들 맨날 일하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나가면 저녁 12시에 들어와요. 저는 구청에 이렇게 제기를 해요 우리가 집세를 내요, 집세는 받아먹으면서 왜 이 관리를 못 하냐고 당연하게 나는 한국 분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내 집세는 받아먹으면 이 관리는 왜 안 해주요? (사례 마-1,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의 주범으로 몰린 중국 동포들의 불만은 결국 지역 거주민으로서 정당한 집세를 지불하고 살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동포사회의 노력과 함께 집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입국자 교육 문제와 함께 한국인 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 했잖아요. 굳이 금방 입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기 보다 정기적으로 어디에 가면 기초교육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거나 그런 게 조금 지원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요. 또 중국인들이 한국사회의 기초 질서에 대해 모르다시피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생활의 기초에 대해 기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어울리려면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한국사회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와 반대로 한국인 거주자들도 같이 어떤 교육이 들어가 가지고 화합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사례 라-1, 중국동포)

외국계 주민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과 함께 한국인 주민 교육의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까지 다문화 논의가 이주민의 적응, 정착을 기초로 한 사회통합 논의였다면 급격한 다문화시대 도래에 직면한 한국인 주민들도 변화된 사회에 맞는 적응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있잖아요. 이 연금이 있는데 만일에 한국 국적을 받게 되면 중국에서 연금 못 받죠. 그래서 국적 취득은 안하고, 그냥 영주권으로 한국에서 살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신 건데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뭐라는 거 그거 좀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파)

‘이주민’으로 ‘동포’로 불리지만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의 이면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즉 선주민 교육에는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사례 교육이 들어간다면 보다 공감대를 얻으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주민들의 비판을 고려할 때도 이는 필요한 조처일 것이다. 결국 서울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시민에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선주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 현재 서울시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아카데미를 하려면 돈을 주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일반 교육하고 리더 교육이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래야 동포사회 빨리 바뀌는데 이걸 해놓고 서울시에서 기금은 받았는데 그냥 일반사람들이 그냥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듣고 와요 그러면 실용적이지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듣고 전달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서울시에서도 기금이 알뜰하게 동포사회에 썼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아닌 것 같아요. 항상 2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례 가-1, 중국동포)

초기 입국자 교육과 동포사회의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포사회의 리더 교육은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한 교육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 지역의 변화와 여성

FGI는 서남권 4개구의 외국계 주민 중에서도 특히 그 비율이 높은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중국인(한족)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계 주민과 외국계 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금천구 가산동, 관악구 신림동 거주 한국 선주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각기 다른 이들이지만, 한국 특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외국계 주민은 현재 한국인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모든 문제가 외국계 주민 특히 중국 동포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데에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한 번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서울에서 서울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당혹감조차 느끼고 있다. 이에 외국계 주민 스스로 초기 입국자에 대한 서울 생활 가이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주민은 외국계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의 삶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에 대해 불만과 불편을 토로하면서도 외국계 주민으로 인해 달라진 점이 모든 지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더불어 외국계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이미 그들과의 동거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함께 활동을 하며 외국계 주민에 대해 일반화된 선입견이 그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발견하고 있다.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선주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 또한 선주민,

한국인 연구자의 눈으로 단일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인 주민들의 문제의식의 근원에는 지역 안에서 자신들의 ‘집’이 ‘쉽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외국계 주민의 문제의식은 이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주민’으로서가 아닌 외국인, 이주민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선주민들에게 ‘쉽’을 보장하는 지역이 필요하다면 외국계 주민에게 또한 ‘쉽’을 보장받기 이전에 ‘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함께 ‘쉽’과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같은 주민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현재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외국계 주민 특히 중국동포들의 밀집 거주로 인해 보는 시각이 뚜렷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지역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빚어진 문제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어떻게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차원에서 답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변화된 지역의 환경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주민 중국동포 여성이라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 온 여성들은 지역단위 봉사모임, 부녀회 등 주민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가 하면 남성위주로 돌아가던 동포단체에 여성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에 한국인 주민과 함께 하던 모임들과 연대 활동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파악되었다. 한국인 주민들의 경우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으로 변화되어 온 현실에 대해 가졌던 불만과 불편을 딛고 지역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모색되고 있다. 문제는 아주민 여성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성을 띠는 데 반해 한국인 여성들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등 주어진 모임에서는 활발히 활동하나 주도적으로 활동 모델을 만들어 온 경험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몇몇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도 드러났던 문제이다. 즉 외국계 주민 주도의 다문화마을사업은 그 내용의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보면 외국계 여성이 리더로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인 주민 주도의 다문화마을사업은 남성들이 만든 사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통합의 주체로서 활동할 주민 역량이 어디에서 키워져야 할지가 과제인 것이다. 지역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보다 주도적인 힘이 소수자인 동포 여성으로부터 나왔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단계별로 지역사회에 참여해 간 방식들에서 앞으로

로 거주경력이 있는 이주민 혹은 서울시민과 서울에서 이제 막 생활을 시작한 이주민들이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방법들이 보다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현실적으로 한국 선주민끼리도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웃 간에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거나 교류가 활성화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서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의 과제이다.

분명히 효과가 높았던 활동들이 생계의 문제와 부딪힐 때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 안의 문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불러온 문제인지 그 공간 자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 외국계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인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서울시 서남권 중에서도 특히 중국동포들의 밀집도가 높은 대림동과 가리봉동의 주말은 행정 동이나 자치구, 서울시 차원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주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모여들어 주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황이라면,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는 바이다.

VI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정책 제언

1. 정책의 방향
2. 주민교류 및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지연 안에서 여성연대의 가능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정책 제언

1. 정책의 방향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고려하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이미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외국계 주민 지원 단체나 언론 등에서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주목하였으나, 초기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면서 특정 공간을 고려하지 못했고, 이는 서울 거주 외국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3년 이래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대상 위주의 정책에서 공간 중심, 외국계 주민과 선주 한국민의 지역 내에서의 소통에 주안점을 둔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고려를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 중장기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에 집중하였던 정책이 전반적인 이주민으로 확장될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 발표된 계획들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사회와 지역을 구성하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지역민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의 구체화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인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인 대림동, 가리봉동을 아우르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구는 외국계 주민 중에서도 중국 동포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다수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동포 인구의 성별 구성과 달리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도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 대한 정책은 그동안 서울을 구성하는 외국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중국동포들에 대한 정책으로도 비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해당 공간을 구성하는 이들 전반에 대해 포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인, 일부 그룹이 아닌 그 공간을 구성하는 이들 누구라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대림동,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한족)들뿐 아니라 기존의 다문화가족 등도 폭넓게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국민의 권리가 국적에 있다면 주민의 권리가 국적이거나 체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닌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1) 지역 공간 정책

그동안의 공간 정책은 주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이 지닌 한계는 가리봉 지역의 경우 지역민이 앞장서서 개발 구역 해제를 이끌어 낸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계토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 차원의 밀집지역 정책은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을 문화 특화 거리로 만드는 정책적 제안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실제 지역민들의 의견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었다. 외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서의 밀집지역보다는 선주민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으로서의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안전행정부의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의료·안전 등 지원 서비스 확대와 문화예술 공간 인프라 조성 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보다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시 권역 중 녹지 비율이 현저히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등에 대한 요구보다는 오히려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련 요구가 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외국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각이나 소위

‘국제 감각’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무관히 이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특별히 현재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에서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았던 역사성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재 해당 공간이 안으로부터의 세계화, 국제화 논의를 말할 수 있는 지역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센터나 글로벌빌리지센터 내에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사료관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지역 내 이주민 공간이 선주민의 인식을 이끄는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 구성원들의 삶에서 각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장소,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낸 삶의 결과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 정책이 필요하며, 중국동포 특성화 거리로서의 서남권역의 조성을 넘어 중국계 동포와 선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서 지역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지역민 정책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이 지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알려지고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도 지역민들끼리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높은 주거비용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잦은 이사는 지역 주민들 간의 교류에 분명한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다만 밀집지역의 문제는 교류 없음이나 무관심을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넘쳐 난다는 데 있다.

특정 구성원이 많아지면, 그 결과로 새로운 구성원들로 인해 공간상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선주민들은 외국계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상점이나 음식점,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이 자신들의 입지를 좁혀 놓고,

불편을 야기한다고만 이해하고 있다. 새로운 구성원을 이질적인 존재들로 이해하고, 타인들로부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적대감마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들의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정책은 어떤 특정인이 아닌 지역민 전반이 정책의 범주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외국인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만을 특정 하는 정책이었다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정책은 구성원 누구나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정책이 아닌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을 통해 이주민이든 선주민이든 구분을 두지 않는 문화다양성이 고려된 주민 정책을 제안한다. 기존의 주민공간이 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소로 기능하지 못했는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왜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때, 통합이나 적응을 주로 일방에게만 요구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 차원의 사회통합의 리더로서 성장해 갈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도적 참여자로 외국계 여성주민의 역할을 상정한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지원 활동을 수행할 마을지원활동가들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센터, 자생단) 뿐 아니라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지원활동을 수행할 것을 제안 한다.

지역민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민 중심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주민 교류 및 연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서로 어울려 산다는 것의 의미보다는 경쟁의 의미가 강조되어 왔던 사회에서 이제까지 만나던 사람들과는 다른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서울시 서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

계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사회문제, 지역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선주민들조차도 이웃의 사람들과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될 수 있다. 즉 도시에서 이웃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외국계 주민과의 관계라고 해서 특별히 그 관계가 보다 밀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선주민들 간에는 제기되지 않던 문제들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거주민의 7~80%가 이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민의 적응뿐 아닌 선주민이 변화된 지역사회에 적응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활동에 해당 가족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자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FGI를 통해 이야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참여의 수준이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공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현실이다. 새로운 공간이나 모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안에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도 밀집지역 거주민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학부모 활동이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교류와 통합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즉 현재의 학부모 자원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그것이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전업 주부 여성과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활동 시간대, 활동의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불안이 안전과 관련되어 보다 심화되어 있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이러한 불안은 단순히 선주민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단순히 여성만의 이슈가 될 수도 없다.

정책 방향

- 지역차원의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환경 조성
- ▷ 공간 접근 : 지역민의 삶과 쉽을 존중하는 정책
- ▷ 구성원 접근 : 서로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주민 프로그램 강화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정책 추진주체	정책과제 분야	세부 과제 내용
중앙정부 및 교육청	인프라 개선 및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안전, 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 다문화 중점 학교 학생 프로그램 다각화 - 다문화 중점학교 학생의 보호자 프로그램 운영
중앙정부	여성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 공동 활동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 및 전달체계 내실화 - 영주권자 등 중국동포 자녀 보육 시범사업 - 지역 리더로서 여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센터 등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자치구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 교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주민 교류지원 - 다가구 주택 및 골목단위 주민 프로그램 지원 - 주민센터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지역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선주민-이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 조성 - 이주민 간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 이주민 통합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나는 공간 조성

1)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의 재설계

현재 서울시 서남권 4개구 중 영등포구 대림2동의 한 초등학교는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의 다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선주민이 누락된 다문화라는 점이다. 다문화 특성화 학교의 프로그램이 모두 어떻게 외국계 주민의 자녀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만 되어 있어 지역민 전체를 아우르는 다문화 중점학교로서의 역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는 다시 선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가 지역민이 어떻게 변화된 사회에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이주민이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것인지를 고려만이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다문화 중점 학교가 명실상부한 다문화 중점학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주민들이 어떻게 다문화사회에 적응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를 단순히 이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려 사는 의미로 되살려 내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외국계 주민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만이 아닌 해당 학교 구성원 전반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의 재설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1) 학생 프로그램 다각화

현재의 학생 프로그램에 선주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언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만나 보다 높은 지역민의 호응을 불러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해당 학생들의 학습능력,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준다면 역으로 한국 선주민 학생들에 대한 중국어 등의 특성화 교육, 이주민 문화에 대한 교육은 해당 학생들이 타자와 이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 다문화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해 갈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외국계 주민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만이 아닌 한국 선주민 학생에 대해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 교육이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된다면, 밀집지역 내의 학교는 다문화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니고 싶은 학교로 거듭 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 서남권의 경우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밀집지역이 형성된 만큼 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책의 수혜자로만 존재하던 동포 자녀

들이 중국어나 중국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강사로서의 역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재학생 프로그램인 만큼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미 한국 내에 조직화되어 있는 중국동포사회의 직능단체인 동포교사협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지원 인프라에 대한 걱정도 일정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내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만큼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에 드는 기간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단축될 수 있다.

(2) 학생의 보호자 프로그램 운영

일상을 통해 만날 기회가 적은 선주민과 이주민, 그로 인해 서로에게 오해와 불신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자녀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식화되어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외국계 주민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 외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하게 될 때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일부러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슈를 발굴하기 보다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주민들 간 자연스런 대화와 오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이주민과 선주민이 합의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지역민 차원에서 만들고, 서울시나 자치구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지역의 환경은 외부에서 볼 때에도 성인의 시각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단, 등하교 도우미로 한정되어 있는 보호자 활동에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원 활동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장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점 기관으로 기능할 여지를 가진 기반 시설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유의 기능이라고 여겨지던 것 외에 부가적인 역할이 요구될 때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는 늘 제기되기 마련이다. 이에 다문화 중점학교의 재설계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중점학교가 외국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를 지정한

다면 거기에는 학교가 어떻게 지역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여성 주민의 역량 강화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인 이주민이나 선주민들의 경우,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공적 활동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작 단계에서의 제안서 작성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회계 처리 등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여지를 가진 여성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FGI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단위 활동에 여성이 여전히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여성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외에 사업 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민에 대한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나누는 차원을 넘어선 서로의 가치관이 이해되고 그를 통한 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역민으로서 공동의 이슈 발굴에 여성 주민이 함께 참여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더불어 여성의 가능성,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미숙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은 아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여성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다각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마을지원활동가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여전히 일정정도 규모를 갖춘 이미 활동해 오던 단체나 모임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에서 집단화되지 않은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양육이나 보육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고충에 대한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서울시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의 고려도 필요하다. 여성이 육아나 양육의 1차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해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느끼는 여성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여지는 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거론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서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글로벌센터나 글로벌 빌리지센터의 일정 공간을 동포자녀를 위한 시범 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동포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획된 사업이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집중거주지 기초 인프라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 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주민 공동활동 공간 제공

FGI를 통하여 선주민들은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이 강조되어 온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정책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이주민에게 새로운 곳에서 살아갈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살아오던 지역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선주민이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적응해 갈지에 대한 방안 또한 요구된다. 이에 이주민, 선주민 모두 서로에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갈 방안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보다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림3동 지역에 안착한 여성단체의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주민과 이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기존의 지원체계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개설되던 데에서 나아가 지역민들이 그 안에서 다양하게 만나고 선주민, 이주민 모두에게 열린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단체의 지역도서관 운동이 주는 시사점을 어떻게 지역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다면 공동 활동 공간에 대한 답은 보다 구체화된다.

공포와 불안은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의 공간에서 보다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실제 학교의 자원 활동에 참여하며 중국동포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을 가진 지역 여성은 외국계 주민, 중국동포 모두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여성도서관 활동가는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의 화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남권에 건립되었거나 앞으로 생겨나게 될 글로벌센터 등이 외국계 주민만의 공

간으로 기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외국계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동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민을 위한 공간에 이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해당 공간이 지역민을 단순히 프로그램 수강자로 한정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그 프로그램조차도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계 주민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도 있다.

따라서 외국계 주민 중심의 새로운 공간은 다양한 이주민 모임뿐 아니라 선주민들 중심의 지역 모임, 지역 상인회 등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자율적으로 열리고, 그런 활동들이 이주민 조직과 소통될 수 있는 연대와 순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민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4) 다가구 주택 및 골목 단위 주민 프로그램 지원

서남권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 외국계 주민의 거주 특성은 대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모임(부녀회 등), 입주자 모임 등이 조직화되어 있는 아파트 등과 달리 주민들 간 상호 소통의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쓰레기 수거 등의 기반도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다. 따라서 주민 상호 간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정보가 교류될 여지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주거 공간을 가까이 하는 이들인 만큼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일 여지도 많고 그만큼 대화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나,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현실에서 외국계 주민 밀집지로서 선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쓰레기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이주민들은 이러한 생활 질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삶, 서울에서의 삶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질서 교육이나 매뉴얼 등이 제공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한국을 강요하는 방식, 선주민이 이주민을 가르치는 방식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이웃 단위의 작은 모임을 통해 논의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 실행력도 보다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

고려할 점은 선주민들의 아파트 입주자 회의와 같은 유형의 회의체는 세입자를 배제한 채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서남권 외국계 주민의 10%만이 자가 거주로 드러난 만큼 세입자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주민 회의체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미 일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주 한국인 입주자는 전무한 상태에서 외국계 주민만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단위 주민 프로그램은 먼저 이주해 온 주민이 이주 기간이 짧은 이들을 이끌어 가는 자조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이주민 상호 간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주민과의 통합을 위한 가교로 기능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5) 주민센터를 이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재 학교 단위로 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되어 시행 중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지역 마을 단위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이해 교육이 점차 증대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교육이라면 실제 밀집지역 안에서의 주민 교육은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 교육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 서남권의 외국계 주민 다수가 중국 동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넓은 범주에서 외국계 주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문화, 처지가 다른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구성됨과 동시에 지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이해교육의 강사로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 지역 종합 발전 계획 과제에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의 지원 사업에 포함된 적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재 서남권 중에서도 외국계 특히 중국 동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대림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이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임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다문화노래교실,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실 정도의 프로그램만이 눈에 띈 뿐이다. 지

역이 갖는 특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재설계에 도입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히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인 서남권의 특정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는 다양성에 대한 주민 인식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에 애착과 동일시의 차원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인문학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프로그램 강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면 지역의 활동적 주체로서 이주민의 긍정적인 '상'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서남권 중에서도 구로구의 가리봉동이나 영등포구 대림2동은 외국계 주민, 그중에서도 중국동포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동포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입국한지 얼마 안 된 초기 입국자들이 주로 해당 지역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에티켓이나 기초 질서 개념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주민들이 많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지저분하다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초기 입국자들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방문취업(H2) 비자 입국자,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 등에 대해 현재 외국인 등록 이전에 총 3시간의 교육이 있기는 하다.⁵⁵⁾ 문제는 해당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동포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데에 있다.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 상호 간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아래로부터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거주 경력이 오래 된 이주민과 새로운 이주민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주민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동포들

55) 그 내용은 체류, 국적 등 출입국 관련 업무, 기초생활정보 및 동포지원 정책 등 안내, 범죄피해 예방으로 외국인 등록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HappStar.jsp?q_global_menu_id=S_HS_SUB01

의 이용이 잦은 구직 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마을 모임과 활동에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나아가 서남권을 중심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인(한족) 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어떻게 이주민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주민 간 자조모임 등의 네트워크가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미 본문을 통해서도 논의되었다. 선주민과 이주민이라는 단순한 범주가 아닌 다양한 주민이라는 시각에서 주민들 상호간 이해를 돕기 위한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3. 지역 안에서 여성 연대의 가능성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이주민의 경우 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보다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결혼이주 이외의 체류 자격에서 여성들의 관점이 특정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성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몇 다문화마을 공동체 사업 뿐 아니라 여성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서남권 중에서도 외국계 주민이 가장 밀집되어 살고 있는 대림동에 들어선 여성주의 도서관의 사례는 보다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한 한편으로 외국계 주민으로서 중국동포들의 활동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선 FGI에서는 개인 단위로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온 중국 동포여성들이 동포여성위원회를 조직하여 구 단위 부녀회 등 여성 모임 등과 공동 활동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동안 전주 한국인들이 이주민을 도움이 필요하고, 서

비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되어 왔다면, 이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함께 살아갈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이다.

현재 봉사활동 자원에서 기획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지역의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부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이주 여성들은 봉사활동을 참여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주민들과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함께 활동해 본적이 없는 한국인 여성주민은 그 시작이 무엇이 되었든 서로를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이라는 인구구성에 따른 지역의 이름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는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미 답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길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역이 아닌 다문화와 통합을 이야기 하는 우리 사회 모두가 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을 구성하는 것이 지역민이라면 새로운 가치를 품고 부상하는 공간 또한 전체 사회의 한 부분이며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곳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연구논문

- 강경조 (2002),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승복(2012),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고민경(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 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윤경(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pp. 183-214
- 김영로(2011), 중국동포집단지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133-156.
- 김이선(2012),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선(2010), 독일 이민자 자조단체의 현황과 실제. 글로벌이민동향 특별기획원고 2010-Vol.1. pp. 10-13.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 김현선(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31-264.
- 남정연 외(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배균·정건화(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세훈(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세훈·김은란(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세훈·이영아(2009), “조선족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권 2호
- 박신영·김준형·최막중(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7(5): 217-230.
- 박철현·최수형 (2009), “서울시 강남구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연구”,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20(3): 213-238.
- 방성훈·김수현(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9(2): 39-68.

- 서운석(2011), 외국인 노동자/이민자 수용 태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한국·중국·미국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4권 1호, pp.103-129
- 서지수(2012), 서울시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회집*, Vol., 58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2002),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 성기환 외(2008),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체계 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8권 5호, pp.93-102
- 손승호(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 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 11(1)
- 손동필(2011),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선도시설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신인령 외(2002),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
- 신지원 외(2010),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 영국, 독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 양한순(2013),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 오정은 외(2010), 다문화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규용(2010), 동포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민주(2008), “재중 동포 상업활동과 정체성 형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석준(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화(2008),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 이소영(2013),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용균(2007),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10(2), 35-51.
- 이현욱 외(2014), 초국가적 이주와 기원지 로컬리티 변화에 관한 연구 -중국 왕칭쎄 평린춘의 사례
- 이희영(2013), 이주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 *현대사회와 다문화*, 3(1): 178-199.
- 장한나·윤기찬(2010),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Vol. 24 No.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미영(2006), 남북 사회 문화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의 과제, *통일문제연구* 2006년 하반기호 (통권 제46호) : pp.89-115
- 정기선·강동관 외(2012),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및 의제 발굴,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수열(2009), 인종 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정수열·이정현(2014), 이주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정현주(2007), 공간의 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Vol.10 No.2: 53-68

조현미(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최영신·강석진(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통계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한승미 외(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Ingram, Helen & Schneider, Anne(1995), Social Construction(continued): A Response to Robert Lieberma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441-446

Knox P&Pinch S(2009),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6th edition, Pearson Education(Canada)

Logan, John, Richard D. Alba and Wenquan Zhang(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299-322

Massey, D. S.(198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3): 315-350

McEwhan, C.(2004), Transnationalism in Duncan, J., Johnston, N.&Schein, R.(eds.), A Comparison to Cultur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499-512

Pamuk, Ayse(2004), “Geography of Immigrant Cluster in Global cities: A Case Study of San Francisco”,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2): 287-307

Sassen, Saskia(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Schneider, Anne & Ingram, Hellen(1997), Policy Design for Democracy, Lawrence, KS: The University of Kansas

■ 기타 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안전행정부 외국인 주민 통계 및 주민등록인구 통계

한국언론재단 기사검색 (<http://www.kinds.or.kr/>)

Abstract

Gendered analysis on multicultural awareness in foreign districts of Seoul : focusing on four southwestern districts (gu)

Kang Hee-Young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nhabitants in the four districts of southwestern Seoul (Yeongdeungpo, Guro, Geumcheon and Gwanak) with large foreigner populations, and proposes measures for community-level social integration. Seoul City policies for these districts were analyzed, out of whi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implications drawn. The researchers carried out a survey and hel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to discern the current status of these districts and the policy support they nee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262 Koreans (123 women and 139 men) and 219 foreign residents (109 women and 112 men) in an attempt to ascertain their perceptions of one another. The results were used to develop ways to achieve greater integration in these areas on the community level. A separate analysis was made for the respondents in districts with high foreign population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any differences. The analysis also took gender into account.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reign residents of diverse status, including students, and women married to Koreans, with a focus on ethnic Koreans of Chinese nationality whose population is higher than other foreigners, and Koreans living in Daerim-dong,

Yeongdeungpo-gu, Garibong-dong, Guro-gu, Gasan-dong, Geumcheon-gu and Sillim-dong, Gwanak-gu, all regions with large foreign popul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foreigners and Koreans in those areas lack understanding of one another and in fact do not have frequent contact. However, more efforts at understanding were observed among female immigrants. The study asserts that in ord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in residential areas with large foreign populations, the following are necessary: programs for common activities of foreign and Korean residents; programs to promot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t schools and community centers; and programs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female residents.

부록

부록 1 외국계 주민용 설문지

부록 2 한국인 주민용 설문지

부록 3 외국계 주민용 중국어 설문지

부록 4 외국계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부록 5 한국인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D			
----	--	--	--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조사 (외국인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다문화 이해도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 주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사수행 및 문의 : 정책1팀 이경숙 02-810-5027, 강희영 02-810-5048

현재의 거주지역 선택 이유

문1. 귀하께서 평소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1-1.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우리 동네는 동포 등 외국인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주거비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직장과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아이들 교육환경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장사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0.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인과의 교류 · 관계

문2. 지역 내 살고 있는 한국인 주민과의 관계나 경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우리 동네 한국인들과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 한국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한국인 주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한국인 주민들에게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학교에는 외국인 주민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우리 동네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7. 지역주민들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8.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9. 한국인 상인들은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0. 우리 동네 집주인들은 외국인 세입자와 한국인 세입자를 동등하게 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1.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2. 우리 동네 한국사람들은 친절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지역 편의 시설에 대한 인식

문3.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3-1. 우리 동네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3-2. 우리 마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3-3.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3-4. 외국계 주민의 자녀가 지역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 .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치안(CCTV, 순찰 등)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안내를 위한 공공기관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우리 동네는 깨끗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주체로서의 적응 현황

문4.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니오
4-1 한국인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4-2 외국인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이 있다.	①	②
4-3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외국계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4-4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4-5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4-6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4-7 산업재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①	②
4-9 외국인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	①	②
4-10 한국의 공중도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11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①	②
4-12 세금 납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13 한국에 사는 동안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였다.	①	②
4-14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에 납부한다.	①	②
4-15 집주인에게 월세를 날짜에 맞추어 지불한다.	①	②

문5. 현재의 거주지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살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공공기관 이용(은행, 병원, 관공서 등)
- ② 의식주 문제(식생활, 거주지 마련)
- ③ 취업 등 경제활동
- ④ 교통정보 등 생활 편의 정보
- ⑤ 교육(본인 관련)
- ⑥ 육아(보육시설 이용 등)

문6.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거주지, 직장)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 ② 지역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다.
- ③ 외국인 전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 ④ 종교 및 복지시설 등 무료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다.

문7.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외국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족
- ②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서비스 안내문
- ③ 이용가능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 ④ 비싼 요금
- ⑤ 기타()

문8.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단체나 외국인 주민 모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결혼이민자 모임
- ② 다문화센터 모임
- ③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④ 유학생 모임
- ⑤ 종교모임
- ⑥ 취미 관련 동호회
- ⑦ 학습관련 모임
- ⑧ 출신국 지인 모임
- ⑨ 기타
- ⑩ 없음

문9.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인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결혼이민자 지원 모임
- ② 다문화센터 모임
- ③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④ 학교 모임
- ⑤ 종교모임
- ⑥ 취미 관련 동호회
- ⑦ 학습관련 모임
- ⑧ 자녀 학부모 모임
- ⑨ 기타 ()
- ⑩ 없음

ID			
----	--	--	--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조사 (한국인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거주민의 다문화 이해도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 주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사수행 및 문의 : 정책1팀 이경숙 02-810-5027, 강희영 02-810-5048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질문

문1. 귀하는 다음사항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보다 세계 속의 시민이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1-5. 나는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1-6. 나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과 관계

문2. 지역 내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나 경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1. 외국인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2. 동네에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외국인 주민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3. 우리 동네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4. 외국인 주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5.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동네가 지저분해졌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6. 외국인 주민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7. 거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주민과 자주 마주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8. 외국인 주민이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9.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싸울 경우에는, 외국인이 잘못했을 경우가 많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0. 거리나 공원에서 외국인 주민끼리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두렵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1.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앉으면 싫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2. 외국인거주지이기 때문에 치안(CCTV, 순찰 등)이 잘 되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3.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외국인 주민의 무질서한 행위(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를 모르는 척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2-14.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서 동네 이미지가 좋아졌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외국인 주민과 자녀 세대

문3. 지역 내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와 귀댁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3-1. 아이의 친구 중 외국인 이주가정의 자녀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	----------------	-------------	----------------	-------------	----------	-------------

3-2. 내 아이가 외국인 이주가정의 아이를 초대한다고 하면 기꺼이 찬성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내 아이가 외국인 이주가정 아이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하면 기꺼이 찬성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외국인 주민이 많아져서 아이들의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국제적 감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4. 귀하께서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다음의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과의 관계	매우반대	반대	약간반대	약간찬성	찬성	매우찬성
4-1 외국인인 우리나라에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2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3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4 옆집에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5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6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7 내 배우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경제 주체로서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문5.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5-1. 외국인 주민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외국인 주민이 늘어난 후로 지역민의 수입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3. 외국인 주민은 한국인보다 집세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4. 우리 지역 물가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5-5. 외국인 주민이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곤란할 때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5-6.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살아 우리 동네 상권이 살고 임대비도 높아졌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5-7. 외국인 주민은 정해진 세금을 잘 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5-8. 외국인 주민으로 인해 우리 동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문6.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6-1.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6-2.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6-3. 기회가 있다면 외국인 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이나 클럽(친목계)에 가입하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6-4. 외국인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6-5. 외국인 주민의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지 않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문16. 거주 지역 내 민간단체의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17-1.번으로
- ② 아니오

문16-1. 거주 지역 내 민간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과도하다	과도하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위한 정책추진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중앙정부
-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협력
- ③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민간단체의 협력
- ④ 민간단체 주도
- 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민간단체의 협력

응답자 선정 및 배경 질문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
- ② 여

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이하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관악구(_____동)
- ② 구로구(_____동)
- ③ 금천구(_____동)
- ④ 영등포구(_____동)

Q4. 이 지역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_____년)

Q5. 귀하께서는 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 ① 예 ☞ (영어, 중국어, 기타 _____)
- ② 아니오 ☞ Q5-1.번으로

Q5-1. 외국어를 배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영어, 중국어, 기타 _____)
- ② 아니오

Q6. 귀하는 어떤 종류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원룸/오피스텔
④ 고시원 ⑤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⑥ 기타

Q7. 귀하는 어떤 형태의 주거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월세
④ 무보증월세 ⑤ 기타

Q8.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예 **Q8-1.번으로** ② 아니오

Q8-1. 배우자의 국적은 무엇입니까?(_____)

Q9.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배우자와 자녀
④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⑤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 ⑥ 친척(한국인/외국인)
⑦ 친구(한국인/외국인) ⑧ 직장동료(한국인/외국인) ⑨ 기타(_____)

Q10. 다음 연령대의 자녀가 있다면 V표해 주십시오(중복가능)

- ① 자녀없음 ② 미취학(____명) ③ 초등학생(____명)
④ 중학생(____명) ⑤ 고등학생(____명) ⑥ 대학생 이상(____명)

Q1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교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Q1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서비스직
④ 생산직/단순노무직 ⑤ 자영업() ⑥ 가정주부
⑦ 학생 ⑧ 무직/구직 중 ⑨ 기타()

※ 외국계 주민 거주와 관련해 지역 내 개선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D			
----	--	--	--

有关外籍居民聚居地区成员的多元文化理解度调查(外国人填写)

您好！首尔市女性家族财团为研究有关首尔市外籍居民聚居地区居民的多元文化理解度及政策方向等内容，谨此收敛广大市民们的宝贵意见。

本次问卷调查结果将为准确了解‘外籍居民聚居地区’的生活现况，推进‘外籍居民聚居地区’政策而提供宝贵的资料。

对于您所应答的内容将进行综合统计处理，保障匿名性，除调查目的之外绝无他用。希望您如实应答本问卷，衷心感谢您百忙之中抽出时间做应答，谢谢您的合作。

▷ 研究主管机关：首尔市女性家族财团
▷ 调查及咨询：政策1组 이경숙 02-810-5027, 강희영 02-810-5048

选择现居住地的理由

问题1. 您对平时居住的地区有何想法？

1-1. 我们社区有很多外国人可以就业的工作岗位。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2. 我们社区有很多同胞（朝鲜族）等外国人。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3. 与其他地区相比，提供更多的就业相关信息。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4. 居住费用低廉。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5. 与工作地点相近。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6. 孩子教育环境好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7. 生意好。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8. 周边有很多亲戚或朋友居住。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9. 与我处境相似的人很多。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1-10. 吃家乡菜比较方便。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与韩国人的交流及关系

问题2. 您与与住同社区内的韩国人居民的关系或经验有何想法？

2-1. 跟我们社区的韩国人交流没什么问题。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2. 有相互打招呼的韩国人。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3. 有可以分享养育和教育子女相关信息的韩国人。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4. 生活所需信息大部分从韩国人居民得知。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5. 学校有为外国人居民孩子们提供的活动。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6. 我们社区和孩子所上的学校里有为外国人居民提供的学生家长教育活动。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7. 社区居民们接受有助于理解我们(外国人)的教育。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8. 我们社区有因外国人而歧视人的气氛。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9. 韩国商人们雇用外国人居民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10. 我们社区的房主们同等对待外国人租房人和韩国人租房人。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11. 孩子跟得上学习进度, 没问题。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2-12. 我们社区的韩国人们很热情。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对社区服务设施的认识

问题3. 您平时对下列事项有何种程度的想法?

3-1. 我们社区有韩国人和外国居民共同利用的设施。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2. 我们社区设有为外国居民的指路标牌。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3. 对在我们社区可利用的医疗设施十分了解。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4. 外籍居民子女利用社区内的保育设施没有不便。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5. 治安 (CCTV, 巡逻等) 设施很好。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6. 为外国人居民生活指南提供的公共机关服务周全。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7. 我们社区比较干净。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3-8. 我想在本社区长期居住下去。	① 完全不是	② 不是	③ 有点不是	④ 有点对	⑤ 对	⑥ 很对

作为社区主体的适应现况

问题4. 对下列事项, 您有何种经验和想法?

	是	不是
4-1 参加过跟韩人共同进行的活动(聚会)。	①	②
4-2 有支援外国人居民生活的团体或设施。	①	②
4-3 参加过由市民团体或宗教团体提供的外籍居民活动。	①	②
4-4 加入工作单位(职场)健康保险。	①	②
4-5 加入地区健康保险	①	②
4-6 加入国民年金保险。	①	②
4-7 接受过工伤相关教育。	①	②
4-8 加入雇用保险。	①	②
4-9 社区有外国人子女放心去的托儿所、幼儿园。	①	②
4-10 接受过韩国公共道德相关教育。	①	②
4-11 把垃圾扔到指定场所。	①	②
4-12 接受过纳税相关教育。	①	②
4-13 在韩居住期间缴纳了所定税金。	①	②
4-14 按时缴纳电费, 水费等公共费用。	①	②
4-15 按期向房东缴纳月租。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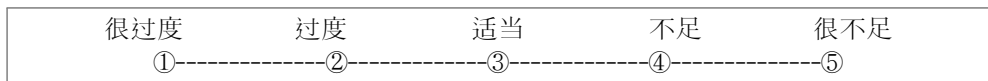
问题5.您作为外国人居民在现居住地感到最不便的是什么?

- ① 利用公共机关(银行, 医院, 政府机关等)
- ② 衣食住问题(饮食, 找住处)
- ③ 就业等经济活动
- ④ 交通信息等生活服务信息
- ⑤ 教育(与本人相关的)
- ⑥ 育儿(利用保育设施等)

问题11. 您对下列外国人政策有何意见？

多元文化政策	完全 没必要	没必要	有点 没必要	有点 必要	必要	很必要	不知道
11-1 结婚移民者基础生活信息指南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2 运营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3 针对多元文化家庭的韩国语教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4 加强支援结婚移民女性就业力量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5 运营结婚移民者实习生制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6 运营受暴移民女性咨询中心及保护设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7 运营移民女性保护及自力设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8 运营多元文化家庭子女保育设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9 对多元文化家庭子女的访问辅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0 支持多元文化社区共同体活动, 支援多元文化家庭共同体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1 运营关照外国人生活困难项目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2 青少年全球精神涵养教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3 在线, 线外提供生活信息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4 运营外国人劳工中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5 运营全球中心和 全球村中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6 外国文化体验, 多元文化演出及活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7 世界人纪念活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8 多元文化庆典活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问题12. 您认为首尔市的外国人多元文化政策的支援水平如何？



问题13. 您认为为推进首尔市的外国人多元文化政策, 应该由谁做主导作用？

- ① 中央政府
- ② 中央政府与地方政府的合作
- ③ 地方政府与民间团体的合作
- ④ 民间团体主导
- ⑤ 中央政府, 地方政府, 民间团体的合作

问题14. 您认为首尔市的外国人多元文化政策首先要做的业务是什么？

- ① 支援结婚移民者
- ② 支援多元文化家庭子女
- ③ 支援移居劳工
- ④ 支援同胞
- ⑤ 支援留学生
- ⑥ 改善和增进韩国人的认识
- ⑦ 全球多元文化中心等建构多元文化基础设施
- ⑧ 其他()

问题15. 您认为在您所住社区, 为结婚移民女性和多元文化家庭最需要的是什么?

- ① 语言及文化适应
- ② 人权及社会意识变化
- ③ 建构经济基础
- ④ 支援子女养育
- ⑤ 其他()

问题16. 为保护居住首尔的外籍移居民的人权, 您认为最紧急的是什么?

- ① 禁止拖欠工资
- ② 加强对雇用主违法行为的处罚
- ③ 工伤保险与医疗待遇
- ④ 转换对外籍劳工的整个社会的认识
- ⑤ 雇用许可制问题
- ⑥ 其他()

应答者个人信息

Q1. 您的国籍是?? (取得韩国国籍者填写取得之前的国籍)()

Q2. 以后您有意取得韩国国籍吗?

- ① 有
- ② 没有

Q3. 您所持有的签证是? 直接填写。

① 最初的签证	
② 现在的签证	

Q4. 您结婚了吗?

- ① 对
- ② 没有

Q5. 您配偶的国籍是?()

Q6. 您的性别是?

- ① 男
- ② 女

Q7. 您的年龄是?

- ① 20岁年龄层以下
- ② 30岁年龄层
- ③ 40岁年龄层
- ④ 50岁年龄层
- ⑤ 60岁年龄层以上

Q8. 您现居住的地区是？

- ① 冠岳区(洞) ② 九老区(洞)
③ 衿川区(洞) ④ 永登浦区(洞)

Q9. 您居住这个地区有多久了？

- ① 韩国 (年) ② 现居住地 (年)

Q10. 您会说韩国语吗？

- ① 会 ② 不会 ☞ Q10-1问题

Q10-1. 您有意学习韩国语吗？

- ① 有 ② 没有

Q11. 您居住何种住宅里？

- ① 单户住宅 ② 公寓 ③ 单间住宅/办公用房
④ 考试院 ⑤ 底层住宅/多户住宅 ⑥ 其他

Q12. 您签约了何种住宅合同？

- ① 自家 ② 全租 ③ 保证金月租
④ 无保证金月租 ⑤ 其他

Q13. 您现在与谁居住在一起？

- ① 自己 ② 配偶 ③ 配偶与子女
④ 配偶与配偶的父母 ⑤ 配偶与本人的父母 ⑥ 亲戚(韩国人/外国人)
⑦ 朋友(韩国人/外国人) ⑧ 同事(韩国人/外国人) ⑨ 其他()

Q14. 如有下列年龄层子女的话，请标上V号

- ① 无子女 ② 未就学(名) ③ 小学生(名)
④ 中学生(名) ⑤ 高中生(名) ⑥ 大学生以上(名)

Q15. 您的最终学历是？

- ① 中学毕业以下 ② 高中毕业 ③ 专门学校毕业
④ 年制大学毕业 ⑤ 研究生以上

Q16. 您的职业是？

- | | | |
|-------------|----------------------|--------------------|
| ① 专门职业 | ② 办公/管理业务 | ③ 服务业 |
| ④ 生产职业/单纯劳务 | ⑤ 个体经营() | ⑥ 家庭主妇 |
| ⑦ 学生 | ⑧ 无职业/求职中 | ⑨ 其他() |

※ 您在所住社区有不便之处或需改善事项及意见的话，请在下面详细叙述

▣ 非常感谢您长时间应答本问卷 ▣

부록 4 외국계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12	107	219
		51.1	48.9	100.0%
연령	20대이하	12	15	27
		10.8%	14.0%	12.4%
	30대	30	34	64
		27.0%	31.8%	29.4%
	40대	30	32	62
	27.0%	29.9%	28.4%	
	50대	34	20	54
		30.6%	18.7%	24.8%
	60대이상	5	6	11
		4.5%	5.6%	5.0%
최종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15	15	30
		13.6%	14.7%	14.2%
	고등학교 졸업	67	47	114
		60.9%	46.1%	53.8%
	전문대 졸업	12	13	25
	10.9%	12.7%	11.8%	
	4년제 대학교 졸업	8	16	24
		7.3%	15.7%	11.3%
	대학원 이상	8	11	19
		7.3%	10.8%	9.0%
결혼 여부	예	73	72	145
		65.2%	67.3%	66.2%
	아니오	39	35	74
		34.8%	32.7%	33.8%
자녀 유무	없음	36	30	66
		35.0%	30.6%	32.8%
	있음	67	68	135
		65.0%	69.4%	67.2%
자녀 연령 (다중 응답)	미취학	15	19	34
		22.4%	27.9%	25.2%
	초등학교	10	18	28
		14.9%	26.5%	20.7%
	중학교	7	7	14
	10.4%	10.3%	10.4%	
	고등학교	15	12	27
		22.4%	17.6%	20.0%
	대학생 이상	22	17	39
		32.8%	25.0%	28.9%
자녀 형태	정규교육과정 자녀 (미취학~고등학교)	45	53	98
		43.7%	53.0%	48.3%
	그 외 자녀 (자녀없음, 대학생 이상)	58	47	105
		56.3%	47.0%	51.7%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거주 형태	혼자	34 30.9%	19 17.9%	53 24.5%
	배우자	36 32.7%	31 29.2%	67 31.0%
	배우자와 자녀	7 6.4%	24 22.6%	31 14.4%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4 3.6%	1 0.9%	5 2.3%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	8 7.3%	11 10.4%	19 8.8%
	친척	2 1.8%	8 7.5%	10 4.6%
	친구	10 9.1%	4 3.8%	14 6.5%
	직장동료	3 2.7%	1 0.9%	4 1.9%
	기타	6 5.5%	7 6.6%	13 6.0%
거주 형태	단신 입국	34 38.2%	19 22.1%	53 30.3%
	가족단위 입국	55 61.8%	67 77.9%	122 69.7%
거주 기간 (한국)	1년 미만	5 6.0%	1 1.3%	6 3.7%
	1~2년	20 24.1%	16 20.3%	36 22.2%
	3~5년	28 33.7%	32 40.5%	60 37.0%
	6~10년	28 33.7%	16 20.3%	44 27.2%
	11~15년	1 1.2%	11 13.9%	12 7.4%
	16년 이상	1 1.2%	3 3.8%	4 2.5%
거주 기간 (현재 거주지)	1년 미만	8 12.3%	2 2.9%	10 7.5%
	1~2년	34 52.3%	25 36.8%	59 44.4%
	3~5년	12 18.5%	26 38.2%	38 28.6%
	6~10년	9 13.8%	12 17.6%	21 15.8%
	11~15년	1 1.5%	3 4.4%	4 3.0%
	16년 이상	1 1.5%	0 0.0%	1 0.8%

		성별		전체
		남성	여성	
한국어 구사여부	가능	89 80.9%	85 80.2%	174 80.6%
	불가능	21 19.1%	21 19.8%	42 19.4%
한국어 배움의향	있음	51 52.6%	28 35.9%	79 45.1%
	없음	46 47.4%	50 64.1%	96 54.9%
직업	전문직	4 3.7%	9 8.6%	13 6.1%
	사무/관리직	8 7.4%	15 14.3%	23 10.8%
	서비스직	4 3.7%	16 15.2%	20 9.4%
	생산직/단순노무직	52 48.1%	12 11.4%	64 30.0%
	자영업	10 9.3%	16 15.2%	26 12.2%
	가정주부	1 .9%	15 14.3%	16 7.5%
	학생	7 6.5%	2 1.9%	9 4.2%
	무직/구직중	16 14.8%	12 11.4%	28 13.1%
	기타	6 5.6%	8 7.6%	14 6.6%
주택종류	단독주택	25 22.9%	37 35.6%	62 29.1%
	아파트	10 9.2%	6 5.8%	16 7.5%
	원룸/오피스텔	21 19.3%	15 14.4%	36 16.9%
	고시원	8 7.3%	1 1.0%	9 4.2%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3 30.3%	38 36.5%	71 33.3%
	기타	12 11.0%	7 6.7%	19 8.9%
주거계약 형태	자가	4 3.6%	6 5.7%	10 4.6%
	전세	23 20.5%	30 28.6%	53 24.4%
	보증월세	72 64.3%	62 59.0%	134 61.8%
	무보증월세	8 7.1%	5 4.8%	13 6.0%
	기타	5 4.5%	2 1.9%	7 3.2%

□ 응답자 국적 및 비자유형

(단위: 명, %)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국적 (한국국적 취득이전 국적)	중국	101 97.1%	99 95.2%	200 96.2%
	베트남	1 1.0%	1 1.0%	2 1.0%
	일본	1 1.0%	1 1.0%	2 1.0%
	몽골	0 0.0%	1 1.0%	1 0.5%
	콩고	0 0.0%	1 1.0%	1 0.5%
	우즈벡	0 0.0%	1 1.0%	1 0.5%
	말레이시아	1 1.0%	0 0.0%	1 0.5%
배우자 국적	한국	7 9.2%	18 23.1%	25 16.2%
	중국	69 90.8%	59 75.6%	128 83.1%
	콩고	0 0.0%	1 1.3%	1 0.6%
한국국적 취득의향	있음	60 54.5%	50 48.1%	110 51.4%
	없음	50 45.5%	54 51.9%	104 48.6%
비자유형 (최초 발급비자)	C-3, C-3-1~2, C-3-8, C-8 (단기방문, 관광, 동포방문 외)	7 8.3%	23 29.9%	30 18.6%
	D-2 (유학)	3 3.6%	2 2.6%	5 3.1%
	E-9-2 (비전문 취업)	1 1.2%	0 0.0%	1 0.6%
	F-1, F-1-4 (방문동거, 가족동거-취업가능)	1 1.2%	2 2.6%	3 1.9%
	F-2 (거주)	3 3.6%	9 11.7%	12 7.5%
	F-4 (재외동포)	10 11.9%	6 7.8%	16 9.9%
	F-5 (영주)	0 0.0%	1 1.3%	1 0.6%
	F-6 (결혼이민)	0 0.0%	2 2.6%	2 1.2%
	G-1 (기타)	0 0.0%	1 1.3%	1 0.6%
	H-2 (방문취업)	59 70.2%	31 40.3%	90 55.9%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비자유형 (현재비자)	C-3, C-3-1~2, C-3-8, C-8 (단기방문, 관광, 동포방문 외)	4 4.4%	0 0.0%	4 2.4%
	D-2 (유학)	3 3.3%	2 2.5%	5 2.9%
	F-2 (거주)	1 1.1%	0 0.0%	1 0.6%
	F-4 (재외동포)	26 28.9%	30 37.5%	56 32.9%
	F-5 (영주)	9 10.0%	11 13.8%	20 11.8%
	F-6 (결혼이민)	1 1.1%	4 5.0%	5 2.9%
	G-1 (기타)	0 0.0%	1 1.3%	1 0.6%
	H-2 (방문취업)	43 47.8%	24 30.0%	67 39.4%
	H-2-7 (만기출국자 재입국자)	1 1.1%	0 0.0%	1 0.6%
	귀화, 국적취득	2 2.2%	7 8.8%	9 5.3%
	기타	0 0.0%	1 1.3%	1 0.6%

부록 5 한국인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39 53.1%	123 46.9%	262 100.0%
연령	20대이하	61 66.3%	31 33.7%	92 100.0%
	30대	32 56.1%	25 43.9%	57 100.0%
	40대	19 39.6%	29 60.4%	48 100.0%
	50대	17 37.0%	29 63.0%	46 100.0%
	60대이상	10 52.6%	9 47.4%	19 100.0%
최종학력	중학교졸업이하	2 15.4%	11 84.6%	13 100.0%
	고등학교 졸업	50 54.9%	41 45.1%	91 100.0%
	전문대 졸업	19 47.5%	21 52.5%	40 100.0%
	4년제 대학교 졸업	59 60.2%	39 39.8%	98 100.0%
	대학원 이상	7 53.8%	6 46.2%	13 100.0%
결혼여부	예	94 67.1%	46 32.9%	140 100.0%
	아니오	43 36.4%	75 63.6%	118 100.0%
자녀유무	없음	85 65.4%	45 34.6%	130 100.0%
	있음	40 36.4%	70 63.6%	110 100.0%
자녀연령 (다중응답)	미취학	5 29.4%	12 70.6%	17 100.0%
	초등학교	8 27.6%	21 72.4%	29 100.0%
	중학교	3 21.4%	11 78.6%	14 100.0%
	고등학교	10 41.7%	14 58.3%	24 100.0%
	대학생 이상	25 43.1%	33 56.9%	58 100.0%
자녀형태	저연령대 자녀 (미취학~초등학교)	11 26.8%	30 73.2%	41 100.0%
	중등교육과정 자녀	21 32.3%	44 67.7%	65 100.0%
	그 외 (자녀없음, 대학생 이상)	110 58.5%	78 41.5%	188 100.0%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거주형태	혼자	46 82.1%	10 17.9%	56 100.0%
	배우자	12 41.4%	17 58.6%	29 100.0%
	배우자와 자녀	31 37.3%	52 62.7%	83 100.0%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2 28.6%	5 71.4%	7 100.0%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	6 85.7%	1 14.3%	7 100.0%
	친척	6 85.7%	1 14.3%	7 100.0%
	친구	2 25.0%	6 75.0%	8 100.0%
	직장동료	1 100.0%	0 0.0%	1 100.0%
	기타	31 50.8%	30 49.2%	61 100.0%
배우자 국적	한국	46 36.8%	79 63.2%	125 100.0%
	중국	1 50.0%	1 50.0%	2 100.0%
직업	전문직	27 69.2%	12 30.8%	39 100.0%
	사무/관리직	25 62.5%	15 37.5%	40 100.0%
	서비스직	10 55.6%	8 44.4%	18 100.0%
	생산직/단순노무직	6 66.7%	3 33.3%	9 100.0%
	자영업	17 63.0%	10 37.0%	27 100.0%
	가정주부	0 .0%	40 100.0%	40 100.0%
	학생	39 62.9%	23 37.1%	62 100.0%
	무직/구직중	7 58.3%	5 41.7%	12 100.0%
	기타	6 54.5%	5 45.5%	11 100.0%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거주기간 (현재 거주지)	1년 미만	4 66.7%	2 33.3%	6 100.0%
	1~2년	30 63.8%	17 36.2%	47 100.0%
	3~5년	33 67.3%	16 32.7%	49 100.0%
	6~10년	27 56.3%	21 43.8%	48 100.0%
	11~15년	12 52.2%	11 47.8%	23 100.0%
	16~20년	12 35.3%	22 64.7%	34 100.0%
	21~30년	12 37.5%	20 62.5%	32 100.0%
	31~40년	3 25.0%	9 75.0%	12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22 44.0%	28 56.0%	50 100.0%
	아파트	62 57.4%	46 42.6%	108 100.0%
	원룸/오피스텔	20 74.1%	7 25.9%	27 100.0%
	고시원	2 100.0%	0 0.0%	2 100.0%
	연립주택/다세대주택	29 21.0%	36 29.3%	65 24.9%
	기타	3 2.2%	6 4.9%	9 3.4%
주거계약 형태	자가	54 47.4%	60 52.6%	114 100.0%
	전세	51 57.3%	38 42.7%	89 100.0%
	보증월세	22 61.1%	14 38.9%	36 100.0%
	무보증월세	4 57.1%	3 42.9%	7 100.0%
	기타	7 58.3%	5 41.7%	12 100.0%
외국어 구사여부	가능	64 44.1%	81 55.9%	145 100.0%
	영어	42 64.6%	23 35.4%	65 100.0%
	중국어	8 53.3%	7 46.7%	15 100.0%
	기타	11 64.7%	6 35.3%	17 100.0%
	불가능	73 64.0%	41 36.0%	114 100.0%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외국어 배울 의향	있음	68	78	146
		46.6%	53.4%	100.0%
		16	22	38
		42.1%	57.9%	100.0%
	중국어	16	11	27
	59.3%	40.7%	100.0%	
	기타	10	6	16
		62.5%	37.5%	100.0%
	없음	33	31	64
		51.6%	48.4%	100.0%

2014 정책연구-08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에 대한 젠더 분석 :
서남권 4개구를 중심으로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강희영, 이경숙
발행일 2014년 12월
인쇄처 (주)인디엔피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29-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000(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